

연구보고서 2021-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김은정
오신휘·이희현·이혜숙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김은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오신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 이희현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 이혜숙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2021-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18-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21>

발|간|사

2000년대 이후 국내의 아동돌봄 정책은 정치적·사회적 요구와 부합되면서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2013년에 전 계층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최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국가책임보육이 일정 부분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통한 보육 및 유아교육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반면,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는 매우 더디게 발전해 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04년에 ‘방과후교실’이 처음 도입되었고, 2010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만 지역에 따라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를 확대하기보다는 운영 교실 수를 늘려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마을 중심의 아동돌봄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 중이나 전체 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할 때 이용아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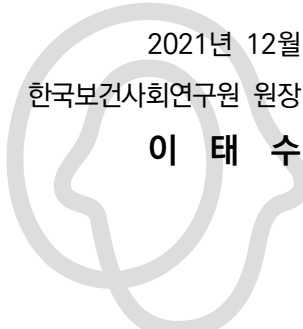
정부는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7년에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로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공백은 더욱 심화되었다.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학교와 돌봄센터가 휴교와 휴원을 단행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학교와 관련 돌봄시설은 긴급돌봄

을 운영하는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긴급돌봄 운영과 함께 재택근무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경우일수록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충분한 사적 돌봄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돌봄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밖에도 학교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의 아동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졌으며, 부모나 제3의 돌봄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은 가정 내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팬데믹 기간에 혼자 있는 아동에 대한 사건사고 등이 보도되는 등 혼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돌봄지원 대응 상황을 검토하고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이혜숙 박사님, 이희현 박사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Abstract | 1 |
| 요 약 | 3 |
| 제1장 서론 | 7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2 |
| 제2장 기존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 15 |
| 제1절 초등 학령기 공적 돌봄 현황 | 17 |
| 제2절 코로나19와 아동돌봄 | 30 |
| 제3절 해외 돌봄 사례 | 33 |
| 제3장 코로나19 위기 시 돌봄대응 현황 | 55 |
| 제1절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응 | 57 |
| 제2절 학교돌봄 | 67 |
| 제3절 마을돌봄 | 77 |
| 제4절 시사점 | 93 |
| 제4장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 97 |
| 제1절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 99 |
| 제2절 온라인 학습 및 환경 변화 | 128 |
| 제3절 정책 욕구 | 144 |
| 제4절 시사점 | 149 |

| | |
|---|------------|
| 제5장 위기대응 돌봄체계 구축 방안 | 153 |
| 제1절 기본 방향 | 155 |
| 제2절 세부 과제 | 158 |
| | |
| 참고문헌 | 175 |
| | |
| 부 록 | 185 |
| [부록 1]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표 | 185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2-1〉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예시) | 23 |
| 〈표 2-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성 비교 | 24 |
| 〈표 2-3〉 2017년 덴마크의 돌봄 기관 유형 및 운영형태별 기관 수 | 35 |
| 〈표 2-4〉 방과후돌봄(Out-of-school-hours services) 참여율 | 36 |
| 〈표 2-5〉 방과후돌봄 주당 이용시간 | 37 |
| 〈표 2-6〉 소득에 따른 보조금 지급 유무 | 40 |
| 〈표 2-7〉 코로나19 이후 덴마크 돌봄 및 교육 대응조치 내용 | 41 |
| 〈표 2-8〉 방과후돌봄 운영체계와 역할 | 45 |
| 〈표 2-9〉 Halton District 방과전후 프로그램 이용 비용 | 48 |
| 〈표 2-10〉 팬데믹 동안 아동돌봄 이용(공식/비공식, 센터 또는 가정) | 51 |
| 〈표 3-1〉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 과정 | 58 |
| 〈표 3-2〉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아동돌봄쿠폰 지원 현황 | 60 |
| 〈표 3-3〉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2020.02) | 62 |
| 〈표 3-4〉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9판(2021.11.15.) | 65 |
| 〈표 3-5〉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단계적 돌봄(2020년) | 71 |
| 〈표 3-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돌봄 운영(2021년 신학기) | 72 |
| 〈표 3-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돌봄 운영(2021년 2학기) | 73 |
| 〈표 3-8〉 학사운영 방법별 돌봄 운영 유형(교육부, 2020.5.22.) | 74 |
| 〈표 3-9〉 개학 연기 기간 긴급돌봄 참여 현황(2020.3.2.~4.19.) | 75 |
| 〈표 3-10〉 온라인 개학 기간 참여 현황(2020.4.20.~6.7.) | 75 |
| 〈표 3-11〉 등교수업 기간 참여 현황(2020.6.8.~7.27.) | 76 |
| 〈표 3-12〉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 대응지침 | 78 |
| 〈표 3-13〉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주요 역할 | 82 |
| 〈표 3-14〉 아동권리본부 초기대응 추진내용 | 83 |
| 〈표 3-15〉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수 및 이용아동 수(2019년 말 기준) | 84 |
| 〈표 3-16〉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수(2019년 12월, 2020년 6월/12월, 2021년 6월) · | 85 |
| 〈표 3-17〉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수(2020년 6월/12월, 2021년 6월) |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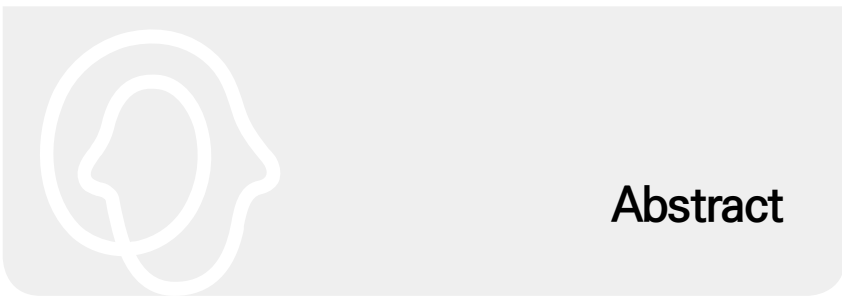
| | |
|--|-----|
| 〈표 3-18〉 학년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수(2020년 6월/12월, 2021년 6월) | 87 |
| 〈표 3-1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19년) | 88 |
| 〈표 3-20〉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2012년~2019년) | 89 |
| 〈표 3-21〉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 90 |
| 〈표 3-22〉 저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 91 |
| 〈표 3-23〉 고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 92 |
| 〈표 3-24〉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 92 |
| 〈표 4-1〉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조사 내용 | 100 |
| 〈표 4-2〉 응답자 일반 사항 | 101 |
| 〈표 4-3〉 돌봄서비스 인지 정도(총괄표) | 102 |
| 〈표 4-4〉 코로나 대응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정도(총괄표) | 103 |
| 〈표 4-5〉 코로나 대응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정도 | 104 |
| 〈표 4-6〉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이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시간: 평일 오후 · 106 | |
| 〈표 4-7〉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시간: 평일 오전 · 107 | |
| 〈표 4-8〉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돌봄서비스 만족도 | 108 |
| 〈표 4-9〉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돌봄서비스 만족도 | 109 |
| 〈표 4-10〉 학교돌봄서비스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 110 |
| 〈표 4-1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11 | |
| 〈표 4-12〉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13 | |
| 〈표 4-13〉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 116 |
| 〈표 4-14〉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 116 |
| 〈표 4-15〉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 117 |
| 〈표 4-16〉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19 | |
| 〈표 4-17〉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21 | |
| 〈표 4-18〉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만족도 · 122 | |
| 〈표 4-19〉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만족도 · 123 | |
| 〈표 4-20〉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 124 |



| | |
|---|-----|
| 〈표 4-2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25 |
| 〈표 4-22〉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27 |
| 〈표 4-23〉 학교 온라인 수업 실시 및 등교일수 조정(조사시점 기준) | 128 |
| 〈표 4-24〉 온라인 수업 환경: 학습 장소 | 129 |
| 〈표 4-25〉 온라인 수업 환경: 학습 장소 독립된 공간 유무 | 131 |
| 〈표 4-26〉 온라인 수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총괄표) | 132 |
| 〈표 4-27〉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수업 이외의 활동시간 변화 정도 | 133 |
| 〈표 4-28〉 코로나 발생 전후 어려움 및 염려 정도 | 134 |
| 〈표 4-29〉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부(아버지) | 135 |
| 〈표 4-30〉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모(어머니) | 135 |
| 〈표 4-31〉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부(아버지), 가족돌봄휴가 ... | 136 |
| 〈표 4-32〉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모(어머니), 가족돌봄휴가 ... | 137 |
| 〈표 4-33〉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부(아버지), 재택근무 | 138 |
| 〈표 4-34〉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모(어머니), 재택근무 | 138 |
| 〈표 4-35〉 코로나 위기 관련 부부 소득 변화 정도(총괄표) | 139 |
| 〈표 4-36〉 코로나 위기 관련 부부 소득 변화 정도: 부(아버지) | 140 |
| 〈표 4-37〉 코로나 위기 관련 부부 소득 변화 정도: 모(어머니) | 141 |
| 〈표 4-38〉 코로나 시기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근로환경의 변화(총괄표) | 142 |
| 〈표 4-39〉 코로나 시기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퇴사 및 휴업 | 142 |
| 〈표 4-40〉 코로나 시기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근로시간(영업시간) 단축 | 143 |
| 〈표 4-41〉 코로나 대응 관련 자녀돌봄 지원 중요도 | 144 |
| 〈표 4-42〉 코로나 대응 자녀돌봄 지원 필요 우선순위 | 146 |
| 〈표 4-43〉 일상적 상황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 학년 | 147 |
| 〈표 4-44〉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돌봄 및 학습 지원) 제공 학년 | 148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분석 틀 | 13 |
| [그림 2-1] 지난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19 |
| [그림 2-2] OECD 국가 방과후돌봄(Out-of-school-hours services) 참여율 | 36 |
| [그림 2-3] OECD 국가 방과후돌봄(Out-of-school-hours services) 주당 이용시간 · 37 | |
| [그림 3-1] 긴급돌봄 대응 및 지원현황 | 68 |
| [그림 3-2] 2020년 상반기 긴급돌봄 학생 참여 추이(2020년 3월~7월) | 77 |
| [그림 3-3]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체계 | 80 |
| [그림 3-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TF 구성·운영 | 81 |
| [그림 3-5]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3월~2021년 6월) | 90 |
| [그림 3-6] 저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3월~2021년 6월) | 91 |
| [그림 3-7] 고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3월~2021년 6월) | 91 |
| [그림 5-1] 지역단위 수급관리체계 구축 모형 | 165 |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are system fo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in the post-corona era

Project Head: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s emergency care response and the current state of care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efficient response to the urgent care needs in the future crisis situations.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the all-day care system did not hav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o that each department was independently carrying out the COVID-19 emergency care without mutual cooperation and supple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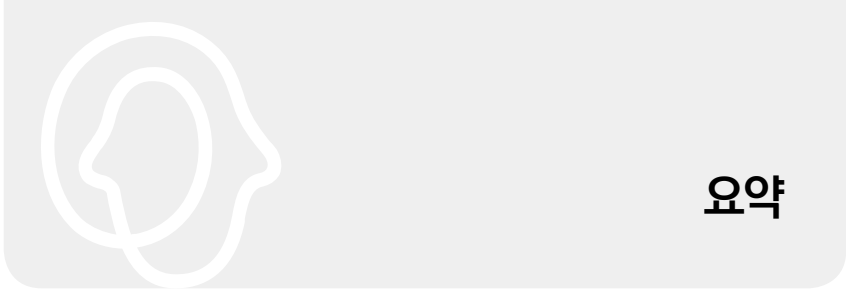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surveys on the status of care, satisfaction with emergency care during the COVID-19 period was generally lower than that of day-to-day care before that. Also, in case of the vulnerable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was very weak, the access to the work-family balance system was low, and the rate of experiencing a decrease in income was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measure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universal service supply system for promotion of children's well-being and development, and to improve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the service quality. A beneficiary-pay model can be considered as a way of supply expansion.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in the care service facilities. The second is establishment of a regional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for flexible response to the urgent care needs.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status of child care at the regional level to identify and support the children in crisi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stablish a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emergency care at the regional level. Lastly, in addition to the service supplies, it is proposed to diversify support methods such as cash payment to alleviate the burden of childcare costs, and to increase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care through expans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policies.

Keyword : care facilities COVID-19 response; emergency care fo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regional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 연구에 따르면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수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는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공백을 더욱 심화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시설서비스를 통한 긴급돌봄 운영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및 돌봄휴가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돌봄시간 및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자녀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으로 돌봄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돌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더 나아가 학습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실태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수요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욕구 등을 바탕으로 현재 돌봄 공급체계의 변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긴급돌봄 대응 현황을 검토하고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감염병과 같은 돌봄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돌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온종일돌봄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초등 학령기 돌봄은 서비스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통합적인 서비스 수급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돌봄이 학교의 고유기능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습과 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른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이원화된 체계에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서비스 유형별로, 담당부처별로 매우 독립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함에 따라 상호협력 및 보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실태 및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된 긴급돌봄의 경우 마을돌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0%내외로 높게 조사되었다.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 이전의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긴급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수업 실태와 환경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취약가구의 온라인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인터넷 및 TV 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학습관리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휴교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및 학습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 밖에 부모의 근로 및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 접근성이 낮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에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조사한 결과, 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도 일·가정 양립제도와 같은 시간지원,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가정 내 급식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특히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는 일상의 돌봄위기보다 더욱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돌봄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환경 및 위기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체계 구축과 협력 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대응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으로 아동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장,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돌봄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 방향을 가지고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 탄력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방법의 지원체계 수립이라는 3가지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자 부담의 공급모형의 검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설 내 원격수업 지원 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내에서 돌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을 위한 상시적 인력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에 따른 가정 내 긴급돌봄 지원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방법의 지원체계 수립

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을 위해서는 돌봄위기 대응 현금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 확보를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 돌봄시설 감염병 대응,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 실태,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인구와 노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저출산 대응 및 아동복지 관점에서 아동돌봄 지원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아동돌봄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팬데믹 이전에도 돌봄공백은 아동발달 및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서비스(초등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은 전체 초등학생의 14.1%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이 같은 이용률 수준은 OECD의 방과후돌봄 이용률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6~11세 아동의 방과후돌봄 참여율은 2016년 기준 67.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OECD, 2016).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해당하는 6~8세 아동의 방과후돌봄 이용률은 82.8%에 달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시행되고 있다(OECD, 2016).

기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중 평균 한 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은 37%이고,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혜경 외, 2015).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이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하는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50.5%, 중복응답)'로 조사되었다(오현정, 황원경, 2019).

p.12).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이른 하교시간으로 인해 영유아기 이후 돌봄절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위기에 따라 시행된 휴교와 돌봄시설의 휴원은 돌봄공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초등아동은 영유아에 비해 더욱 심각한 돌봄위기에 처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보육 및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초등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인프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서비스 이용률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 초등돌봄은 당초 학교의 돌봄 대상자는 1~2학년의 일부에 불과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시설의 이용대상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긴급돌봄이 운영되었기에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교 등으로 인해 가정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시설서비스를 통한 긴급돌봄 운영을 지원했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및 돌봄휴가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수혜는 근로환경 및 직업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상이하여 해당 정책의 활용 정도도 매우 상이하다. 기존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안정적인 전일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돌봄시간 및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자녀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돌봄 자원이 부족할수록,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로자일수록 일과 자녀돌봄의 양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장수정, 송다영, 백경훈, 2019).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으로 돌봄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돌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더 나아가 학습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가정돌봄 부담은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기존 돌봄체계 기능의 한계가 드러나고 개인 및 가정의 돌봄책임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함에 따라 기존 돌봄체계에 대한 변화 및 보완 필요성이 대두된다. 팬데믹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학습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돌봄공백, 아동학대, 학습격차 등)를 야기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실태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수요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욕구 등을 바탕으로 현재 돌봄 공급체계의 변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아동돌봄 영역의 관련 연구는 미취학 아동 돌봄에 편중되어 있으며,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팬데믹에 따른 돌봄연구의 경우 초등 학령기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구체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위기 관련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의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분석 연구는 실시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주요 정책인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수행하는 체계를 내재한 아동돌봄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돌봄 대응 현황을 검토하고,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위기 같은 돌봄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아동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돌봄수요에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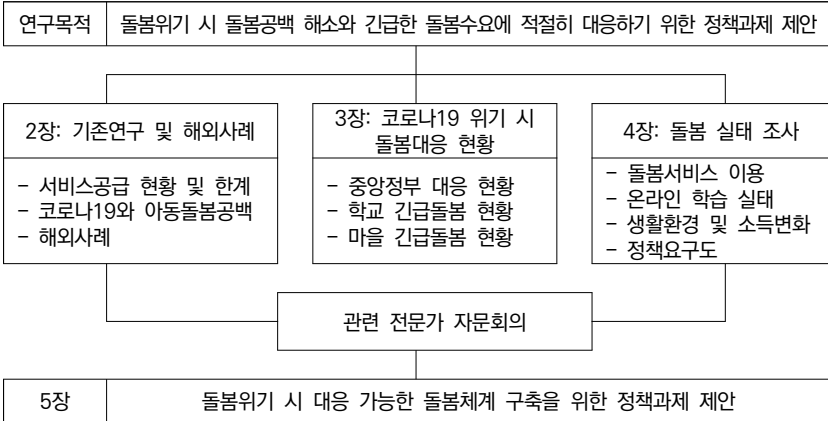
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 정부의 긴급돌봄 대응 현황과 아동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돌봄위기 시 돌봄공백 해소와 긴급한 돌봄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으로 기존 관련 문헌 및 해외사례를 검토했고, 정부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와 긴급돌봄 및 돌봄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분석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밖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분석 틀



제2장에서는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유형과 그에 따른 공급 및 이용현황, 코로나19 시기 아동돌봄 공백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초등 학령기 아동돌봄체계의 한계와 코로나19 시기의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이 밖에 해외의 방과후활동 체계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대응 동향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참고하고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돌봄 공급 유형에 따른 공급 및 이용 현황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기 아동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된 긴급돌봄 현황을 학교돌봄과 마을 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운영 및 이용현황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체계의 한계와 쟁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초등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의 등교 현황과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돌봄공백과 온라인 학습환경, 정책 욕구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큰 차이가 있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농어촌과의 비교

를 위하여 농어촌을 추가로 표집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돌봄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같은 돌봄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지원 욕구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학부모 실태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시 돌봄공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일상돌봄과 돌봄위기 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기존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제1절 초등 학령기 공적 돌봄 현황

제2절 코로나19와 아동돌봄

제3절 해외 돌봄 사례



제 2 장 기존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제1절 초등 학령기 공적 돌봄 현황

1. 돌봄서비스 공급 유형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는 교육부의 주관 하에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가 있다. 이 중 아이돌보미는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개별돌봄서비스로 타 서비스와 성격을 매우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대해 다룬다.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돌봄서비스 공급을 학교돌봄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마을돌봄으로 구분하기에, 편의상 본 연구에서도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학교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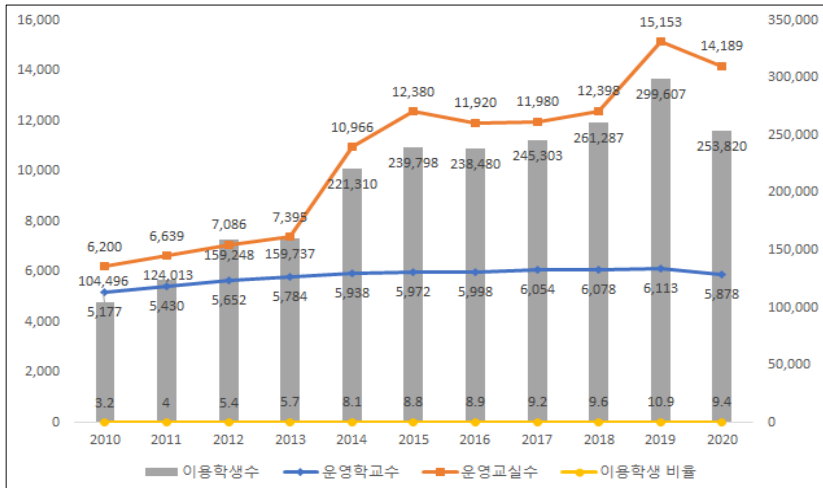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 도입 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 공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 6,265개교의 약 97.6%(6,113개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이보다 다소 작

은 5,983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약 95.5%에 해당한다. 이는 약 5% 내외의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오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56,825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약 9.3%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 저학년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아동이 1~2학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학년의 약 27.8%가 오후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나 운영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돌봄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방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요 예산은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재원의 출처를 고려할 때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교육부인지 시·도교육청인지는 다소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해당 재정상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지역 간 돌봄서비스 공급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초등돌봄교실의 그간의 공급현황은 [그림 2-1]과 같다. 2010년 이후 매우 소극적으로 증가하던 돌봄교실이 2013~2015년 사이에 매우 적극적으로 증가한다. 이용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약 5.7%에서 2015년 8.8%까지 증가하고, 이후 2018년까지 운영 교실 수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상태이며 이용학생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2019년에 운영 교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용학생 비율은 10.9%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온종일돌봄 정책이 추진되면서 돌봄교실 수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운영 학교, 운영 교실, 이용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이용의 경우 제한된 공급을 바탕으로 이용자격 조건에 따라 이용자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구조로 현재의 공급량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은정 외, 2019). 정부는 저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을 고학년까지 확대하여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이용 시비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돌봄전담사가 상주하지 아니하며 돌봄프로그램이 별도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그림 2-1] 지난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 1) 교육부. (2019).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교육부 보도자료(2019.1.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4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opType=N>에서 2021.5.28. 인출.

2) 학교알라미 홈페이지. 2020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에서 2021. 5.28. 인출.

나. 마을돌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마을돌봄 또는 지역 돌봄으로 볼 수 있다. 마을 중심의 대표적인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으며, 두 시설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업이다.

1) 지역아동센터

당초 지역 내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과 돌봄을 지원하던 지역 공부방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아동센터는 적극적인 확대기를 경험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위주로 운영되어, 공적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4,2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들 중 약 70%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로 민간 위주의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법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민간운영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 정도가 지역별로 달라 공급환경에 대한 지역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보호 지원을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의 이용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반아동의 이용률은 기존의 20%에서 40%까지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적어도 60% 이상은 돌봄취약가구 아동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아동 비율의 확대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

다.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 해소 효과와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별화 해소, 일반아동의 이용 수요, 취약계층 아동으로는 정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아동의 이용률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 지원, 이용자들이 기관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수입, 후원금 등으로 충당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4,217개소 중 분석 불가능한 137개소를 제외한 4,080개소를 기준으로 4,008개소가 정부보조금(기본운영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소당 월평균 지원금은 약 57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특수목적형 지원금, 토요 운영 지원금, 우수 센터 지원금 등이 추가로 지원되었다. 추가 지원금은 특성별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정상황 및 한도에 따라 지원되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보조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지자체의 별도지원금이 용도에 따라 지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수입의 약 66%가 정부지원금(보조금, 지자체 별도지원금, 기타지원금)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a).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중앙지원단, 시·도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이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장과 소통을 통하여 시·군·구청 단위에서 서비스 연계·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2019년의 운영개소 수(4,217개소)는 2018년도 대비 6개소 증가에 불가해 사업 확장기는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학생 수는 약 10만 8,971명으로 2018년 10만 9,610명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a). 이들 중 초등학생은 87,775명으로 전체 이용아동의 약

80.5%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이용아동 수는 약 14,000명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a). 학교돌봄이 저학년 위주의 이용경향을 가지고 있는 점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학년별 수요(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학교돌봄과 차이가 있다. 학교돌봄은 이용대상을 당초 저학년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저학년 위주의 이용경향을 보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이 만 18세 이하로 학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저학년의 경우 돌봄수요는 고학년보다 높지만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고학년 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 온종일돌봄 정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민공동시설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공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이용아동은 만 6~12세로 초등 학령기 아동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아동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격으로 소득수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령기준에 맞는 아동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른 입소 우선순위의 예시는 <표 2-1>과 같다.

〈표 2-1〉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예시)

| 입소 우선순위(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초등학교 저학년 - 부모의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
| <p>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39.</p> |

2020년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42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0,713명 정원에 7,886명이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시범사업으로 10개의 센터가 운영되었고 2018년도에 17개소로 본격화된 점(보건복지부, 2020b, p.4)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개소 수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급수준은 정부가 계획한 개소 수에 못 미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1,817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설치·운영의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지자체가 서비스공급의 주체가 되어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 위주의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없고, 상시돌봄 뿐만 아니라 일시돌봄을 제공하며, 수익자 부담의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큰 차이가 있다. 추진체계는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나 사업지원단이 중앙과 시·도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은정 외, 2019). 국고지원으로 운영된다는 점, 민간단체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없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 2-2>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시간, 이용대상, 운영주체, 제공 서비스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대상과 이용기준의 차이가 있다. 운영시간의 경우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조건과 학기 중 오후 2시~7시 동안은 필수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방학 중에는 필수운영시간의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운영의 원칙하에 낮 12시~오후 5시를 필수 운영시간으로 지정된 데에 반해, 다함께돌봄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를 표준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예: 10시~19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 연령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측면이 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대상이 초등 학령기 아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숙제지도 및 독서지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표 2-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성 비교

| 구분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
| 이용대상 연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 및 중학생이 주된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12세(초등학생) |
| 이용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취약아동 60% 일반아동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음 다만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음 |
| 운영 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금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의 상시운영 학기 중에는 오후 2시~7시 필수 운영 방학 중에는 낮 12시~오후 5시 필수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금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의 상시운영 학기 중에는 오후 2시~7시 필수 운영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 하여 탄력적 운영 |
|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 기본프로그램: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학습활동(특기적성)으로 구분 기본프로그램: 출결 및 급간식 공통프로그램: 숙제지도, 독서지도, |

| 구분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주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활동, 휴식 학습활동(특별활동): 기초의국어,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
| 이용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이용이 원칙이나 지역 및 센터 여건에 따라 월 5만 원 이내의 이용료 부과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0만 원 수납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정함 |
| 지원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44조 |
| 재정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50%, 지방비 50% 기본운영비는 신고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지원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국비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기자재비: 국비 100% |
|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4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41조 |
| 예산 관련 주요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b).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2. 돌봄서비스 공급 환경의 한계

정부는 2017년 학교와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하여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였다.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하여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돌봄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합동 실무추진팀과 자문단을 운영하였고, 합동 토론회 및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2018년 4월 4일 온종일돌봄 정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기존의 부처별, 서비스 유형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급 환경에서 학교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틀을 구축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촘촘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 당시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공급 부족과 사각지대 문제, 지역 중심의 통합적 수급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그에 따라 정부는 개별 센터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 검색과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초등돌봄교실 확대, 마을돌봄 확대를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온종일돌봄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초등 학령기 돌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서비스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2년도까지 학교돌봄을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를 통하여 이용아동을 10만 명 추가 확대하고, 마을돌봄 이용아동을 10만 명 확대하여 총 53만 명에 대한 온종일돌봄을 제공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그럼에도 현재 공급량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수요를 고려할 때 부족한 공급량이다. 기존의 서비스 수요조사 연구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아동은 수요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치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35%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돌봄에 대한 수요는 추정방법에 따라 최소 6%에서 21.2%로 분석되었다(안수란 외, 2021). 이처럼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공급 부족은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 시 갑작스러운 돌봄절벽을 초래하게 되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적절한 휴가·휴직제도 활동이 어렵거나 돌봄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초등 자녀를 둔 워킹맘이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한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50.5%, 중복응답)’로 조사되었다(오현정, 황원경, 2019. p.12).

학교돌봄의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지자체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모형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돌봄터 사업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학교는 교실 및 운동장 등 시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이용아동의 안전 보장과 돌봄시설 운영·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운영모형을 통해서 학교는 돌봄서비스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신규 돌봄교실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기존의 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유휴 공간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돌봄교실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가질 경우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형태가 될 것인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돌봄전담사들의 반대 등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해당 사업의 추진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마을돌봄 확대 수준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을돌봄의 확대는 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적극적 확대를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계획만큼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다수의 연구에서, 현재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은정 외, 2019; 안수란 외, 2021).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저학년 중심,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에서 대상자를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프라 구축 등 서비스 공급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 학령기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 하루 평균 한 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은 37%이며, 한부모 자녀의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15). 이를 보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학교돌봄, 마을돌봄 영역 모두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합적인 서비스 수급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사업 담당 부처가 고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각 서비스 유형별·센터별로 독자적으로 서비스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고,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유인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절적 운영체제로 인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급한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단위의 장기적 돌봄서비스 공급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현재의 서비스 공급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되고 마을돌봄 내에서도 시설유형별로 구분되어 지역단위의 서비스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연계 협력과 학교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정부24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은 현원에 대한 정보가 빠진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학교가 잔여 정원이 있어도 신청 기간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직된 운영구조는 상황에 따라 돌봄환경이 변하는 아동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 모아놓았을 뿐 이들에 대한 통합관리체

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여전히 학교와 마을돌봄 공급이 따로 관리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온종일돌봄지원센터 설치 등 방과후돌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이혜숙, 이영주, 2019).

셋째, 앞서 논의된 두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돌봄이 학교의 고유기능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습과 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관리가 요구됨에도, 학습 이후 돌봄책임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교원의 업무 범위에 들지 않으며, 돌봄교실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해당 교실의 담당자가 돌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습교실과 돌봄교실 이용 간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과 학부모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신체적 보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학습과 돌봄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이해되기보다는 아동발달을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는 더 적극적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정책 추진 및 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현임, 손가현, 2021).

전반적으로 현재의 돌봄서비스 공급구조는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운영되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공급에 따른 수요량(이용량)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수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수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제공 시간이 수요

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고려한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호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적절히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이 고려되지 않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수정 외, 2019). 이와 같이 돌봄서비스 제공 수준이 양적·질적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돌봄교실 대신 사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가구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면 사교육을 이용하는 시간과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일·가정 양립에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일·가정 양립 이점이나 갈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돌봄교실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백순근, 이솔비, 장지현, 양현경, 2019).

제2절 코로나19와 아동돌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은 공급 부족으로 돌봄공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으며, 영유아기에서 초등기로 이행함에 따른 돌봄지원의 단절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촉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정부는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전환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실시된 휴교·휴원은 점차 등교 및 정상운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은 온라인 수업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시된 아동돌봄 연구의 대부분은 돌봄공백, 학습격차,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정익중, 이수

진, 강희주, 2020;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다수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코로나19는 기존의 교육 및 돌봄체계를 무력화함에 따라 아동 및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주로 논의되어 온 돌봄공백과 학습격차 문제 이외에도 가족갈등 및 일·가정 양립 문제, 경제적 위기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2019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특별재난지역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더 높아 전반적으로 취약가구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윤경 외, 2020).

이 밖에도 코로나19 시기에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최윤경 외, 2020; 정익중 외, 2020). 전국 초중고생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일 낮 시간대에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교생은 46.8%에 나타났다(정익중 외, 2020). 이 수치는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 돌봄공백 실태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로, 이는 기존의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같은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던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돌봄공백이 더 커지고, 휴교에 따른 돌봄공백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사적 인프라를 이용하던 아동의 경우 돌봄기능을 함께 하던 사교육 시설의 운영 중지 등으로 사적 영역에서도 돌봄공백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가정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의 돌봄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각 가정과 개인에게 전이된 돌봄부담은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구에도 부담을 야기하였다. 은기수(2020)의 연구에서 0~12세 자녀를 1명 이상 둔 기혼 남녀 1,252명을 맞벌이 부부 가구의 남성, 여

성, 홀별이 가구의 남성, 여성(전업주부)으로 나누어 코로나19에 따른 돌봄변화를 분석한 결과, 네 집단 모두에게서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가정돌봄 시간 증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좋았다고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홀별이 가구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돌봄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동 연구에서는 홀별이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 보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돌봄공백과 돌봄부담의 문제, 교육공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돌봄공백에 따른 아동방임과 돌봄부담에 따른 가족갈등이나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최아라, 2020). 최아라(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에 의한 아동돌봄 분야의 쟁점으로 돌봄공백 이외에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 디지털 활용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가정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부재 등을 진단하였다.

유니세프(UN Children's Fund)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아동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동감염의 문제 이외에도 아동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UN, 2020.5.12.; 아동권리보장원, 2020, p.20 재인용). 이와 같은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아동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최아라, 2020).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돌봄체계 마련과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육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으로 가정돌봄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위기대응 차원에서 수행되는 긴급돌봄과 함께 가정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최아라, 2020). 정익중(2020)의 연구에

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긴급돌봄은 필수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하였고,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돌봄휴가, 생계보호, 식품지원 등 다각적인 가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윤경 외(2020)의 연구에서는 육아 분야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재난상황에서의 육아지원체계(Blended Care System) 도입과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을 제안하였다.

제3절 해외 돌봄 사례1)

1. 덴마크(Denmark)

가. 법 및 제도

덴마크의 방과후돌봄 관련 법률은 2007년 6월 6일에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육, 방과후활동에 관한 법(Act on Day-Care, After-School and Club Facilities, etc.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²⁾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방과후센터 및 각종 보육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특수아동을 포함한 아동 지원과 관련 행정 체계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혜숙, 신인철, 한진아, 이영주, 2018, p.63). 동법에서는 이 법의 시행의 의무가 지방의회에 있고, 보조금 비율, 시설

1) 방과후돌봄은 after school program, after school care, after school activities 등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2) Act on Day-Care, After-School and Club Facilities (in Danish)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82051>에서 2021.10.10. 인출.

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설 활동과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보조금은 방과후학교 센터의 경우 지방의회 분담률이 70% 이상이고 학부모 분담률은 30% 이하이다. 아동 및 청소년 클럽과 방과후시설의 경우 지방의회의 분담분이 80%, 학부모가 20%를 분담하게 규정되어 있다(양미선, 2017, pp.11-14).

나. 방과후돌봄(after school care) 개요

1) 돌봄 유형

방과후돌봄은 지자체, 사립,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학교 기반 레저타임시설, 방과후센터, 클럽 등이 있다. 학교 기반 레저시설은 학내 시설에서 음악, 미술, 스포츠, 창의적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며, 주 대상은 6세에서 11세 아동이다. 클럽은 보통 10세에서 13~14세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2017년 기준 공립 SFO 시설로 1,279개소이며, 클럽은 공립 운영이 575개소이다(이혜숙 외, 2018, pp.63-64).

〈표 2-3〉 2017년 덴마크의 돌봄 기관 유형 및 운영형태별 기관 수

(단위: 개소)

| 기관 유형 운영형태 | 학교 기반 레저타임시설 | 애프터스쿨 센터 | 클럽 | 사립 데이케어시설 |
|-----------------|-----------------|-------------|-----|--------------|
| 공립(Municipal) | 1,279 | 40 | 575 | - |
| 독립(Independent) | 47 | 24 | 45 | - |
| 민간(Private) | 442 | 7 | 42 | - |
| 위탁(outsourced) | - | 0 | 0 | - |
| 사립 데이케어시설 | - | - | - | 60 |

주: 1) 독립: 지역의회와의 운영 협약을 통해 민간 공급자가 운영하는 형태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운영비 일부는 보조금으로 지원 받음

2) 민간: 지방의회로부터 인가받은 민간 공급자들이 운영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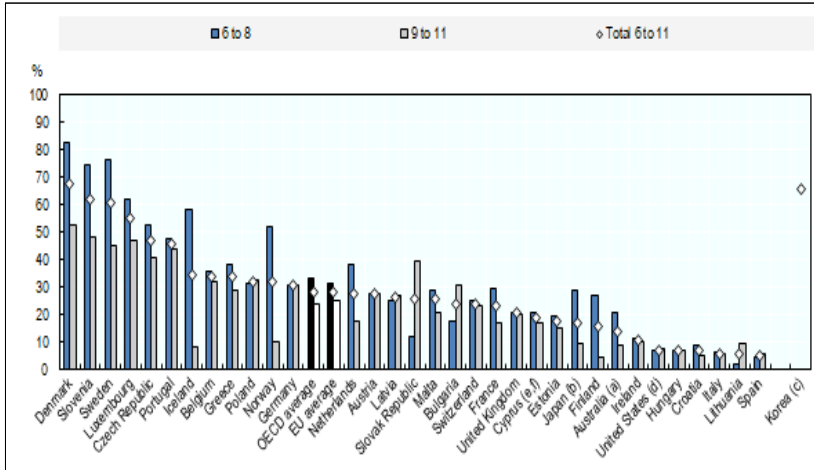
3) 위탁: 민간공급자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민간 공급자는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있음(양미선, 2017: 22)

자료: Statistics Denmark(<https://www.statbank.dk/BOERN4>). 이해숙 외(2018), p.64, 재인용.

2) 돌봄 이용 현황

덴마크는 일찍 학교 내 방과후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덴마크 학령기 6~11세 아동의 방과후돌봄 참여율은 2016년 기준 67.4%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8세 아동의 방과후돌봄 이용은 82.8%에 달해, OECD 평균(33.1%) 및 EU(31.1%)보다 훨씬 높다([그림 2-2], 〈표 2-4〉 참조).

[그림 2-2] OECD 국가 방과후돌봄(Out-of-school-hours services) 참여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PF4.3: Out-of-school-hours service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1. 10. 17. 인출)

<표 2-4> 방과후돌봄(Out-of-school-hours services)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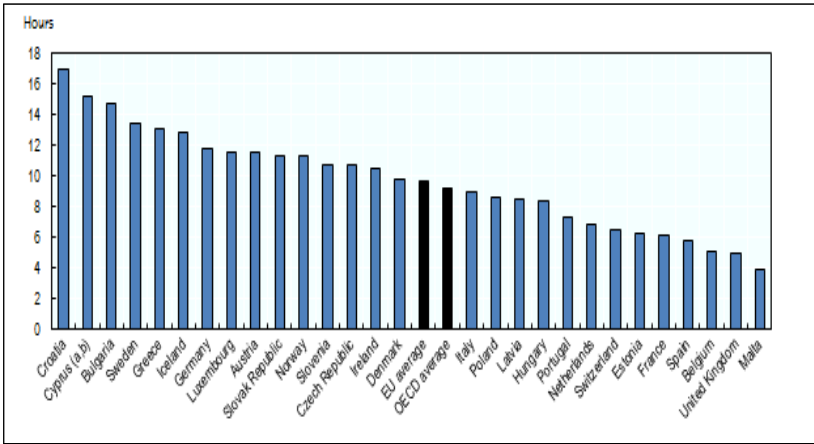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6~11세 | 6~8세 | 9~11세 |
|---------|-------|------|-------|
| 덴마크 | 67.4 | 82.8 | 52.9 |
| 슬로베니아 | 62.3 | 74.6 | 48.4 |
| 스웨덴 | 60.9 | 76.1 | 45.0 |
| 룩셈부르크 | 55.3 | 62.0 | 47.2 |
| 체코 | 47.0 | 52.3 | 40.6 |
| 포르투갈 | 45.6 | 47.4 | 43.8 |
| 아이슬란드 | 34.3 | 58.2 | 8.0 |
| 벨기에 | 34.1 | 36.1 | 32.2 |
| 그리스 | 33.6 | 38.1 | 29.0 |
| 폴란드 | 32.1 | 31.4 | 32.8 |
| 노르웨이 | 31.9 | 51.8 | 9.9 |
| 독일 | 30.7 | 30.7 | 30.8 |
| OECD 평균 | 28.6 | 33.1 | 23.8 |
| EU 평균 | 28.3 | 31.1 | 25.3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PF4.3: Out-of-school-hours service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1. 10. 17. 인출). 일부 발췌 재구성.

덴마크의 방과후돌봄 이용률은 OECD 최고수준이며 일주일당 이용 시간은 OECD 평균 및 EU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9.8시간이다([그림 2-3], <표 2-5> 참조).

[그림 2-3] OECD 국가 방과후돌봄(Out-of-school-hours services) 주당 이용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PF4.3: Out-of-school-hours service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 10. 17. 인출)

<표 2-5> 방과후돌봄 주당 이용시간

| 국가 | 이용시간 | 국가 | 이용시간 |
|-------|------|---------|------|
| 크로아티아 | 16.9 | 슬로바키아 | 11.3 |
| 시프러스 | 15.2 | 노르웨이 | 11.3 |
| 불가리아 | 14.7 | 슬로베니아 | 10.8 |
| 스웨덴 | 13.5 | 체코 | 10.7 |
| 그리스 | 13.0 | 아일랜드 | 10.4 |
| 아이슬란드 | 12.9 | 덴마크 | 9.8 |
| 독일 | 11.8 | EU 평균 | 9.7 |
| 룩셈부르크 | 11.6 | OECD 평균 | 9.2 |
| 오스트리아 | 11.5 | - | -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PF4.3: Out-of-school-hours service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1. 10. 17. 인출). 일부 발췌 재구성.

3) 운영 내용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학교 내 별도건물에서 1~3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방과후돌봄(SFO, skolefritidsordning)을 운영한다. 덴마크의 방과후돌봄(after school care)에 해당하는 SFO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5년 학교 안에 어린 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면서이다. 학교 건물이나 학교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부속건물 등을 활용하여 관련 아동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79년 「공립학교법(Folkeskole Act)」에 방과전후에 자녀 지도에 대한 부모의 지불 조항이 추가되면서, 지자체는 시설 사용에 대해 부모가 지불할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³⁾ 그리고 1984년 공립학교 외에 사립학교에도 방과후돌봄 시설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SFO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다.

① 운영체계⁴⁾

SFO는 교육위원회-학교장-SFO 관리자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른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위원회: SFO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감독
- 학교장: 전반적인 교육적, 행정적 책임
- SFO 관리자: SFO 활동과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책임

3) 덴마크 홈페이지

<https://lifeindenmark.borger.dk/school-and-education/school/after-school-centres-and-youth-clubs>, 2021.10.10. 인출 참조하여 작성.

4) 덴마크 홈페이지

<https://lifeindenmark.borger.dk/school-and-education/school/after-school-centres-and-youth-clubs>, 2021.10.10. 인출 참조하여 작성.

SFO는 학교 안에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고, 예산과 관리가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SFO 관리자가 전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간혹 학교장과 중요사안을 협의하기도 한다.

② 운영 대상과 운영 시간

방과후돌봄은 6세에서 11세 사이의 0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⁵⁾ 학교에 등록할 때 방과후돌봄서비스도 등록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아이들이 수업을 끝내고 SFO로 오는 시간부터 오후 17시(월요일~목요일)와 금요일은 16시 30분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방학에도 운영된다. 보통 부모들이 일을 마치고 SFO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온다.

③ 이용료⁶⁾

방과후돌봄은 가구소득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진다.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⁷⁾ 가구소득이 173,801 DKK(약 3,147만 원) 이하이면 무료, 가구소득이 173,801DKK(약 3,147만 원)~539,799DKK(약 9,775만 원)이면 일정 비율을 부모가 부담하고, 539,800DKK(약 9,775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소득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5)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4학년 이상 어린이를 위해 별도의 돌봄을 제공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SFO2라고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클럽이라고 한다.

6) 덴마크 홈페이지

<https://lifeindenmark.borger.dk/>, 2021.10.10. 인출 참조하여 작성

7) “økonomisk fripladstilskud”라고 한다.

〈표 2-6〉 소득에 따른 보조금 지급 유무

(단위: DKK)

| 소득 구간 | 보조금 지급 |
|---|--------------------|
| 173,801 (약 3,147만 원) | 전액 지급(무료 이용) |
| 173,801~ 539,799 (약 3,147만 원~약 9,775만 원) | 차등 지원(일정 비율 부모 부담) |
| 539,800 초과 (약 9,775만 원) | 지원 없음 |

주: 환산된 원화는 2021년 11월 30일 기준 환율임.

자료: 덴마크 홈페이지(<https://lifeindenmark.borger.dk/>)에서 2021. 10. 10. 인출. 연구자 구성.

다. 코로나19 돌봄 대응

덴마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및 교육기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봉쇄하여, 그에 따른 수업, 보육, 돌봄 운영에서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발 빠른 돌봄 및 교육기관의 휴교 및 운영 중단 조치와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⁸⁾ 특히, 교육 및 돌봄 기관의 봉쇄와 재개, 재봉쇄와 등교 및 운영 재개의 과정을 거쳐 대응을 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 1월에 6세 이하의 보육기관을 전면 운영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WHO의 팬데믹 발표 이후 덴마크의 돌봄 및 교육 중단 및 운영 재개 등의 대응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7〉 참조).

8) BBC News, (2020.5.12.). "How reopened schools in Denmark keep children safely apart"(<https://www.bbc.com/news/education-52550470>)에서 2021.10.10. 인출.

〈표 2-7〉 코로나19 이후 덴마크 돌봄 및 교육 대응조치 내용

| 날짜 | 조치 내용 |
|---------------|---------------------------|
| 2020년 3월 16일 | 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봉쇄 |
| 2020년 4월 15일 | 저학년부터 단계적 등교 |
| 2020년 12월 21일 | 다시 학교 폐쇄 |
| 2021년 1월 | 6세 미만 보육기관(어린이집 등) 재개 |
| 2021년 2월 | 저학년, 고학년 절반 등교, 점진적 학교 복귀 |

자료: EC. (2021). JRC Technical Report, “The school year 2020-2021 in Denmark during the pandemic”,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bitstream/JRC125452/jrc125452_edu_covid_denmark_report_2021.pdf에서 2021. 10. 17. 인출 및 참조하여 구성).

1) 팬데믹 초기 교육기관 봉쇄, 돌봄 중단

WHO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던 2020년 3월 11일, 덴마크 교육당국은 곧바로 2020년 3월 16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봉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학교 봉쇄에 들어가지만 휴교기간에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온라인 원격수업을 통해 최대한 학생 교육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아동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⁹⁾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센터 등에 지불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을 것을 알렸다. 동시에 긴급돌봄 정책은 마련할 것임을 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덴마크는 학교 폐쇄로 인한 긴급돌봄, 결석·보충 없는 수업 등에 대한 법 초안과 행정 명령 초안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긴급돌봄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 위원회는 긴급돌봄

9) 한국교육개발원. (2020a), 국가별 교육동향 “덴마크: 휴교 기간 중 온라인 수업 진행” (2020.4.22.).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96&pageIndex=7&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921&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28. 인출.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한 기준에 준하여 긴급돌봄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0b). 긴급돌봄 제공 대상은 ① 부모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의 0~9세 아동, ② 자택 근무가 허락되지 않는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0~9세 아동, ③ 사회적, 교육적 또는 치료적으로 특별한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2) 2020년 단계적 학교 재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¹⁰⁾

2020년 4월 15일,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쇄 완화 정책으로 교육기관의 단계적 등교를 단행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초학교 5학년까지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5월 18일부터 6~10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덴마크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등교 수업 복귀가 이루어졌다.

2. 캐나다¹¹⁾

가. 온타리오주 관련 법제도

2017년 9월 온타리오(Ontario)주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 교육청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10) 한국교육개발원. (2020c). 국가별 교육동향, “덴마크: 유치원생과 저학년 등교 수업 시작” (2020.5.27.).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96&pageIndex=6&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6408&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28. 인출.

11) 김홍원. (2017). 해외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 분석: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실시하였다.¹²⁾ 이로써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의무 제공 정책에 이르기까지 온타리오주의 법제도적 기반을 보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타리오주의 방과후 프로그램(Ontario's After School Program)은 “온타리오주 빈곤 감축 전략(Ontario's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9))”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2년 “청소년 실행계획(Ontario's Youth Action Plan)”에 의해 확대 실시되었다.¹³⁾ 2014년, 일상보호법(Day Nurseries Act)을 대체할 새로운 법인 “아동돌봄과 유아교육법(Child Care and Early Years Act, CCEYA)”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에서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CCEYA 제정으로 “교육법(Education Act)”도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에게 종일 유치원(Full-Day Kindergarten, FDK) 아동과 마찬가지로 방과전후 수업을 제공하게 되었다(이혜숙 외, 2018, p.75).

이 법의 제정으로 인가 기관(licensed center)은 강사에 대한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품 검사가 가능해졌으며, 온타리오주는 1억 6천만 달러¹⁴⁾(약 1,487억 7천만 원)를 새로운 예산으로 추가하였고, 5년 동안 지역사회 및 학교에 45,000개의 새로운 아동돌봄 장소를 설립하겠다고 계획하였다.¹⁵⁾

12)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국가별 교육동향, 온타리오주 방과전-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2017.10.11.)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63&pageIndex=5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6105&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15. 인출.

13)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after school program” http://www.mtc.gov.on.ca/en/sport/afterschool/after_school.shtml에서 2021.10.10. 인출.

14) 환산된 원화는 2021년 11월 30일 기준 환율

15)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국가별 교육동향, 온타리오주 방과전-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2017.10.11.)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63&pageIndex=51&pageCondition=10&nTbBoardArti>

나. 아동돌봄(child care) 개요

1) 돌봄 유형¹⁶⁾

온타리오주의 아동돌봄은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인가 아동돌봄 센터(licensed child care center)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5,561개의 아동돌봄센터와 462,802개소의 인가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영아 및 유아, 취학전·취학 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양육, 종일 돌봄, 연장형 시간 돌봄, 야간 돌봄,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방과전후 돌봄(befor-school and after-school care)은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동에게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 개별활동 및 야외놀이가 혼합된 프로그램으로 정규학교 일과를 보완한다. 학교운영위원회(school board)가 직접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인가 아동돌봄 센터 또는 권위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가진 제3의 기관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기도 한다. (3) 비인가 아동돌봄(licensed child care)은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대부분 주정부 기준도 충족할 의무가 없으며 5세 이상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4) 인가 가정 아동돌봄(licensed child care center)은 개별 가정 아동돌봄 제공자로 교육부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인가한 가정 아동돌봄 기관과 계약해서 돌봄을 제공한다. 이들은 유아, 영아, 취학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돌보며, 돌봄은 종일 돌봄, 방과전후 돌봄, 시간 연장 돌봄, 야간

cleSeq=816105&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15. 인출.

16)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아동돌봄 유형

<https://www.ontario.ca/page/types-child-care>에서 2021.10.10. 인출 및 참조해 작성함.

돌봄 등을 제공한다.

2)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내용¹⁷⁾

방과후 프로그램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신체 활동, 개인 건강, 왕따 방지, 영양 교육, 인터넷 안전과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참여를 유지하고 학업 성과를 개선하며 리더십 기술을 장려하도록 돕는다.

① 운영 체계 및 방식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센터에 일부 자원을 직접 제공하지만 각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결정하지 않는다. 주정부는 방과후돌봄 센터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인가) 아동돌봄기관에서 운영한다. 주로 지역의 스포츠 센터나 레크리에이션 비영리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8〉 방과후돌봄 운영체계와 역할

| 조직 | 역할 |
|------|--|
| 연방정부 | 방과후활동 운영 계획 |
| 주정부 | 방과후활동 예산 지원 · 방과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방과후활동 운영 규율 제정 |
| 지역사회 | · 정부, 학교,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방과후활동 운영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해외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 분석 자료집. p.49.

17)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해외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 분석 자료집, 김홍원. (2017). 해외 방과후돌봄 운영사례분석-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내용 중 캐나다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함.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한다. 교육부는 운영 지침을 제공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비영리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 참가자 선발 및 직원 고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② 이용대상

온타리오주 4~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온타리오주 학교의 80% 이상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였다.¹⁸⁾

③ 이용시간과 기간

인가 방과후 프로그램 기관에서 정규 방과전후 운영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이나 그 이후까지 진행되는 개별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는 한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이혜숙 외, 2018, p.76).

④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아동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영역(신체 활동, 건강한 식생활, 건강과 웰빙)으로 정한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문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전통 프랑스 레시피, 원주민 드럼 및 춤, 숙제 도움, 미술 및 공예,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혜숙 외, 2018, p.76).

18) 온타리오주 역사, 관광, 스포츠, 문화산업부 홈페이지
http://www.mtc.gov.on.ca/en/sport/afterschool/after_school.shtml, 2021.10.10. 인출 참조하여 작성함.

Superkids After School 사례¹⁹⁾

▷ Superkids After School은 아동의 흥미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의 학습과 동시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스포츠, 미술활동, 숙제활동, 야외활동, 게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 과학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 춤, 음악, 미술, 연극을 통한 표현
- 사회성 기술 및 우정
- 읽고 쓰는 능력 향상

▷ 주요 일과

- 7 am - 8 am - 학교 등교 서비스(해당 학교에 한함)
- 1:30 - 1:50 pm - 학교에서 픽업(영유아-2학년)
- 1:50 - 2:50 pm - 숙제, 보드게임, 책 읽기, 간식
- 2:30 - 2:50 pm - 학교에서 픽업(3-6학년)
- 2:50 - 3:30 pm - 숙제 및 간식
- 3:30 - 4:30 pm - 다양한 활동(미술/과학/체육/음악/야외활동)
- 4:30 - 6:00 pm - 자유 시간

⑤ 이용료

할튼구(Halton District)²⁰⁾의 방과전 프로그램은 무료인 경우도 있고, 하루 15.55달러(약 14,459원)~15.10달러(약 14,040원)에 이른다.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도 무료인 경우도 있으며, 초등 학령기 아동은 하루 약 21달러(약 19,526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한다. 크리스마스, 봄방학 기간에는 하루 이용 비용이 46달러(약 42,771원)에 달한다.

19) Active after school 홈페이지

<http://activeafterschool.ca/program/superkids-afterschool>에서 2021.10.10. 인출.

20) 이용료는 할튼구 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dsb.ca/parents/Pages/Before%20and%20After%20School%20Care/Child-Care-Rates.aspx>, 2021.10.10. 인출 참조하여 작성함.

〈표 2-9〉 Halton District 방과전후 프로그램 이용 비용

(단위: 캐나다 달러)

| 구분 | 방과전 | 방과후 | 방과전+방과후 | 봄방학, 크리스마스 |
|-------------------|----------------------|----------------------|----------------------|-------------------|
| 유치원 (3.8~6세) | 15.55 (약 14,459원) | 22.15 (약 20,595원) | 29.85 (약 27,755원) | 46 (약 42,771원) |
| 초등 학령기 (6~12세) | 15.10 (약 14,040원) | 21.00 (약 19,526원) | 27.00 (약 25,105원) | |

주: 하루 이용 기준 비용이며, 환산된 원화는 2021년 11월 30일 기준 환율임.

자료: 온타리오 할튼구 학교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dsb.ca/parents/Pages/Before%20and%20After%20School%20Care/Child-Care-Rates.aspx>에서 2021.10.10. 인출 및 재구성).

3) YMCA 방과후 프로그램 사례²¹⁾

YMCA는 인가 방과후 프로그램 기관이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프로그램이다. 숙련된 교사가 아동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동시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며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YMCA는 지역 교육위원회와 협력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진다.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건강한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21) YMCA Hamilton 홈페이지

<https://www.ywcahamilton.org/child-and-youth-services/>에서 2021.10.10. 인출.

다. 코로나19 돌봄 대응

1) 팬데믹 초기 교육기관 봉쇄, 긴급돌봄 제공

매니토바주의 경우, 켈빈 고어첸(Kelvin Goertzen)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수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2020년 3월 31일 발표하면서 이들의 수업이 중단되었다.²²⁾

그러나 필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긴급 무료보육 서비스 지원은 추진하였다. 몬트리올 영어교육청(English Montreal School Board, 이하 EMSB)은 의사, 간호, 경찰, 소방관 등 필수 분야(essential area)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아교육기관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3월 15일 퀘벡주의 장-프랑소아 로베르지(Jean-François Roberge) 교육부 장관도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된 유아교육기관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긴급 무료 보육 서비스(free emergency daycare services)가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긴급돌봄은 3월 23일부터 병원 근처에 위치한 약 400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4세부터 13세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였다. 긴급돌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되었다.²³⁾

22) 한국교육개발원. (2020d). 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매니토바주, 코로나19로 인한 무기한 휴교”(2020.4.8).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715>에서 2021.9.15. 인출.

23) 한국교육개발원. (2020e). 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필수 분야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운영”(2020.4.8).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63&pageIndex=2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712&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15. 인출.

이후 대면수업 재개가 연기된 지역의 경우 최전선 필수 노동자를 위한 무상 긴급돌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였다.²⁴⁾ 온타리오주 정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계획이 일부 지역에서 1월 25일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최전선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의 자녀에게 무상 긴급돌봄을 1월 25일까지 제공하기로 하였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타리오주 초등학교생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받고 있어 필수 인력의 자녀에 대한 긴급돌봄에 우체국 직원과 경찰, 캐나다 국경에서 일하는 직원, 전력소 근로자, 노숙자 지원 인력 등을 추가하였다. 무상 긴급돌봄이 제공되는 최전선 필수 노동자의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 아동구조협회 및 쉼터 직원, 발달 서비스 및 여성폭력센터 등에 종사하는 개인, 피해자 서비스 직군에 종사하는 개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또는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식품 및 음료의 제조와 유통 과정에 종사하는 개인, 주정부 법원 및 원주민 법원 종사자, 방사능 보호 서비스직 종사자, 캐나다 경찰 및 국경 서비스 관계자, 우체국 근로자, 약국 및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관계자, 전력소 근로자, 비시립 상수도 및 폐수 관계 근로자,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어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지도교사, 자가 격리로 인한 숙박업계 종사자, 각종 의료센터 및 백신 클리닉 관계자.

온타리오 주정부는 학교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증가로 다시 원격수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2021년 4월 19일부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을 다시 지원하였다.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학부모는 학령기 자녀를 인근의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²⁵⁾

24)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전선 필수 노동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확대”(2021.1.27.)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2&nTbBoardArticleSeq=829737>에서 2021.9.15. 인출.

25)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Newsroom.

2) 코로나19 돌봄 참여 현황과 돌봄 기관의 대응

코로나19 시기 동안 캐나다에서 방과후돌봄은 학교 및 보육기관의 봉쇄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직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시기 캐나다에서 방과후돌봄의 이용 현황은 캐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표 2-10>과 같다. 팬데믹 동안 자녀를 둔 가구의 방과후돌봄(child care) 이용 비율은 4~11세 아동의 6.4%, 미이용은 93.6%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 학령기 아동돌봄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보고되었다(<표 2-10> 참조).

일선 방과후돌봄 기관의 코로나 시기 방과후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잠정 중단과 일정 시기 이후 재개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자인 YMCA도 비슷하다. 방과전후 프로그램 등록도 가능하고, Day Camp 2021 등록도 가능하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표 2-10> 팬데믹 동안 아동돌봄 이용(공식/비공식, 센터 또는 가정)

(단위: %)

| 구분 | 0~14세 참여 | 취학 전 아동만 참여 | 4~11세 참여 | 12~14세 참여 | 다 연령 |
|--------------|-------------|-------------|-------------|-------------|-------------|
| 아동돌봄 이용 | 8.7 | 13.9 | 6.4 | 1.3 | 9.2 |
| 조건과 비용 동일 | 34.9 | 42.2 | 24.9 | × | 34.7 |
| 조건 동일, 비용 상이 | 8.8 | 9.0 | 9.1 | × | 8.2 |
| 조건과 비용 상이 | 45.7 | 39.8 | 53.9 | 49.1 | 46.3 |
| 조건 상이, 비용 동일 | 10.6 | 9.0 | 12.1 | × | 10.9 |
| 아동돌봄 미이용 | 91.3 | 86.1 | 93.6 | 98.7 | 90.8 |

<https://news.ontario.ca/en/backgrounder/61162/ontario-provides-emergency-child-care-for-critical-frontline-workers>에서 2021.10.11. 인출.

| 구분 | 0~14세 참여 | 취학 전 아동만 참여 | 4~11세 참여 | 12~14세 참여 | 다 연령 |
|------------|-------------|-------------------|-------------|--------------|------|
| 미참여, 미지불 | 52.7 | 68.5 | 52.8 | 14.4 | 51.7 |
| 지불, 미참여 | 5.6 | 8.3 | 4.3 | 0.9 | 6.3 |
| 코로나 이전 미이용 | 41.8 | 23.2 | 42.9 | 84.7 | 42.0 |

주: 1) ×는 통계법상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함.

2) '해당 없음'과 '무응답' 모두 포함.

자료: Statistics Canada. (2020). STATCAN COVID-19: DATA TO INSIGHTS FOR A BETTER CANADA, Child care us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150.statcan.gc.ca/n1/pub/45-28-0001/2020001/article/00062-eng.htm>에서 2021.10.10. 인출.

3. 시사점

해외 국가의 방과후돌봄 사례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방과후돌봄의 운영 방식에 있어 덴마크와 캐나다는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는 지자체가 SFO 관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데 비해, 캐나다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초등학교나 학교 외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캐나다의 경우 자부담 비용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 방과후돌봄은 덴마크와 유사한 방식의 운영으로 돌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크을 알 수 있다.

둘째,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017년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 제정은 아동에게 다양한 교과외 활동 및 보충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방과후돌봄이 의무 제공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적으로 방과후돌봄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덴마크나 캐나다가 모두 교과 보충 학습의 프로그램보다는 건강

한 성장과 야외활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제 지도나 교과 보충을 넘어 아동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 덴마크, 캐나다 모두 방과후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 방과후돌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점은 아직 관련 법률을 갖추지 않은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팬데믹 상황에서 덴마크와 캐나다의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대한 대응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덴마크는 여느 국가보다 빨리 학교 봉쇄를 풀고, 더불어 그 사이 긴급돌봄을 하여 타국가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덴마크와 캐나다 모두 매우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긴급돌봄을 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코로나19 위기 시 돌봄대응 현황

제1절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응

제2절 학교돌봄

제3절 마을돌봄

제4절 시사점



제 3 장 코로나19 위기 시 돌봄대응 현황

제1절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응

1. 정부의 주요 대응

〈표 3-1〉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과정을 나타낸다. 정부는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으며,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2020년 1월 27일에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다시 격상시키기에 이른다.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함에 따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구·경북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겨울방학이 끝난 시기이나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었다. 이후 개학 연기는 몇 차례 계속되었으며, 3차 개학 연기 시기에 ‘아동돌봄쿠폰’ 예산이 통과되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가정돌봄 부담이 커져 돌봄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며, 2020년 3월 17일 1조 539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었다. 2020년 상반기 아동돌봄쿠폰은 전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이 있는 약 200만 가구가 대상이 되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화폐,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이 4개월간 지원되었다.²⁶⁾

26) 보건복지부. (2020d).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3.2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0년 3월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4월 이후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중3과 고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되었다.

〈표 3-1〉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응 과정

|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 기간 | 내용 | |
|--------------------------|-----------|------------------------------------|--|
| 관심단계 (발생 및 유행) | ~1.20 | 해외 코로나 발생 및 유행에 따른 관심단계 | |
| 주의단계 (국내 유입) | 1.20~1.27 | '20.1.20 | ' 관심 → 주의 ' 단계로 격상(국내 첫 확진자 발생) |
| 경계단계 (제한적 전파) | 1.27~2.23 | '20.1.27 '20.2.17 | ' 주의 → 경계 ' 단계로 격상(국내 확진자 4명 발생) 31번 환자(대구, 인천지) 발생 |
| 심각단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2.23~3.22 | '20.2.23 | ' 경계 → 심각 ' 단계로 격상 대구·경북 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
| | | '20.3.2 | 경북 경산시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
| | | '20.3.5 | 초·중·고 개학 연기(1차 휴업명령, 3.2~3.6) |
| | | '20.3.9 | 경북 경산시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
| | | '20.3.16 | 초·중·고 개학 연기(2차 휴업명령, 3.9~3.20) |
| | 3.22~5.6 | '20.3.16 |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지역 '특별 재난지역' 선포 |
| | | '20.3.17 | 초·중·고 개학 연기(3차 휴업명령, 3.23~4.3) 이동양육기구 '이동돌봄쿠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
| | | '20.3.22 |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3.22~4.5) |
| | | '20.3.23 | 초·중·고 개학 연기(3차 휴업명령 3.23~4.3) |
| | | '20.4.3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소득하위 70%) 발표 |
| | '20.4.6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고강도, 4.6~4.19) | |
| | '20.4.6 | 초·중·고 개학 연기(4차 휴업명령, 4.6~4.8) | |
| | '20.4.9 | 단계적 온라인 개학(중·고 3학년부부터 순차적 학사일정 시작) | |
| | '20.4.20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완화형태, 4.20~5.5) | |
| | '20.4.29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안(전 국민 지급) 국회 통과 | |

|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 기간 | 내용 | |
|-----------------|--------|----------|---|
| | 5.6~현재 | '20.5.6 | 생활 속 거리 두기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총 24개소) 재개관 |
| | | '20.5.11 | 복지시설 일부 운영 시작 |
| | | '20.5.20 | 유·초·중·고 등교 또는 대면수업 시작(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 등교)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p.30.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아동양육한시지원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 학습지원이 추진되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기존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인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6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원금은 집행의 신속성, 아동양육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다.²⁷⁾ 만 13~15세(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취학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사업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수급제계를 활용하고,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스쿨뱅킹 등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였다.²⁸⁾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정부의 아동돌봄쿠폰지원 추진 현황은 <표 3-2>와 같다.

27) 보건복지부. (2020e).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9.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46&SEARCHKEY=TITLE&SEARCHVALUE=%EA%B9%80%EA%B0%95%EB%A6%BD+1%EC%B0%A8%EA%B4%80에서 2021.9.8. 인출.

28) 보건복지부. (2020f). 김강립 1차관, 4차 추경 집행 관련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준비상황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9.2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46&SEARCHKEY=TITLE&SEARCHVALUE=%EA%B9%80%EA%B0%95%EB%A6%BD+1%EC%B0%A8%EA%B4%80에서 2021.9.8. 인출.

〈표 3-2〉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아동돌봄쿠폰 지원 현황

| 구분 | 아동돌봄쿠폰 | 아동양육한시지원 | |
|---------|-------------------------------|--|------------------|
| | | 아동특별돌봄지원 | 비대면 학습지원 |
| 1. 시기 | - 2020년 상반기 | - 2020년 하반기 | - 2020년 하반기 |
| 2. 대상 | - 만 7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 아동) | - 만 7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 아동) - 만 7~12세(초등 학령기 아동) | - 만 13~15세 (중학생) |
| 3. 내용 | - 아동 1인당 40만 원 | - 아동 1인당 20만 원 | - 아동 1인당 15만 원 |
| 4. 지급방식 | - 전자바우처 중앙상품권 지역화폐(지역별 차이) | - 현금(아동수당계좌) | - 현금(스쿨뱅킹) |

주: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d).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3.2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SEARCHKEY=TITLE&SEARCHVALUE=200%EB%A7%8C에서 2021.8.12. 인출.

2) 보건복지부. (2020e).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9.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46&SEARCHKEY=TITLE&SEARCHVALUE=%EA%B9%80%EA%B0%95%EB%A6%BD+1%EC%B0%A8%EA%B4%80에서 2021.9.8. 인출.

3) 보건복지부. (2020f). 김강립 1차관, 4차 추경 집행 관련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준비상황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9.2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46&SEARCHKEY=TITLE&SEARCHVALUE=%EA%B9%80%EA%B0%95%EB%A6%BD+1%EC%B0%A8%EA%B4%80에서 2021.9.8. 인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지역별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 학교는 등교일수 조정을 통해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11월 22일 초·중·고학생에 대한 전면 등교가 실시되었으나 학교별로 등교일수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역에 따라 전면등교가 실시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되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상황 및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일수 등의 차이가 있다.

2. 정부의 주요 대응지침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을 2020.2.4일 자료 전격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 수정 보완되어 현재 8차까지 발표된 상황이다. 해당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가족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집단이용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았다. 대응조치사항으로 <표 3-3>과 같이 4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반국민용으로 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초기의 대응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자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조직 내 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수칙,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기준,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 돌봄종사자 관리기준,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표 3-3〉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2020.02)

| 지침 | 내용 |
|------------------------|---|
|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시설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 2. 감염예방 관리 철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 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 지침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 3. 돌봄종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
| 4.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자료: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2807&page=1에서 2021. 10.11. 인출.

이후 해당 지침서는 8차까지 개정되었으며 2차(2020.3.20)의 개선내용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에서 시·군·구청 내 시설 소관부서가 추가되었으며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2020.2.21일 자료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판)이 제공되었다(보건복지부, 2020.2.21.). 이후 해당 지침은 계

속 수정·보완되었으며 2021.7.1일 자로 8판이 안내되었다. 8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지자체 및 시설의 판단에 따라 자율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3단계와 4단계의 경우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계별 세부 대응 지침에 따르면, 1단계(억제단계)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설운영을 하고, 2단계(지역 유행 단계) 시에는 방역을 강화하고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권역 유행 단계) 시에는 이용정원의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있다. 4단계(대유행 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 원칙을 준수하되 지자체 판단하에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7.1.).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코로나19의 위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2021.11.15일 자로 9판이 안내되었다. 9판 지침이 발표되는 시기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던 시기로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방역관리 지침에 반영되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본방향은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하에 운영시설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접종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대응조치 사항에 대한 9판의 주요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9판(2021.11.15.)

| 지침 | 내용 |
|------------------------|--|
|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체계 ○ (대응체계) 복지부(중수본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 (방역조치 점검) 사회복지시설 → 지자체 ○ (운영 재개 등)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 사전 조치 신속 시행 (지자체·시설) |
| 2. 감염예방 관리 철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관리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마스크 착용,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충분히 비치 |
|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원칙적으로 접촉완료자는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48시간 이내)인 경우 출입 가능 □ 시설 이용자거주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받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및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름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6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 지침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이용자·자원봉사자·실습생 등에 대한 안내 ○ 접종완료자인 이용자·자원봉사자·실습생·방문자는 시설 출입 제한 없음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 <p>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회)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실시하되, 면회시간 및 미접종자 면회 제한 등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면회객, 거주자 모두 접종완료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48시간 이내) 음성확인자의 경우 접촉 면회 허용 ○ 거주자, 면회객 중 미접종자 포함 시 비대면 또는 비접촉 면회 허용 ○ 거주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면회객 PCR 음성 확인(48시간 이내)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 가능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권고,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 발열 등 증상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 방역관리 실시 □ (외출·외박)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는 별도 제한 없음 ○ 미접종자도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③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 시 (예: 가족경조사, 병·의원 진료 등) 허용하고, 필요시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 복귀 후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확인 등 모니터링 지속 □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하 운영 ○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 실시 □ (이용시설 내 취식) 원칙적으로 취식을 허용하지 않음(물, 무알콜 음료 제외). 다만, 기 허용 중인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하 유지 가능 |
| <p>5. 접촉의 최소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 <p>6. 시설 휴관(원) 시 조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20.2.21. 旣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 지침 | 내용 |
|-------------------|---|
| 7.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거주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 8. 행정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20.1.30. 시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 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 사회복지시설 백신휴가 실시 관련 '21.4.1.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 원칙 ○ 각 지자체는 관내 시설별로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안내 및 지원 실시 ○ 중앙(소관부서) 및 지자체는 접종 기간 중 서비스 제공 이상 유무 모니터링 실시 * (시설→시·군·구→시·도→복지부 시설 소관 부서) ※ 각 시설(사업)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별도 지침 우선 적용 |

자료: 보건복지부. (2021.11.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9판) pp.2-10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제2절 학교돌봄

1.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개학 연기와 단계적 온라인 개학 등은 초등학생 돌봄공백이라는 사회적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돌봄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 제공이라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긴급돌봄은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에 더하여 학생의 안전과 보건위생관리는 물론 원격학습지원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큰 도전이 되었으며, 향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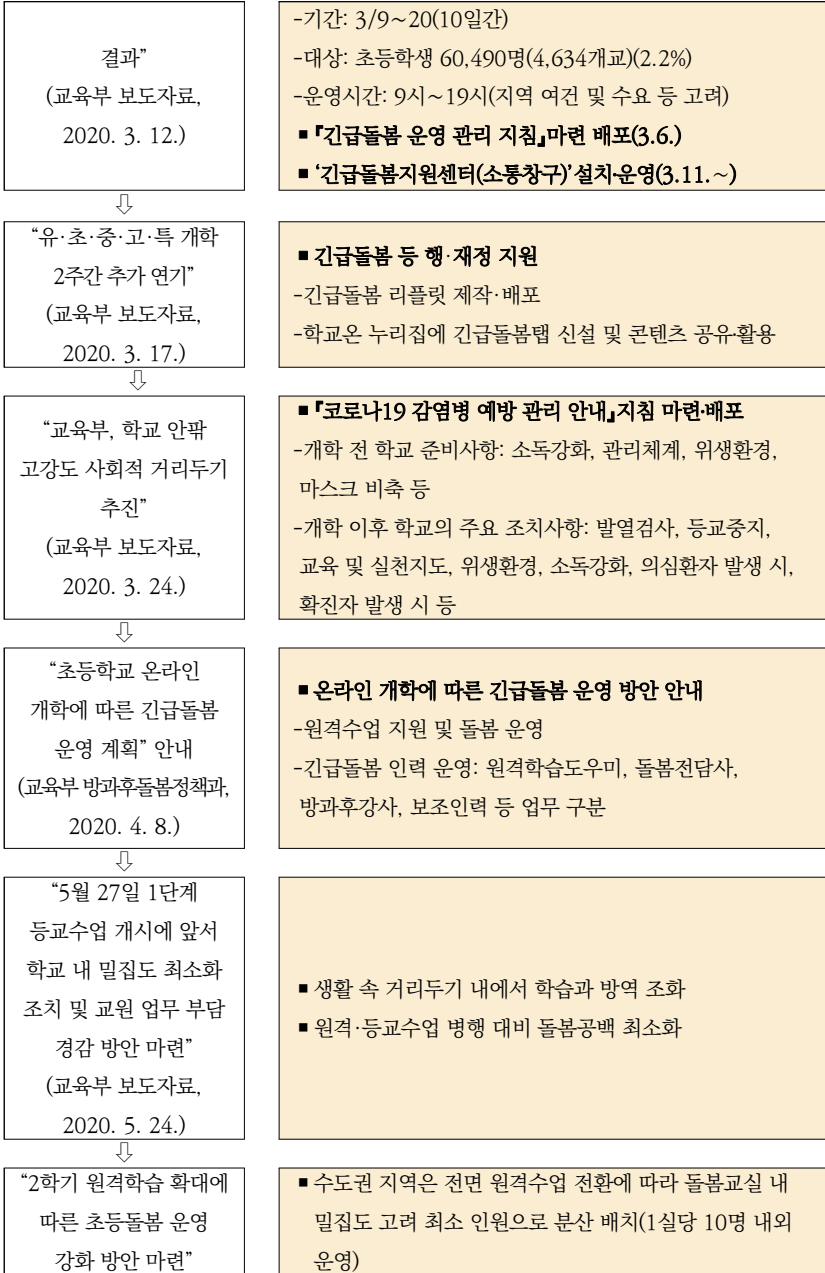
해야 할 숙제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이희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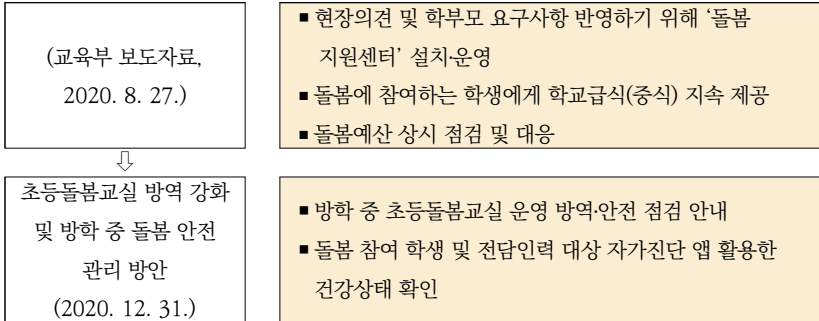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노력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그림 3-1]과 같다. 국내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2020년 1월 관심단계와 주의단계를 거쳐 1월 27일 이후 2월 23일까지 경계단계가 발효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단계가 발효되었다. 그간에 관계부처합동 및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특히 긴급돌봄 제공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돌봄 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지원도 병행하여 제공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학사운영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1학기 온라인 개학 시기, 2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를 거치면서 시기별로 정부의 현장 맞춤형 긴급돌봄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3-1] 긴급돌봄 대응 및 지원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
| <p>“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2. 28.)</p> | <p>■ 개학 연기 후속조치 일환으로 긴급돌봄 제공 -기간: 3/2~6(1주일간) -대상: 초등학생 48,650명(4,150개교)(1.8%) -운영시간: 9시~17시(지역 여건 및 학부모 수요 고려) -학급구성: 10명 내외 권장 -담당인력: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 구성·협력</p> |
| <p>↓</p> <p>“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p> | <p>■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p> |





주: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인용 및 재구성함.

자료: 1) 이희현. (2020).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운영 사례와 과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교육개발 가을호, 한국교육개발원. pp.69-70.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코로나19 관련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서.

2. 긴급돌봄 운영 기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은 온라인 개학 이전, 온라인 개학 이후 그리고 등교수업 이후 학기 중으로 단계적 대응에 따라 운영되었다. 즉, 학교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을 지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상적인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실당 규모를 10명 내외로 조정하였으며,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상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나, 긴급돌봄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의 오전돌봄과 오후 7시까지의 연장 돌봄을 통해 수요자인 학부모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원격학습도우미를 활용하여 원격학습을 지원하였고,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지던 오후 돌봄은

돌봄전담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과후강사와 보조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였다. 원격학습도우미는 등교 개학 전까지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 관리, 학습과제 도움, 사이트 접속 등 직접적인 원격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원격학습도우미를 대상으로 역할에 대한 사전 연수 등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과 돌봄의 명확한 업무를 구분하도록 하였다(이희현, 2020).

〈표 3-5〉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단계적 돌봄(2020년)

| 구분 | 긴급돌봄 | 긴급돌봄 (온라인 개학 시) | 등교수업 후 |
|-----------|--------------------------------|---|---|
| 적용시기 | 개학 연기(휴업)로 인한 돌봄운영(3.2.~4.15.) | 초등 온라인 개학 시 돌봄운영(4.16.~5.26.) | 등교개학 시 돌봄운영 (5.27~현재) |
| 대상 |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저학년 맞벌이 우선 | 입급 대상 학생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
|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7시 | 오전 9시~오후 7시 | 오전 9시~오후 7시 |
| 학급 규모 | 1학급당 10명 내외 | 1학급당 10명 내외 | 밀집도 고려하여 운영 |
| 중식 | 도시락 지참 및 중식 제공 | 중식제공 (도시락 매식 등) | 학교급식 제공 |
| 프로그램 및 수업 | EBS, 학교온 등 온라인콘텐츠 활용 | 원격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콘텐츠 활용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인력활용 | 모든 교직원 참여 | 원격수업 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방과후학교강사 등), 돌봄은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담당 |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원격수업 지원, 방역활동 등), 돌봄은 전담인력이 담당, 필요시 보조인력 활용 |
| 안전관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
| 준용 매뉴얼 |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

자료: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20.8.11.); 이희현. (2020).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운영 사례와 과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p.70. 재인용.

특히, 2021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및 2학기 학사운영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법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21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개편(2020.11.1.시행)됨에 따라서 돌봄운영도 이 단계에 맞춰 1~2단계인 경우에는 학사운영 방법에 따른 돌봄, 2.5 단계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에 준하여 운영, 3단계는 긴급돌봄 체제 운영으로 이루어졌다(교육부, 2021a).

〈표 3-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돌봄 운영(2021년 신학기)

| 단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 전국 유행 단계 | |
| 특징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학사운영 | 밀집도 2/3원칙,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등 2/3), 탄력적 학사운영,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준수 | 전면 원격수업 |
| 돌봄운영 | 학사운영 방법에 따른 돌봄 | | | 긴급돌봄에 준하여 운영 | 긴급돌봄 체제 운영 |

자료: 교육부, (2021a). 2021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자료(2021.1.14.)의 내용을 재정리함.

또한 2021년 2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 기준에 따라서 학사운영 방법과 함께 마련되었다. 1단계와 2단

계의 경우 전면등교 시에는 코로나 이전 초등돌봄교실과 동일하게 운영했고, 3단계와 4단계의 경우 부분 등교 시, 학사운영에 따른 돌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교육부, 2021b).

〈표 3-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돌봄 운영(2021년 2학기)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인원 기준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 |
| 학사운영 | 전면 등교 | | 부분 등교 | |
| 돌봄운영 | 평시 학기 중 돌봄과 동일 | | 학사운영에 따른 돌봄 | |

자료: 교육부, (2021b). 2학기 학사운영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자료(2021.8.9.)의 내용을 재정리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돌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교내 학생 밀집도 완화 등 다양한 학사운영 방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돌봄교실 운영 유형을 제시하여 운영한 것이다.

우선 2020년 5월, 초등학교의 등교수업에 따라 다양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학사운영 방법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교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전·오후반 운영 시, 오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오전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격일제·격주제 등교 시에는 미등교하는 학생 중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오전에는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오후에는 돌봄을 제공하였다. 특히 운영 규모, 1실당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 방법에 따른 등교수업 교실 운영 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원격수업 병행 운영 등 학사운영에 따른 원격

수업 지원과 돌봄 제공을 위한 인력(원격학습도우미 등), 장소(컴퓨터실 등),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0h).

〈표 3-8〉 학사운영 방법별 돌봄 운영 유형(교육부, 2020.5.22.)

| 학사운영 방법 | 돌봄 운영 | | 비고 |
|-----------------|---------------------|----------------|---|
| | (오전) 원격수업 지원 | (오후) 돌봄 | |
| 전교생 등교수업 | 불필요 | 돌봄 제공 (13~19시) | - |
| 오전·오후반 (시차등교 등) | 불필요 | 돌봄 제공 (13~19시) | 오전 돌봄(09~13시) 체계 마련 필요 ※오전돌봄에 필요한 돌봄인력 추가 필요 |
| 격일제·격주제 (블렌디드) | 필요 | 돌봄 제공 (13~19시)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인력 및 공간 마련 필요 |
| 전교생 원격수업 | 긴급돌봄 체계 운영 (09~19시) | | 교내 확진자 발생 여부 및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 검토 |

자료: 교육부, (2020h). 학사운영 방법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방안 안내. 안내자료(2020.5.22.)의 내용을 재정리함.

3. 긴급돌봄 운영 현황

2020년 상반기 초등돌봄 참여 학생 현황을 개학 연기 기간(3.3~4.19.), 온라인 개학 기간(4.20~5.25.), 등교수업 이후(6.8.~7.27.)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학 연기 기간(3.2.~4.19.)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돌봄공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한 기간이며, 특히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던 때인 긴급돌봄 시행 초반이다. 이때는 감염병 안전 등에 관한 우려로 인해 긴급돌봄 참여율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사회적으로 가족 돌봄 활용도 긴급돌봄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0.9~2.9%(23,703~79,615명)가 초등학교 긴급돌봄에 참여했다.

〈표 3-9〉 개학 연기 기간 긴급돌봄 참여 현황(2020.3.2.~4.19.)

(단위: 명, %)

| 구분 | 일자별 참여인원(비율) | 3. 2. | 3. 23 | 4. 6. | 4. 13 |
|-------------|-----------------|-------------|-------------|-------------|-------------|
| 전국 | 전체 | 23,703(0.9) | 53,650(2.0) | 72,140(2.7) | 79,615(2.9) |
| 수 도 권 | 서울 | 5,601(1.3) | 9,134(2.2) | 11,557(2.8) | 12,799(3.1) |
| | 인천 | 1,304(0.8) | 3,087(1.9) | 4,120(2.6) | 4,352(2.7) |
| | 경기 | 6,906(0.9) | 12,665(1.7) | 15,816(2.1) | 17,225(2.2) |

자료: 교육부. (2020f).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20.8.27.). p.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9.23. 인출.

또한 온라인 개학 기간(4.20.~6.7.)은 온라인 개학에 따라서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한 기간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돌봄교실 내 원격수업 지원에 따라 참여 학생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2~4.8%(114,550~135,699명)의 초등학생이 긴급돌봄에 참여했다.

〈표 3-10〉 온라인 개학 기간 참여 현황(2020.4.20.~6.7.)

(단위: 명, %)

| 구분 | 일자별 참여인원(비율) | 4. 20. | 5. 7. | 5. 18. | 5. 25. |
|-------------|-----------------|--------------|--------------|--------------|--------------|
| 전국 | 전체 | 114,550(4.2) | 131,694(4.8) | 135,699(5.0) | 130,843(4.8) |
| 수 도 권 | 서울 | 19,170(4.6) | 22,499(5.4) | 22,675(5.4) | 22,598(5.4) |
| | 인천 | 6,145(3.9) | 6,687(4.2) | 6,513(4.1) | 6,400(4.0) |
| | 경기 | 25,565(3.3) | 29,469(3.8) | 30,363(4.0) | 30,661(4.0) |

자료: 교육부. (2020f).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20.8.27.). p.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9.23. 인출.

이후 긴급돌봄에서 학기 중 돌봄으로 전환하고, 학사운영 방법에 따라 돌봄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여건에 따른 돌봄을 제공한 등교수업 이후 기간(6.8.~7.27.)에는 돌봄 참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됨에 따라서 미등교하는 경우 돌봄공백이 발생하여 참여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6.7~6.9%(180,046~187,300명)의 초등학생이 긴급돌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등교수업 기간 참여 현황(2020.6.8.~7.2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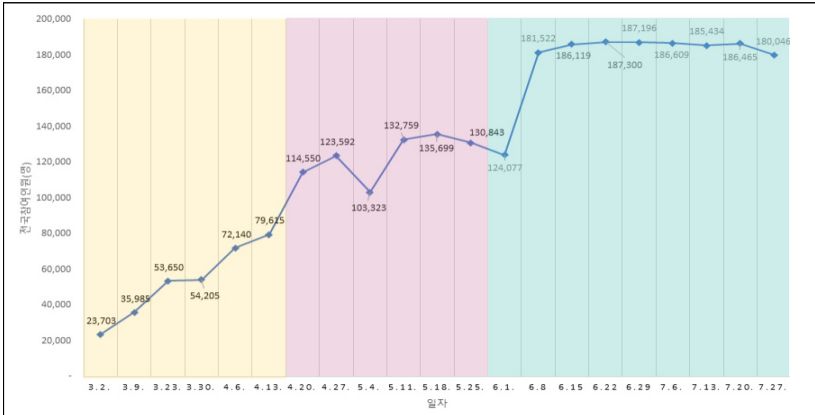
| 구분 | 일자별 참여인원(비율) | 6. 8. | 6. 22. | 7. 13. | 7. 27. |
|-----|--------------|--------------|--------------|--------------|--------------|
| 전국 | 전체 | 181,522(6.7) | 187,300(6.9) | 185,434(6.9) | 180,046(6.7) |
| 수도권 | 서울 | 22,691(5.5) | 24,542(6.0) | 24,484(6.0) | 23,092(5.6) |
| | 인천 | 6,979(4.5) | 7,411(4.7) | 7,607(4.9) | 7,413(4.7) |
| | 경기 | 31,021(4.0) | 32,101(4.2) | 32,965(4.3) | 32,440(4.2) |

자료: 교육부. (2020f).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20.8.27.). p.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9.23. 인출.

2020년 상반기의 긴급돌봄 참여 학생 현황을 정리하면, 개학 연기 기간과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 참여 학생 비율이 2%대에서 5%대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등교수업 운영 시점에는 6%대로 참여 인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2020년 상반기 긴급돌봄 학생 참여 추이(2020년 3월~7월)



자료: 교육부. (2020f).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20.8.27.). p.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9.23. 인출.

제3절 마을돌봄

1.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

아동돌봄 시설들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세부 시설 유형별로 대응지침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그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이 안내되었다. 2020년 2월의 대응지침에 따르면 “학교 휴업 등에도 불구하고 돌봄 필요 아동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필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휴원하는 경우 운영일수에는 포함하나, 이

경우에도 종사자는 당번제 등으로 근무토록 하여 긴급돌봄에 대처”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0.2). 이 대응지침의 2판에는 시설 휴관(원) 시에 취할 추가조치사항이 안내되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을 위해 종사자 당번제 운영을 통해 기본서비스를 유지하며, 돌봄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일시폐쇄 또는 휴원 시에도 정상운영으로 보아 운영비 등 국고지원은 지속되었다.

이후 지침이 수차례 개편되었으며 운영과 관련한 주요 개편내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 대응지침

| 구분 | 항목 | 내용 |
|------------------|------------|--|
| 1판 (20.02) | 운영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운영시간 준수 - 지자체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휴원하는 경우 휴무(이 경우에도 당번제 등으로 긴급돌봄에 대처 필요) |
| 2판 (20.02.21) | 휴원 시 추가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원 시 긴급돌봄 대응을 위해 센터 운영, 종사자 당번제 - 돌봄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 - 당번제 운영도 불가능한 경우 인근 돌봄기관으로 연계 돌봄 권고 - 긴급돌봄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각 지자체가 사전 구축(시·도·시·군·구-센터 간) - 휴원 시에도 운영비 등 국고지원은 지속 |
| | 행정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 시행) |
| 4판 (20.03.13) | 휴원시 추가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휴원)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 확인) 각 센터는 매일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 안부 확인을 문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 긴급돌봄 필요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결식 우려 여부,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 확인 - (돌봄공백 발생 시 대응) 아동의 개인별 욕구 및 사정에 맞게 지역자원*· 친인척 등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 * 지자체(총괄책임부서)는 돌봄공백 발생에 대비한 지역자원(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연계체계를 사전에 구축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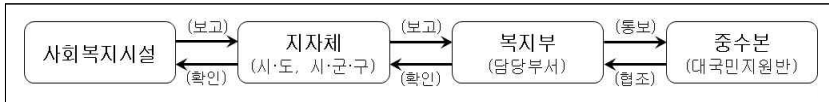
| 구분 | 항목 | 내용 |
|--------------------|--|--|
| 5판 (20.05.14) | 시설운영 재개 준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재개 시점 등)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학교 개교상황, 재개원 사전 준비기간(2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원 권고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에 대해 지자체별로 차질 없는 대응 필요 - (운영 재개 전) 시설 휴원 시 조치사항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 (운영 재개 후) 지자체별 또는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 - (방역물품 비축) 방역물품을 시설에 충분히 비치할 것 |
| 6판 (20.10.13) | 시설운영 재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가능 - (시기) 사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이용 시설별 방역 조치 완료 확인 후 신속하게 운영 재개 - (방역)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운영, 이용자·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해 시설별 철저한 방역 조치 실시 |
| 7-2판 (21.03.25)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인력 자녀 우선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특례 * (지역아동센터) 2021년 돌봄특례 사유에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의 자녀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추가 적용 * (다함께돌봄센터) 2021년 입소 우선순위에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의 자녀로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적용 - 우선이용 아동 결정 * (적용범위)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 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의 자녀 |
| 7-3판 (21.06.24) | 한시 돌봄인력 채용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배치 되는 한시 돌봄인력 * (적용범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 2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특례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하여 공개모집 실시 가능 |
| 8-1판 (21.07.09) |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

자료: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2020-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1판~8-1판 내용 일부 표로 재구성함.

2. 마을돌봄 대응체계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코로나 19 대응체계는 [그림 3-3]과 같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8-3판(2021.9.30.)에 따르면, 복지부(중수본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및 방역조치 점검 결과를, 시설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는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및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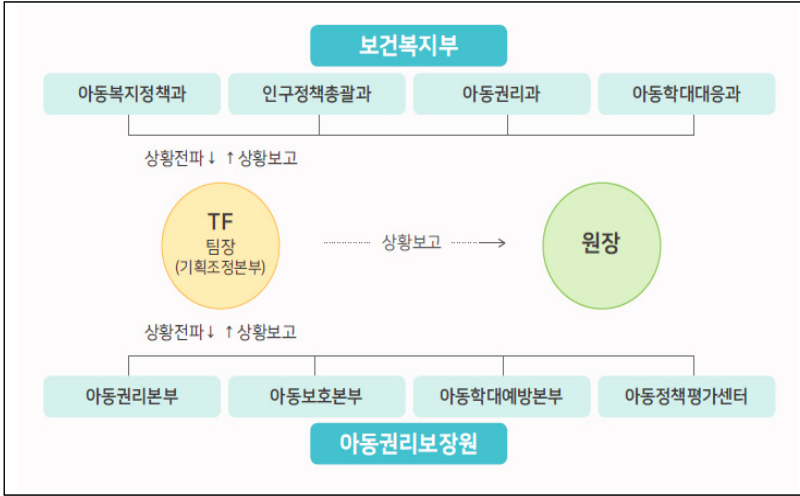
[그림 3-3]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체계



자료: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8-3판(2021.9.30.)', p.13.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대응체계는 [그림 3-4]와 같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 2월 5일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등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원으로 예방수칙 배포, 아동 분야 사업의 아동·종사자에게 예방수칙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 조치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그림 3-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TF 구성·운영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p.31.

2020년 2월 26일(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시기) 아동권리보장원은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복지 사업별 코로나19 대응 현황 모니터링 계획을 논의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원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 개학 연기, 아동복지시설 장기 휴원으로 돌봄 및 학습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위 조직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실무추진단은 아동권리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홍보·확산팀, 콘텐츠 개발팀, 대외협력팀을 운영하였다. 팀별로 주요 확대계획과 이에 대한 수행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아동 양육자, 종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실무추진단의 주요 역할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주요 역할

| 구분 | 내용 |
|---------------------------------------|--|
| 복지부·지자체 정기 보고 및 NGO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대외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원 사업의 유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현황 모니터링 (일 단위) - 보장원 서비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유증상자 모니터링(일 단위) - 지역 전달체계, NGO 등 협력체계구축(비상망 구축, 화상회의 정례화 등) |
| 보장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전략 마련(콘텐츠 개발, 홍보·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단계별 전략 마련 - 개학시기 차이에 따른 아동서비스별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아동 필요 욕구별(가정돌봄, 학습, 건강, 신체놀이 등)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원연계지원 |
| 감염병 대응 단계별 매뉴얼 마련 지원(콘텐츠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관리(시설·개인)->감염병 발생 대응지침->대면서비스 중단 등 장기화에 따른 지침->서비스 정상화 관련 사후관리 등에 따르는 단계별 매뉴얼 마련 지원 |
|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아동참여 보장(홍보·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감염병에 취약한 보호대상으로서만 인식되기보다는 비상상황 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개선 -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기획 및 아동참여 기회 확대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p.33. 내용 일부 발췌.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본부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을 담당하고 있어 돌봄기관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개학 연기 및 휴교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자원연계를 통하여 가정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물품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표 3-14〉는 아동권리본부의 초기 대응 추진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표 3-14〉 아동권리본부 초기대응 추진내용

| 구분 | 내용 |
|------------------|--|
| 돌봄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아동권리보장원 - 시·도지원단 코로나19 대응 담당자 지정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 및 시설 운영 현황 모니터링(일 1회) → 보고 및 보건복지부 공유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현황 보고 및 보건복지부 공유 (주 1회) |
| 돌봄기관 대응 방안 정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총 4판), 긴급휴원 실시, 긴급돌봄 운영방안 공유 등 정보공지 및 배포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관련 콘텐츠(6종) 및 아동용예방수칙(1종)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시설 메일 발송, 공공기관 홍보 연계 - 시설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용 예방수칙 개별 배포 |
|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서비스) 대상자의 위급성, 유선파악 불가 대상에 한해 진행(주 1회) - (비대면 서비스) 유선 상담을 통한 사정 및 자체 사례회의 지속 |
| 자원연계 및 아동권리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연계 독려 홍보 - 가정 내 돌봄 연장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안내·연계 -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 기획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p.35.

3. 긴급돌봄 현황

가. 다함께돌봄센터

감염병 위기 이전인 2019년 말 기준 전국 다함께돌봄센터는 173개소가 있었으며, 이용아동 수는 3,091명이며, 이들 중 상시돌봄 아동은 2,703명, 일시돌봄 아동은 388명이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시돌봄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아동의 대부분은 상시돌봄 아동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하였다.

〈표 3-15〉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수 및 이용아동 수(2019년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 센터 수 | 이용아동 수 | 상시돌봄 이용아동 수 | 일시돌봄 이용아동 수 |
|----|------|--------|----------------|----------------|
| 서울 | 60 | 917 | 790 | 127 |
| 부산 | 8 | 122 | 121 | 1 |
| 인천 | 1 | 24 | 22 | 2 |
| 대구 | 4 | 85 | 85 | 0 |
| 대전 | 2 | 23 | 16 | 7 |
| 광주 | 2 | 43 | 43 | 0 |
| 울산 | 6 | 92 | 78 | 14 |
| 세종 | 3 | 75 | 75 | 0 |
| 강원 | 30 | 605 | 572 | 33 |
| 경기 | 11 | 252 | 228 | 24 |
| 충북 | 9 | 134 | 132 | 2 |
| 충남 | 4 | 117 | 92 | 25 |
| 전북 | 12 | 151 | 130 | 21 |
| 전남 | 7 | 147 | 48 | 99 |
| 경북 | 7 | 177 | 158 | 19 |
| 경남 | 7 | 127 | 113 | 14 |
| 제주 | 0 | 0 | 0 | 0 |
| 전체 | 173 | 3,091 | 2,703 | 388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정부는 온종일돌봄의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마을돌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51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대비 거의 3배로 증가하였다. 다만 지역적으로 다소 편차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60개소에서 170개소로, 강원도의 경우 30개소에서 109개소로 증가하였으나 돌봄수요가 많은 경기,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에 각각 12개소, 1개소 확충에 불과하였다.

〈표 3-16〉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수(2019년 12월, 2020년 6월/12월, 2021년 6월)

(단위: 개소)

| 구분 | '19.12 | '20.6 | '20.12 | '21.6 |
|----|--------|-------|--------|-------|
| 서울 | 60 | 83 | 128 | 170 |
| 부산 | 8 | 18 | 28 | 35 |
| 인천 | 1 | 1 | 2 | 2 |
| 대구 | 4 | 5 | 12 | 14 |
| 대전 | 2 | 3 | 3 | 5 |
| 광주 | 2 | 2 | 5 | 5 |
| 울산 | 6 | 11 | 16 | 16 |
| 세종 | 3 | 3 | 5 | 5 |
| 강원 | 30 | 44 | 86 | 109 |
| 경기 | 11 | 13 | 18 | 23 |
| 충북 | 9 | 9 | 19 | 21 |
| 충남 | 4 | 11 | 18 | 20 |
| 전북 | 12 | 13 | 26 | 28 |
| 전남 | 7 | 10 | 15 | 16 |
| 경북 | 7 | 9 | 26 | 30 |
| 경남 | 7 | 11 | 16 | 17 |
| 제주 | 0 | - | 1 | 2 |
| 전체 | 173 | 246 | 424 | 518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감염병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이후의 이용아동 수를 살펴보면 〈표 3-17〉과 같다. 전체 이용아동은 2020년 6월 4,858명에서 2021년 6월 12,19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 확대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상시돌봄 아동 비율은 2020년 6월 92.6%에서 2021년 6월 85.9%로 낮아져 일시돌봄 아동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으로 일시돌봄 아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우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줬다. 같은 시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국 이용아동 수는 감소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의 경우 이용아동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과 매우 차이가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시돌봄뿐만 아니라 일시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에 일시돌봄수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상시돌봄뿐만 아니라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매우 큰 폭으로 이용아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서비스센터의 확장과 함께 휴교 등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구의 돌봄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7〉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수(2020년 6월/12월, 2021년 6월)

(단위: 명)

| 구분 | 전체 | | | 상시돌봄 | | | 일시돌봄 | | |
|----|-------|--------|--------|-------|--------|--------|-------|--------|-------|
| | '20.6 | '20.12 | '21.6 | '20.6 | '20.12 | '21.6 | '20.6 | '20.12 | '21.6 |
| 서울 | 1,646 | 2,258 | 4,625 | 1,527 | 2,048 | 3,537 | 119 | 210 | 1,088 |
| 부산 | 256 | 391 | 556 | 254 | 324 | 511 | 2 | 67 | 45 |
| 인천 | 6 | 50 | 46 | 4 | 43 | 43 | 2 | 7 | 3 |
| 대구 | 126 | 182 | 270 | 122 | 161 | 209 | 4 | 21 | 61 |
| 대전 | 52 | 61 | 107 | 48 | 52 | 96 | 4 | 9 | 11 |
| 광주 | 47 | 51 | 113 | 47 | 50 | 104 | 0 | 1 | 9 |
| 울산 | 83 | 225 | 287 | 65 | 209 | 255 | 18 | 16 | 32 |
| 세종 | 49 | 93 | 119 | 49 | 87 | 113 | 0 | 6 | 6 |
| 강원 | 1,011 | 1,803 | 2,719 | 989 | 1,754 | 2,569 | 22 | 49 | 150 |
| 경기 | 307 | 376 | 502 | 275 | 344 | 486 | 32 | 32 | 16 |
| 충북 | 180 | 370 | 440 | 178 | 306 | 428 | 2 | 64 | 12 |
| 충남 | 314 | 375 | 494 | 213 | 367 | 457 | 101 | 8 | 37 |
| 전북 | 206 | 413 | 486 | 189 | 347 | 438 | 17 | 66 | 48 |
| 전남 | 157 | 407 | 475 | 138 | 312 | 344 | 19 | 95 | 131 |
| 경북 | 221 | 541 | 638 | 211 | 481 | 584 | 10 | 60 | 54 |
| 경남 | 197 | 283 | 286 | 194 | 276 | 277 | 3 | 7 | 9 |
| 제주 | 0 | 7 | 27 | 0 | 6 | 27 | 0 | 1 | - |
| 전체 | 4,858 | 7,886 | 12,190 | 4,503 | 7,167 | 10,478 | 355 | 719 | 1,712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학년별 이용아동 수를 살펴보면 <표 3-18>과 같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아동은 저학년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1학년~3학년 아동이 전체 이용아동의 약 78.9%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초등저학년을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이용아동 수는 센터 등록아동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모두 긴급돌봄 이용아동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시설은 대응지침에 따라 시설의 휴원 시에도 가능한 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유지하였으나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돌봄 필수 수요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실제 긴급돌봄을 상시 이용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등록아동 현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서비스 이용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8> 학년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수(2020년 6월/12월, 2021년 6월)

(단위: 명)

| 구분 | '20.6 | '20.12 | '21.6 | |
|---------------|------------------|--------|-------|-------|
| 전체 (상사+일시) | 초등 1 | 1,471 | 2,401 | 3,914 |
| | 초등 2 | 1,419 | 2,240 | 3,256 |
| | 초등 3 | 995 | 1,554 | 2,457 |
| | 초등 4 | 553 | 910 | 1,376 |
| | 초등 5 | 232 | 427 | 688 |
| | 초등 6 | 146 | 229 | 335 |
| | 기타 ¹⁾ | 42 | 125 | 164 |

주: 1) 이용아동의 형제, 자매 등 미취학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지역아동센터

2019년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표 3-19>와 같다. 전국에 4,217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5개소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아동센터의 18.8%

가 경기지역에 있으며 10.8%는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다.

〈표 3-1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19년)

(단위: 개소, %)

| 구분 | 지역아동센터 신고 현황 | | 2019년 신규 신고 현황 | |
|----|--------------|-------|----------------|-------|
| | 센터 수 | 비율 | 센터 수 | 비율 |
| 전체 | 4,217 | 100.0 | 95 | 100.0 |
| 서울 | 454 | 10.8 | 16 | 16.8 |
| 부산 | 210 | 5.0 | 5 | 5.3 |
| 대구 | 199 | 4.7 | 4 | 4.2 |
| 인천 | 176 | 4.2 | 1 | 1.1 |
| 광주 | 310 | 7.4 | 6 | 6.3 |
| 대전 | 143 | 3.4 | 5 | 5.3 |
| 울산 | 56 | 1.3 | - | - |
| 세종 | 13 | 0.3 | - | - |
| 경기 | 793 | 18.8 | 22 | 23.2 |
| 강원 | 174 | 4.1 | 3 | 3.2 |
| 충북 | 183 | 4.3 | 2 | 2.1 |
| 충남 | 238 | 5.6 | 6 | 6.3 |
| 전북 | 285 | 6.8 | 4 | 4.2 |
| 전남 | 377 | 8.9 | 4 | 4.2 |
| 경북 | 274 | 6.5 | 7 | 7.4 |
| 경남 | 266 | 6.3 | 8 | 8.4 |
| 제주 | 66 | 1.6 | 2 | 2.1 |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6.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와 달리 초등 고학년 이용아동이 저학년 이용아동 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연령이 초등 학령기 아동으로 제한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이용 중이다. 2019년 중학생 이용아동은 전체의 14.2%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가 초등 고학년뿐만 아니라 중등아동에 대한 돌봄 기능

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0〉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2012년~2019년)

(단위: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전체 | 108,357 | 109,066 | 108,936 | 109,661 | 106,668 | 108,578 | 109,610 | 108,971 | |
| 미취학 아동 | 4,028 | 3,714 | 3,533 | 3,133 | 1,872 | 1,111 | 1,798 | 2,146 | |
| 초 등 학 생 | 전체 | 80,426 | 80,318 | 81,087 | 82,380 | 82,140 | 84,706 | 87,501 | 87,775 |
| | 1학년 | 10,614 | 11,484 | 12,263 | 11,877 | 10,662 | 11,591 | 12,246 | 14,147 |
| | 2학년 | 13,040 | 12,977 | 13,767 | 15,019 | 14,494 | 14,049 | 14,955 | 15,567 |
| | 3학년 | 14,376 | 14,832 | 14,395 | 15,371 | 16,594 | 16,330 | 16,237 | 15,152 |
| | 4학년 | 14,316 | 14,651 | 15,051 | 14,426 | 15,352 | 16,578 | 16,281 | 13,776 |
| | 5학년 | 14,433 | 13,745 | 13,635 | 13,880 | 13,156 | 14,583 | 15,374 | 14,659 |
| | 6학년 | 13,647 | 12,629 | 11,976 | 11,807 | 11,882 | 11,575 | 12,408 | 14,474 |
| 중학생 | 20,017 | 20,817 | 20,121 | 19,566 | 18,156 | 17,563 | 16,321 | 15,531 | |
| 고등학생 | 3,663 | 4,006 | 4,035 | 4,418 | 4,377 | 4,185 | 3,902 | 3,443 | |
| 학교 밖 | 223 | 211 | 160 | 164 | 123 | 117 | 88 | 76 | |
| 기타 | - | - | - | - | - | 896 | - | - | |

주: 1) 각 연도 기준, 조사 분석 불가능 시설은 제외됨(2017년은 기타에 포함).

2) 2017년의 기타 아동 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시설이나 조사 당시 폐업 등의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은 시설 이용아동 수로 조사 실시 이전에 파악된 수치(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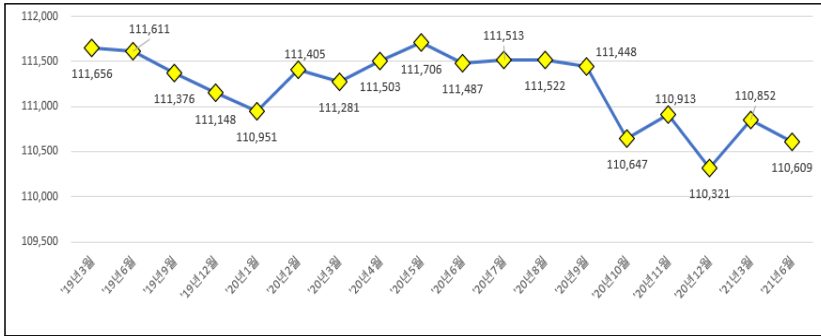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p. 44, 48. 재구성.

[그림 3-5]와 〈표 3-21〉은 2019년 3월 이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 위기 이전인 2019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아동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분기별로 신학기, 방학 등의 영향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2020년 2월에 다시 이용아동이 증가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가 시작된 3월에 다소 감소하다가 이후 5월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6월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5월 이후 학교의 긴급돌봄 이용아동이 증가함

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다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2020년 2학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9월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21년 3월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6월에 이용아동은 110,609명으로, 2019년 6월의 이용아동 대비 다소 감소했다.

[그림 3-5]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3월~2021년 6월)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3-21>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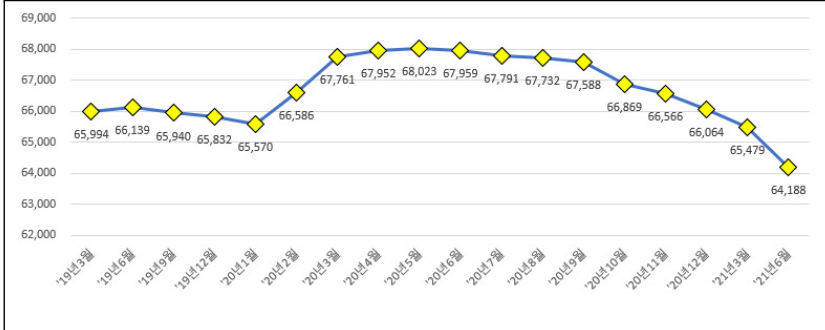
| 구분 | '19.6 | '19.9 | '19.12 | '20.3 | '20.6 | '20.9 | '20.12 | '21.3 | '21.6 |
|------|---------|---------|---------|---------|---------|---------|---------|---------|---------|
| 아동 수 | 111,611 | 111,376 | 111,148 | 111,281 | 111,487 | 111,448 | 110,321 | 110,852 | 110,609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같은 기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이용아동 수의 변화를 살펴 보면 저학년 이용아동 수가 증가한 기간에 고학년은 감소하는 등 학년에 따른 이용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아마도 이는 학년에 따른 등교일수의 차이, 원격수업 정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저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3월~2021년 6월)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3-22> 저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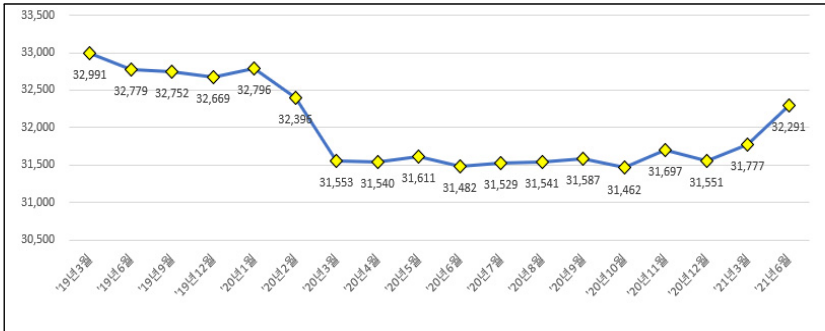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19.6 | '19.9 | '19.12 | '20.3 | '20.6 | '20.9 | '20.12 | '21.3 | '21.6 |
|------|--------|--------|--------|--------|--------|--------|--------|--------|--------|
| 아동 수 | 66,139 | 65,940 | 65,832 | 67,761 | 67,959 | 67,588 | 66,064 | 65,479 | 64,188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3-7] 고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3월~2021년 6월)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9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표 3-23〉 고학년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단위: 명)

| 구분 | '19.6 | '19.9 | '19.12 | '20.3 | '20.6 | '20.9 | '20.12 | '21.3 | '21.6 |
|------|--------|--------|--------|--------|--------|--------|--------|--------|--------|
| 아동 수 | 32,779 | 32,752 | 32,669 | 31,553 | 31,482 | 31,587 | 31,551 | 31,777 | 32,291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만 따로 살펴본 결과는 〈표 3-24〉와 같다. 같은 기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월별 이용아동 수(2019년 6월~2021년 6월)

(단위: 명)

| 구분 | '19.6 | '19.9 | '19.12 | '20.3 | '20.6 | '20.9 | '20.12 | '21.3 | '21.6 | |
|-----|-------|--------|--------|--------|--------|--------|--------|--------|--------|--------|
| 전체 | 합계 | 39,162 | 39,040 | 38,886 | 39,028 | 39,107 | 39,236 | 38,927 | 39,368 | 39,083 |
| | 서울 | 12,496 | 12,484 | 12,447 | 12,439 | 12,468 | 12,486 | 12,219 | 12,408 | 12,441 |
| | 경기 | 22,227 | 22,192 | 22,040 | 22,219 | 22,248 | 22,348 | 22,341 | 22,528 | 22,247 |
| | 인천 | 4,439 | 4,364 | 4,399 | 4,370 | 4,391 | 4,402 | 4,367 | 4,432 | 4,395 |
| 저학년 | 합계 | 21,431 | 21,418 | 21,433 | 22,307 | 22,373 | 22,270 | 21,555 | 21,680 | 21,086 |
| | 서울 | 6,091 | 6,116 | 6,116 | 6,319 | 6,298 | 6,273 | 5,658 | 5,623 | 5,480 |
| | 경기 | 12,733 | 12,733 | 12,731 | 13,324 | 13,397 | 13,313 | 13,261 | 13,314 | 12,931 |
| | 인천 | 2,607 | 2,569 | 2,586 | 2,664 | 2,678 | 2,684 | 2,636 | 2,743 | 2,675 |
| 고학년 | 합계 | 12,544 | 12,480 | 12,322 | 11,911 | 11,915 | 12,048 | 12,048 | 12,048 | 12,122 |
| | 서울 | 4,362 | 4,343 | 4,292 | 4,167 | 4,179 | 4,190 | 4,161 | 4,153 | 4,187 |
| | 경기 | 6,712 | 6,690 | 6,574 | 6,363 | 6,342 | 6,461 | 6,504 | 6,531 | 6,567 |
| | 인천 | 1,470 | 1,447 | 1,456 | 1,381 | 1,394 | 1,397 | 1,383 | 1,364 | 1,368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다만, 이와 같은 이용아동 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등록아동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모두 긴급돌봄 이용아동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시설은 대응지침에 따라 시설의 휴원 시에도 가능한 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유지하였으나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돌봄 필수 수요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

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상시돌봄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원에 여유가 없는 한 긴급돌봄을 요하는 새로운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긴급돌봄운영 기간에는 대체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 돌봄 필수 수요자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동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실제 긴급돌봄을 상시 이용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등록아동 현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서비스 이용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포괄적 접근이 바람직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시설유형별 접근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4절 시사점

이 장에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대응체계 현황과 긴급돌봄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이원화된 체계에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학교의 긴급돌봄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학사운영기준을 토대로 추진·진행되었으며 학교밖 돌봄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마을돌봄의 경우에도 복지부 중심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긴급돌봄이 지원되었으나, 여가부 담당 사업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의 연계협력 노력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처럼 서비스 유형별로, 담당부처별로 매우 독립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함에 따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상호협력 및 보완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아동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해 주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서비스 유형별로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수요에만 제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어느 시간대에 돌봄공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돌봄의 경우 긴급돌봄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이외에도 추가로 긴급돌봄수요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한 반면, 마을돌봄의 경우 감염병 관리 및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새로운 아동에게 추가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정기돌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 서비스 이용아동 중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시돌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신규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마을돌봄의 경우 매우 제한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긴급하게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위기 등에 따른 휴교 및 온라인 학습 전환 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할 주체는 학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마을돌봄을 통한 긴급돌봄 대응은 매우 한정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변적인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학습지원은 학교의 운영과 관리 책임하에 수행하고, 돌봄지원은 학교돌봄터 사업처럼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책임을 가지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중심의 긴급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공간은 학교를

활용하고 관리와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학교의 긴급돌봄의 경우 활용 가능한 학교공간을 이용하여 돌봄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마을돌봄의 경우 기존의 제한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급돌봄 수요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마을돌봄은 기존의 돌봄체계의 틀 안에서 휴교 및 휴원 조치 상황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필수 돌봄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돌봄공백 해소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기존 이용자 중 긴급돌봄 대신에 재택돌봄을 하는 경우 재택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이 밖에도 돌봄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수업기기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마을돌봄은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대응 협력체계 구축 또는 지자체 단위의 돌봄수급 관리 등에 대한 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염병 위기 같은 새로운 돌봄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지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때 해당 지침도 변경됨에 따라 현장 운영 매뉴얼도 지속해서 수정되었다. 환경변화에 따른 수정지침은 필요하나, 선제적으로 위기단계에 따른 운영매뉴얼을 보급하여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위기 단계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른 운영기준도 변화하는 등 현장에서 매뉴얼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응지침의 내용 중 일부는 센터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요하는 부분과 특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항목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나, 센터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항목의 경우 너무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현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돌봄의 경우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아동에 대해서 수행되는 모니터링은 돌봄보다는 학사운영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돌봄의 관점에서는 전체 아동들 중에 특별히 돌봄위기 아동은 없는지, 개별 아동 중심으로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파악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장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제1절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제2절 온라인 학습 및 환경 변화

제3절 정책 욕구

제4절 시사점



제4장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제1절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1. 조사개요 및 일반특성

본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2,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아동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문 업체를 통하여 2021년 10월 12일~10월 22일 약 11일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자녀의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한 후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 중에서 무작위 추출로 표집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으며, 부모의 경제 활동에 따른 돌봄의 어려움 정도를 고려하여 맞벌이 비율을 조금 더 표집하였다. 수도권, 비수도권, 농어촌 표본은 각각 1,000명, 700명, 300명으로 할당하였으며, 맞벌이 가구 1,200명, 홀벌이 가구 800명을 할당하였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년은 전국 비율을 고려하되 학년별 분포가 최대한 균등한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가구 내 대상 자녀가 여럿일 경우 초등학령기 자녀 중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가구당 1명의 아동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여부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된 경우 온라인 학습환경과 생활의 변화, 관련 지원 및 정책

육구 등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돌봄 실태 및 정책 육구 조사 내용

| 구분 | 내용 |
|---------------------|---|
| 돌봄 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돌봄서비스 인지 정도(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 - 학교의 휴교 및 등교 일시 조정 -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만족도/서비스 미이용 이유 |
| 온라인 학습 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학습 장소, 독립된 공간 유무, 학습 공간 만족도 - 온라인 학습 지원자 유무, 학습 지원 능력 유무, 온라인 학습 이용 어려움 정도, 학습도구, 지원 필요 사항 등 |
| 코로나 발생 전후에 대한 환경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공백 대응 및 부담, 사교육비 부담, 자녀 학습/생활습관 관리, 자녀와의 친밀도 형성 - 학습활동, 온라인 활동, TV 시청, 야외활동, 신체활동 등 -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직장 내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이용 실태 등 |
| 돌봄서비스 및 정책 요구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돌봄바우처 지원, 긴급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대, 가정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 - 코로나 대응 차원 자녀돌봄 지원 우선정책 및 주된 돌봄 유형 등 |
| 응답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학력, 자녀 수, 취업 유무, 경제활동 참여상태, 가구소득(월평균), 가구 유형 등 |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4-2>와 같다. 전체 2,000명 중에서 수도권권은 1,000명, 비수도권은 700명, 농어촌은 300명을 표집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59.3%, 40.7%이며, 한부모가구는 111가구로 전체의 5.6%가 표집되었다. 지역별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여성, 45세 이상, 한부모,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 홑벌이 비율이 수도권권이나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자 일반 사항

(단위: %, 명)

| 구분 | 수도권 (N=1,000) | 비수도권(도시) (N=700) | 농어촌 (N=300) | 계(명)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2,000 |
| 성별 | | | | |
| 여성 | 59.3 | 58.9 | 60.3 | 1,186 |
| 남성 | 40.7 | 41.1 | 39.7 | 814 |
| 연령 | | | | |
| 39세 이하 | 28.4 | 28.3 | 29.3 | 570 |
| 40~44세 | 43.3 | 46.4 | 40.0 | 878 |
| 45세 이상 | 28.3 | 25.3 | 30.7 | 552 |
| 학력 | | | | |
| 고졸 이하 | 11.1 | 12.9 | 13.7 | 242 |
| 대학교 졸(4년제 이하) | 75.0 | 75.7 | 77.7 | 1,513 |
|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 13.9 | 11.4 | 8.7 | 245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68.6 | 52.1 | 49.7 | 1,200 |
| 홀벌이 | 31.4 | 47.9 | 50.3 | 800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300만 원 미만 | 7.8 | 16.6 | 21.7 | 259 |
| 300~400만 원 미만 | 13.6 | 22.6 | 20.3 | 355 |
| 400~500만 원 미만 | 18.9 | 23.6 | 25.3 | 430 |
| 500~600만 원 미만 | 21.2 | 14.0 | 15.7 | 357 |
| 600~700만 원 미만 | 15.6 | 8.6 | 5.7 | 233 |
| 700만 원 이상 | 22.9 | 14.7 | 11.3 | 366 |
| 한부모가족 | | | | |
| 해당 | 4.2 | 5.4 | 10.3 | 111 |
| 비해당 | 95.8 | 94.6 | 89.7 | 1,889 |
| 총자녀수 | | | | |
| 1명 | 28.6 | 22.9 | 19.3 | 504 |
| 2명 | 58.4 | 62.4 | 62.7 | 1,209 |
| 3명 이상 | 13.0 | 14.7 | 18.0 | 287 |
| 학년(응답 대상 자녀) | | | | |
| 초1 | 16.6 | 17.3 | 15.0 | 332 |
| 초2 | 17.6 | 17.6 | 15.3 | 345 |
| 초3 | 15.8 | 16.3 | 17.0 | 323 |
| 초4 | 16.7 | 17.3 | 18.7 | 344 |
| 초5 | 17.1 | 16.1 | 21.3 | 348 |
| 초6 | 16.2 | 15.4 | 12.7 | 308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서비스 인지

돌봄서비스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높으나 지역돌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는 응답이 각각 39.6%, 38.7%, 37.5%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돌봄서비스 인지 정도(총괄표)

(단위: %, 명)

| 구분 | 전혀 모름 | 거의 모름 | 조금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계 | (명) |
|-------------------|----------|----------|----------------|------------|-------|-------|
| 초등돌봄교실 | 1.1 | 4.8 | 47.6 | 46.6 | 100.0 | 2,000 |
| 방과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교실 | 2.3 | 14.3 | 49.3 | 34.2 | 100.0 | 2,000 |
| 방과후학교 | 1.4 | 6.1 | 38.5 | 54.1 | 100.0 | 2,000 |
| 지역아동센터 | 4.9 | 26.4 | 46.0 | 22.8 | 100.0 | 2,000 |
|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 17.3 | 43.2 | 29.5 | 10.1 | 100.0 | 2,000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8.0 | 43.4 | 29.2 | 9.5 | 100.0 | 2,000 |
| 아이돌보미 | 10.1 | 28.7 | 43.0 | 18.3 | 100.0 | 2,000 |
| 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 | 18.3 | 44.3 | 28.9 | 8.6 | 100.0 |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더욱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운영된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표 4-4〉 코로나 대응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정도(총괄표)

(단위: %, 명)

| 구분 | 전혀 모름 | 거의 모름 | 조금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계 | (명) |
|--------------|-------|-------|----------|---------|-------|-------|
| 초등 긴급돌봄교실 | 4.0 | 15.6 | 48.6 | 31.9 | 100.0 | 2,000 |
|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 8.5 | 36.8 | 40.4 | 14.4 | 100.0 | 2,000 |
|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 17.1 | 50.0 | 24.8 | 8.2 | 100.0 | 2,000 |
| 지자체 긴급돌봄서비스 | 19.0 | 48.9 | 24.8 | 7.2 | 100.0 |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긴급돌봄에 대한 인지 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해당값은 4점 척도로 조사한 인지도의 평균값이다. 성별로는 여성 학부모가 남성 학부모보다 긴급돌봄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도 홀벌이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한부모 여부에 따른 인지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초등 2~4학년 학부모의 인지도가 1학년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5학년 학부모의 인지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고려되는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과 맞벌이 가구 같은 실수요 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 안내가 충분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4-5〉 코로나 대응 긴급돌봄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점, %, 명)

| 구분 | 초등긴급 돌봄교실 |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 다함께돌봄 센터 긴급돌봄 | 지자체 긴급돌봄 | 계 | (명) |
|-------------------|--------------|----------------|------------------|-------------|-------|-------|
| 전체 | 3.08 | 2.61 | 2.24 | 2.20 | 100.0 | 2,000 |
| 성별(F=43.641***) | | | | | | |
| 여성 | 3.26 | 2.69 | 2.27 | 2.21 | 59.3 | 1,186 |
| 남성 | 2.83 | 2.48 | 2.20 | 2.19 | 40.7 | 814 |
| 지역(F=5.059**) | | | | | | |
| 수도권 | 3.14 | 2.62 | 2.28 | 2.21 | 50.0 | 1,000 |
| 비수도권(도시) | 3.02 | 2.58 | 2.19 | 2.18 | 35.0 | 700 |
| 농어촌 | 3.06 | 2.61 | 2.23 | 2.21 | 15.0 | 300 |
| 연령(F=14.929***) | | | | | | |
| 39세 이하 | 3.22 | 2.67 | 2.30 | 2.28 | 28.5 | 570 |
| 40~44세 | 3.08 | 2.59 | 2.19 | 2.16 | 43.9 | 878 |
| 45세 이상 | 2.94 | 2.57 | 2.26 | 2.19 | 27.6 | 552 |
| 학력(F=10.345***) | | | | | | |
| 고졸 이하 | 3.10 | 2.75 | 2.38 | 2.33 | 12.1 | 242 |
| 대학교 졸 | 3.08 | 2.60 | 2.23 | 2.20 | 75.7 | 1,513 |
| 대학원 이상 | 3.07 | 2.50 | 2.16 | 2.11 | 12.3 | 245 |
| 맞벌이 여부(F=8.519**) | | | | | | |
| 맞벌이 | 3.17 | 2.66 | 2.29 | 2.23 | 60.0 | 1,200 |
| 홀벌이 | 2.95 | 2.53 | 2.16 | 2.16 | 40.0 | 800 |
| 월평균 가구소득(F=2.006) | | | | | | |
| 300만 원 미만 | 2.90 | 2.62 | 2.28 | 2.26 | 13.0 | 259 |
| 300~400만 원 미만 | 3.06 | 2.66 | 2.28 | 2.24 | 17.8 | 355 |
| 400~500만 원 미만 | 3.05 | 2.60 | 2.19 | 2.18 | 21.5 | 430 |
| 500~600만 원 미만 | 3.17 | 2.66 | 2.28 | 2.23 | 17.8 | 357 |
| 600~700만 원 미만 | 3.12 | 2.51 | 2.21 | 2.15 | 11.7 | 233 |
| 700만 원 이상 | 3.17 | 2.57 | 2.22 | 2.16 | 18.3 | 366 |
| 한부모가족(F=1.069) | | | | | | |
| 해당 | 2.96 | 2.65 | 2.37 | 2.44 | 5.6 | 111 |
| 비해당 | 3.09 | 2.60 | 2.23 | 2.19 | 94.5 | 1,889 |
| 총자녀수(F=10.272***) | | | | | | |
| 1명 | 3.07 | 2.55 | 2.19 | 2.14 | 25.2 | 504 |
| 2명 | 3.09 | 2.59 | 2.23 | 2.20 | 60.5 | 1,209 |
| 3명 이상 | 3.09 | 2.76 | 2.36 | 2.34 | 14.4 | 287 |
| 학년 (F=3.688**) | | | | | | |
| 초1 | 3.14 | 2.55 | 2.16 | 2.13 | 16.6 | 332 |
| 초2 | 3.21 | 2.63 | 2.31 | 2.26 | 17.3 | 345 |
| 초3 | 3.10 | 2.61 | 2.26 | 2.22 | 16.2 | 323 |
| 초4 | 3.06 | 2.67 | 2.29 | 2.23 | 17.2 | 344 |
| 초5 | 3.01 | 2.55 | 2.18 | 2.16 | 17.4 | 348 |
| 초6 | 2.96 | 2.63 | 2.24 | 2.21 | 15.4 | 308 |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3.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특성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의 표본 특성상 해당 가구가 표집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해석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등은 전체 서비스 공급수준을 고려할 때 특별히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과 운영현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이 다소 증가한 것은 기존에 이용하던 아동 이외에 긴급돌봄을 요하는 아동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코로나 위기 이전 13.8%에서 18.1%로 증가하였으며 형제자매와 같이 있는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 이 밖에 아이돌보미, 민간도우미,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부모돌봄 비율이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일정 부분 가정에 돌봄부담이 가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용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균 이용시간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값이 변한 것으로 보여 기존에 이용하던 아동이 해당 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센터 운영자 면담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기간은 늘어났으며 기존에 이용하던 아동들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오전까지 확대되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이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시간: 평일 오후

(단위: %, 시간, 명)

| 구분 | 이용 경험 있음 | | 평일 오후 이용 시간 (1주일 이용 기준 1일 평균) | | 계 (명) |
|---------------------------------|----------|------|-------------------------------------|------|-------------|
| | 전 | 후 | 전 | 후 | |
| 학교돌봄(긴급돌봄) | 19.5 | 19.7 | 2:27 | 2:20 | 100.0 2,000 |
| 지역아동센터(긴급돌봄) | 4.7 | 5.6 | 2:34 | 2:21 | 100.0 2,000 |
| 다함께돌봄센터(긴급돌봄) (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 | 2.2 | 3.0 | 1:53 | 1:48 | 100.0 2,000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7.5 | 6.7 | 1:37 | 1:35 | 100.0 2,000 |
| 아이돌보미 | 2.8 | 3.6 | 2:34 | 2:19 | 100.0 2,000 |
| 민간도우미 이용 | 2.3 | 2.9 | 2:51 | 2:35 | 100.0 2,000 |
|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 22.4 | 26.2 | 3:18 | 3:27 | 100.0 2,000 |
| 시설 학원 이용(학습 및 예체능) | 63.0 | 61.7 | 2:07 | 2:11 | 100.0 2,000 |
| 형제자매와 같이 있음 | 37.9 | 41.5 | 3:40 | 3:53 | 100.0 2,000 |
| 혼자 있음 | 13.8 | 18.1 | 2:36 | 2:39 | 100.0 2,000 |
| 부모돌봄 | 51.6 | 55.6 | 5:03 | 5:13 | 100.0 2,000 |
| 기타 | 4.8 | 5.8 | 2:24 | 2:21 | 100.0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휴교에 따라 오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4-7〉에 따르면 오전에 학교급돌봄을 이용한 아동은 17.8%이며 평균 2시간 45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3.9%와 1.8%이며 이용 시간은 각각 1시간 48분과 1시간 37분으로 2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 동안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전 시간 동안 혼자 있는 학생의 비율은 14.5%로 조사되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은 2시간 53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혼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시간: 평일 오전

(단위: %, 시간, 명)

| 구분 | 이용 경험 있음 | 평일 오전 이용 시간 (1주일 이용 기준 1일 평균) | 계 | (명) |
|---|----------------|-------------------------------------|-------|-------|
| 학교돌봄(긴급돌봄) | 17.8 | 2:45 | 100.0 | 2,000 |
| 지역아동센터(긴급돌봄) | 3.9 | 1:48 | 100.0 | 2,000 |
| 다함께돌봄센터(긴급돌봄)(자자체 공적 돌봄 서비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 1.8 | 1:37 | 100.0 | 2,000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3.6 | 1:16 | 100.0 | 2,000 |
| 아이돌보미 | 2.7 | 2:05 | 100.0 | 2,000 |
| 민간도우미 이용 | 1.9 | 2:10 | 100.0 | 2,000 |
|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 19.6 | 2:44 | 100.0 | 2,000 |
| 사설 학원 이용(학습 및 예체능) | 7.4 | 1:48 | 100.0 | 2,000 |
| 형제자매와 같이 있음 | 26.2 | 2:59 | 100.0 | 2,000 |
| 혼자 있음 | 14.5 | 2:53 | 100.0 | 2,000 |
| 부모 돌봄 | 40.9 | 3:01 | 100.0 | 2,000 |
| 기타 | 6.7 | 2:10 | 100.0 |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돌봄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해당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다만,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에 이용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자의 만족도 평가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였다.

가. 학교돌봄

1) 만족도

학교돌봄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의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표 4-8〉, 〈표 4-9〉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

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 불만족(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사례는 8.6%로 조사되었으며, 감염병 위기 이후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10.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실시된 긴급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불만족, 급식 관련 사항, 서비스 중 입출입 불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표 4-8〉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돌봄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서비스 제공 시간 | 2.9 | 5.9 | 35.7 | 43.0 | 12.6 | 100.0 | 454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실 환경 등) | 2.0 | 11.0 | 34.8 | 39.9 | 12.3 | 100.0 | 454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1.8 | 10.1 | 37.9 | 37.9 | 12.3 | 100.0 | 454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1.3 | 12.8 | 35.0 | 39.4 | 11.5 | 100.0 | 454 |
| 서비스 중 입출입 불가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서비스 재이용 불가) | 3.5 | 12.1 | 43.2 | 30.6 | 10.6 | 100.0 | 454 |
| 서비스 이용요금 | 1.3 | 5.3 | 39.4 | 39.6 | 14.3 | 100.0 | 454 |
| 전체적인 만족도 | 1.3 | 7.3 | 36.1 | 43.4 | 11.9 | 100.0 | 454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9〉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돌봄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서비스 제공 시간 | 2.2 | 10.4 | 37.8 | 38.3 | 11.3 | 100.0 | 540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 대 이동 비율, 교실 환경 등) | 2.2 | 10.9 | 39.3 | 35.6 | 12.0 | 100.0 | 540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2.0 | 13.1 | 40.4 | 31.1 | 13.3 | 100.0 | 540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2.2 | 16.3 | 37.0 | 32.6 | 11.9 | 100.0 | 540 |
| 서비스 중 입출입 불가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서비스 재이용 불가) | 4.3 | 15.4 | 41.3 | 28.0 | 11.1 | 100.0 | 540 |
| 서비스 이용요금 | 1.5 | 6.9 | 41.5 | 35.2 | 15.0 | 100.0 | 540 |
| 감염병 관리 수준 | 1.5 | 7.4 | 39.8 | 38.0 | 13.3 | 100.0 | 540 |
| 전체적인 만족도 | 2.0 | 8.1 | 40.7 | 37.8 | 11.3 | 100.0 | 54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학교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역, 연령, 학력, 가구소득, 자녀 학년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4-10〉 참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감염병 위기 이후 불만족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홑벌이의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다만 홑벌이의 경우에도 불만족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만족 비율도 함께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감염병 위기 기간에 수행된 긴급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맞벌이, 홑벌이 모두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0〉 학교돌봄서비스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감염병 위기 이전 | 전체 | 1.3 | 7.3 | 36.1 | 43.4 | 11.9 | 100.0 | 454 |
| | 맞벌이 여부($\chi^2=9.508^*$) | 1.3 | 7.3 | 36.1 | 43.4 | 11.9 | 100.0 | 454 |
| | 맞벌이 | 1.2 | 6.6 | 32.6 | 47.0 | 12.6 | 73.6 | 334 |
| | 홀벌이 | 1.7 | 9.2 | 45.8 | 33.3 | 10.0 | 26.4 | 120 |
| 감염병 위기 이후 | 전체 | 2.0 | 8.1 | 40.7 | 37.8 | 11.3 | 100.0 | 540 |
| | 맞벌이 여부($\chi^2=15.595^{**}$) | 2.0 | 8.1 | 40.7 | 37.8 | 11.3 | 100.0 | 540 |
| | 맞벌이 | 2.4 | 8.3 | 36.2 | 40.6 | 12.5 | 75.7 | 409 |
| | 홀벌이 | 0.8 | 7.6 | 55.0 | 29.0 | 7.6 | 24.3 | 131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서비스 미이용 사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에 학교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기별로 그 사유를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4-11〉, 〈표 4-12〉와 같다. 감염병 위기 이전에 학교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50.6%),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23.4%),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14.5%), ⑦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 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어서(13.6%),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11.4%),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0.9%),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9.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감염병 위기 이전에는 취학자녀가 없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45% 내외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이용 사유 중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어서(13.6%)”의 경우는 앞의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된 서비스 중 입출입 불가조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

당 규정이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용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24.8%) 또는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10.3%)라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의 응답비율이 수도권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수도권에는 이용의사가 있으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리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타 지역보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가구 소득이 낮은 그룹의 경우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또는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자발적 서비스 미이용자 이외에도 이용의사가 있으나 서비스 공급부족 및 질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돌봄의 양적 공급확대 노력과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1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 (명) |
|----|------|------|------|------|------|-----|------|-----|-----|-------|-------|
| 전체 | 50.6 | 23.4 | 10.9 | 14.5 | 11.4 | 9.7 | 13.6 | 5.0 | 3.9 | 100.0 | 1,546 |
| 성별 | | | | | | | | | | | |
| 여성 | 47.6 | 28.5 | 7.7 | 12.8 | 11.5 | 9.6 | 13.1 | 6.1 | 4.6 | 60.5 | 936 |
| 남성 | 55.1 | 15.6 | 15.9 | 17.0 | 11.1 | 9.8 | 14.4 | 3.3 | 3.0 | 39.5 | 610 |

11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 (명) |
|---------------|------|------|------|------|------|------|------|-----|------|------|-------|
| 지역 | | | | | | | | | | | |
| 수도권 | 52.2 | 24.8 | 10.3 | 13.3 | 12.8 | 10.3 | 12.4 | 5.0 | 3.8 | 49.1 | 759 |
| 비수도권(도시) | 49.4 | 22.2 | 11.8 | 14.8 | 11.1 | 8.9 | 13.6 | 4.8 | 4.1 | 36.2 | 559 |
| 농어촌 | 48.2 | 21.9 | 11.0 | 17.5 | 7.5 | 9.6 | 18.0 | 5.3 | 3.9 | 14.7 | 228 |
| 연령 | | | | | | | | | | | |
| 39세 이하 | 47.0 | 19.7 | 13.6 | 14.1 | 12.1 | 15.2 | 14.6 | 5.1 | 7.1 | 25.6 | 396 |
| 40~44세 | 50.8 | 26.3 | 9.9 | 15.1 | 11.8 | 9.5 | 13.4 | 4.6 | 3.6 | 45.0 | 695 |
| 45세 이상 | 53.4 | 22.2 | 10.1 | 13.8 | 10.1 | 5.3 | 13.2 | 5.5 | 1.8 | 29.4 | 455 |
| 학력 | | | | | | | | | | | |
| 고졸 이하 | 50.0 | 24.3 | 11.2 | 15.5 | 5.8 | 9.7 | 15.0 | 4.9 | 2.9 | 13.3 | 206 |
| 대학교 졸 | 51.0 | 23.5 | 10.6 | 13.9 | 11.5 | 9.9 | 12.7 | 5.3 | 3.9 | 74.2 | 1,147 |
| 대학원 이상 | 48.7 | 21.8 | 12.4 | 16.6 | 16.6 | 8.3 | 17.6 | 3.1 | 5.2 | 12.5 | 193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맞벌이 | 42.1 | 22.1 | 11.7 | 16.7 | 14.1 | 12.2 | 16.5 | 6.1 | 4.3 | 56.0 | 866 |
| 홀벌이 | 61.3 | 25.1 | 10.0 | 11.6 | 7.9 | 6.5 | 10.0 | 3.5 | 3.5 | 44.0 | 680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6.0 | 25.5 | 12.5 | 14.0 | 5.5 | 14.0 | 9.0 | 6.5 | 5.0 | 12.9 | 200 |
| 300~400만 원 미만 | 53.2 | 26.4 | 13.6 | 12.9 | 8.2 | 12.1 | 12.1 | 3.2 | 3.6 | 18.1 | 280 |
| 400~500만 원 미만 | 50.3 | 23.2 | 10.9 | 17.4 | 11.8 | 7.4 | 13.8 | 3.8 | 3.8 | 22.0 | 340 |
| 500~600만 원 미만 | 46.0 | 25.0 | 11.6 | 13.8 | 10.5 | 8.0 | 15.2 | 4.0 | 5.4 | 17.9 | 276 |
| 600~700만 원 미만 | 47.6 | 23.5 | 10.6 | 15.9 | 14.1 | 7.6 | 13.5 | 9.4 | 2.9 | 11.0 | 170 |
| 700만 원 이상 | 57.9 | 17.5 | 6.8 | 12.9 | 17.5 | 10.0 | 16.8 | 5.4 | 2.9 | 18.1 | 280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해당 | 52.6 | 21.1 | 19.7 | 15.8 | 10.5 | 13.2 | 10.5 | 7.9 | 0.0 | 4.9 | 76 |
| 비해당 | 50.5 | 23.5 | 10.5 | 14.4 | 11.4 | 9.5 | 13.8 | 4.8 | 4.1 | 95.1 | 1,470 |
| 총자녀수 | | | | | | | | | | | |
| 1명 | 50.0 | 22.1 | 10.8 | 10.5 | 12.8 | 8.5 | 11.3 | 4.4 | 5.9 | 25.2 | 390 |
| 2명 | 50.1 | 23.9 | 11.2 | 15.4 | 10.8 | 10.0 | 15.1 | 4.8 | 3.0 | 61.0 | 943 |
| 3명 이상 | 54.0 | 23.9 | 9.9 | 17.8 | 11.3 | 10.8 | 11.7 | 7.0 | 4.7 | 13.8 | 213 |
| 학년 | | | | | | | | | | | |
| 초1 | 42.1 | 20.3 | 10.4 | 13.9 | 7.4 | 13.4 | 10.4 | 2.5 | 20.8 | 13.1 | 202 |
| 초2 | 51.1 | 17.4 | 15.1 | 14.2 | 13.7 | 13.2 | 16.0 | 3.2 | 8.7 | 14.2 | 219 |
| 초3 | 56.5 | 27.7 | 9.5 | 11.5 | 9.1 | 12.3 | 9.5 | 4.3 | 0.0 | 16.4 | 253 |
| 초4 | 50.8 | 22.0 | 12.2 | 16.3 | 9.8 | 8.8 | 18.0 | 7.1 | 0.0 | 19.1 | 295 |
| 초5 | 50.0 | 25.3 | 8.9 | 15.8 | 13.5 | 6.9 | 16.4 | 4.6 | 0.0 | 19.7 | 304 |
| 초6 | 51.3 | 26.0 | 10.3 | 14.7 | 13.9 | 5.9 | 10.3 | 7.0 | 0.0 | 17.7 | 273 |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 ⑦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어서 | ⑧ 기타 |
| ⑨ 해당 없음(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학 전이었음) |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54.5%),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19.5%),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3.8%),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10.8%), ⑧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염려스러워서(9.5%), ⑦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어서(9.1%),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8.9%),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6.3%)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응답항목을 제외하고 감염병 위기 이전과 서비스 미이용 사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3.8%)라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⑧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염려스러워서(추가항목)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9.5%로 조사되었다. 이는 긴급돌봄의 경우 관련 정보가 제대로 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돌봄의 방역환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감염병 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경우 ②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수도권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2〉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 | (명) |
|----|------|------|------|------|-----|-----|-----|------|-----|-----|-------|-------|
| 전체 | 54.5 | 19.5 | 13.8 | 10.8 | 8.9 | 6.3 | 9.1 | 9.5 | 3.9 | 2.5 | 100.0 | 1,460 |
| 성별 | | | | | | | | | | | | |
| 여성 | 53.7 | 23.0 | 9.8 | 9.7 | 8.3 | 5.6 | 9.6 | 10.4 | 4.3 | 3.0 | 60.2 | 879 |
| 남성 | 55.6 | 14.1 | 20.0 | 12.6 | 9.8 | 7.4 | 8.4 | 8.3 | 3.3 | 1.9 | 39.8 | 581 |

11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 | (명) |
|-----------------|------|------|------|------|------|-----|------|------|-----|-----|------|-------|
| 지역 | | | | | | | | | | | | |
| 수도권 | 56.3 | 18.4 | 12.6 | 10.5 | 9.4 | 6.4 | 9.0 | 12.8 | 3.8 | 2.6 | 50.2 | 733 |
| 비수도권(도시) | 52.0 | 20.2 | 15.2 | 12.0 | 9.5 | 6.1 | 8.8 | 6.9 | 3.4 | 2.7 | 36.0 | 525 |
| 농어촌 | 54.0 | 21.3 | 14.9 | 8.9 | 5.4 | 6.4 | 10.4 | 4.5 | 5.4 | 2.0 | 13.8 | 202 |
| 연령 | | | | | | | | | | | | |
| 39세 이하 | 53.1 | 18.3 | 15.7 | 11.8 | 8.7 | 9.0 | 10.1 | 12.4 | 4.5 | 2.8 | 24.4 | 356 |
| 40~44세 | 56.3 | 20.4 | 12.4 | 10.4 | 9.4 | 6.0 | 7.7 | 9.2 | 3.0 | 2.4 | 45.4 | 663 |
| 45세 이상 | 52.8 | 19.0 | 14.5 | 10.7 | 8.4 | 4.5 | 10.4 | 7.7 | 4.8 | 2.5 | 30.2 | 441 |
| 학력 | | | | | | | | | | | | |
| 고졸 이하 | 53.8 | 17.8 | 13.7 | 9.1 | 7.1 | 5.1 | 8.6 | 8.6 | 4.1 | 4.1 | 13.5 | 197 |
| 대학교 졸 | 54.4 | 20.1 | 13.9 | 10.7 | 8.7 | 6.5 | 9.0 | 9.7 | 3.8 | 2.4 | 74.7 | 1,090 |
| 대학원 이상 | 55.5 | 17.3 | 13.3 | 13.3 | 12.1 | 6.4 | 10.4 | 9.2 | 4.6 | 1.7 | 11.8 | 173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맞벌이 | 45.5 | 17.1 | 14.7 | 13.8 | 9.7 | 8.0 | 11.0 | 11.0 | 5.3 | 3.2 | 54.2 | 791 |
| 홀벌이 | 65.0 | 22.3 | 12.9 | 7.3 | 7.9 | 4.3 | 6.9 | 7.8 | 2.2 | 1.8 | 45.8 | 669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53.0 | 18.3 | 18.8 | 12.9 | 5.9 | 5.0 | 6.9 | 10.4 | 2.0 | 3.5 | 13.8 | 202 |
| 300~400만 원 미만 | 58.2 | 23.5 | 13.8 | 9.3 | 7.1 | 6.7 | 9.3 | 7.8 | 1.9 | 3.0 | 18.4 | 268 |
| 400~500만 원 미만 | 51.8 | 21.2 | 14.1 | 12.2 | 9.0 | 5.8 | 9.3 | 9.3 | 4.2 | 2.3 | 21.3 | 311 |
| 500~600만 원 미만 | 52.3 | 18.8 | 10.9 | 9.0 | 7.8 | 7.0 | 8.2 | 11.7 | 3.9 | 2.0 | 17.5 | 256 |
| 600~700만 원 미만 | 53.7 | 15.4 | 11.7 | 11.7 | 11.1 | 5.6 | 13.0 | 9.9 | 7.4 | 1.9 | 11.1 | 162 |
| 700만 원 이상 | 57.5 | 17.2 | 13.8 | 10.3 | 12.6 | 7.3 | 8.8 | 8.4 | 5.0 | 2.7 | 17.9 | 261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해당 | 49.4 | 11.4 | 27.8 | 7.6 | 11.4 | 3.8 | 11.4 | 13.9 | 5.1 | 2.5 | 5.4 | 79 |
| 비해당 | 54.7 | 19.9 | 13.0 | 11.0 | 8.8 | 6.4 | 9.0 | 9.3 | 3.8 | 2.5 | 94.6 | 1,381 |
| 총자녀수 | | | | | | | | | | | | |
| 1명 | 53.7 | 17.4 | 14.4 | 9.1 | 11.0 | 6.4 | 7.5 | 12.3 | 3.2 | 2.1 | 25.6 | 374 |
| 2명 | 53.9 | 20.6 | 13.6 | 10.8 | 9.0 | 6.3 | 9.4 | 8.5 | 4.1 | 2.6 | 60.6 | 885 |
| 3명 이상 | 58.2 | 18.4 | 13.9 | 13.9 | 4.5 | 6.0 | 10.9 | 9.0 | 4.5 | 3.0 | 13.8 | 201 |
| 학년 | | | | | | | | | | | | |
| 초1 | 49.5 | 23.1 | 15.1 | 13.4 | 12.9 | 8.6 | 11.3 | 11.3 | 3.2 | 7.0 | 12.7 | 186 |
| 초2 | 51.4 | 17.7 | 19.3 | 16.0 | 9.9 | 8.8 | 8.8 | 11.0 | 2.2 | 4.4 | 12.4 | 181 |
| 초3 | 58.0 | 22.4 | 11.6 | 8.4 | 9.6 | 9.2 | 4.0 | 10.0 | 3.6 | 0.4 | 17.1 | 250 |
| 초4 | 54.6 | 18.9 | 12.4 | 10.0 | 8.2 | 5.2 | 10.7 | 10.3 | 4.8 | 2.1 | 19.9 | 291 |
| 초5 | 57.4 | 16.2 | 12.0 | 10.2 | 9.2 | 4.2 | 10.6 | 8.5 | 3.9 | 1.4 | 19.5 | 284 |
| 초6 | 53.4 | 19.4 | 14.9 | 9.3 | 5.2 | 3.7 | 9.3 | 7.1 | 4.9 | 1.9 | 18.4 | 268 |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 ⑦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돌봄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어서 | |
| ⑧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엄격스러워서 | ⑨ 기타 |
| ⑩ 해당 없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나. 지역아동센터

1) 만족도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의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표 4-13>, <표 4-14>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의 불만족(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사례는 6.5%로 조사되었으며 감염병 위기 이후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5.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만족도 항목만 고려했을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만족(다소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긴급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 환경, 제공 내용 및 질, 급식환경, 물리적 이동환경,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인식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만족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제공 환경과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인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 감염병 관리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조사되었다. 학교돌봄과 비교하여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학교돌봄에 비해서 제공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중 하나인 낙인 효과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18.7%에서 24.1%로 증가하였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부모의 상당수가 낙인효과를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이 밖에 급식환경과 서비스 제공 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타 항목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낙인감 해소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1년에 일반아동 이용비율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낙인감 해소 효과를 일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3〉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서비스 제공 시간 | 0.0 | 7.5 | 28.0 | 41.1 | 23.4 | 100.0 | 107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실 환경 등) | 1.9 | 5.6 | 36.4 | 35.5 | 20.6 | 100.0 | 107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0.0 | 6.5 | 32.7 | 35.5 | 25.2 | 100.0 | 107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1.9 | 10.3 | 28.0 | 37.4 | 22.4 | 100.0 | 107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지리적 접근성) | 0.9 | 6.5 | 29.0 | 40.2 | 23.4 | 100.0 | 107 |
|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인식 | 2.8 | 15.9 | 41.1 | 23.4 | 16.8 | 100.0 | 107 |
| 전체적인 만족도 | 0.9 | 5.6 | 30.8 | 40.2 | 22.4 | 100.0 | 107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14〉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서비스 제공 시간 | 0.7 | 7.8 | 41.8 | 37.6 | 12.1 | 100.0 | 141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실 환경 등) | 0.0 | 13.5 | 36.9 | 35.5 | 14.2 | 100.0 | 141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1.4 | 8.5 | 41.8 | 32.6 | 15.6 | 100.0 | 141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2.8 | 10.6 | 36.2 | 37.6 | 12.8 | 100.0 | 141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지리적 접근성) | 1.4 | 7.8 | 40.4 | 33.3 | 17.0 | 100.0 | 141 |
|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인식 | 6.4 | 17.7 | 41.8 | 25.5 | 8.5 | 100.0 | 141 |
| 감염병 관리 수준 | 1.4 | 5.0 | 45.4 | 31.9 | 16.3 | 100.0 | 141 |
| 전체적인 만족도 | 0.7 | 5.0 | 44.7 | 34.0 | 15.6 | 100.0 | 141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역,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학년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 감염 위기 전후를 비교하면, 초등 1, 초등 2, 초등 6학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기 이후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표 4-15〉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전체 | 0.9 | 5.6 | 30.8 | 40.2 | 22.4 | 100.0 | 107 |
| 학년 | | | | | | | |
| 감염병 위기 이전 | | | | | | | |
| 초1 | 0.0 | 0.0 | 21.4 | 64.3 | 14.3 | 13.1 | 14 |
| 초2 | 0.0 | 9.5 | 52.4 | 28.6 | 9.5 | 19.6 | 21 |
| 초3 | 0.0 | 5.9 | 29.4 | 41.2 | 23.5 | 15.9 | 17 |
| 초4 | 0.0 | 5.3 | 31.6 | 31.6 | 31.6 | 17.8 | 19 |
| 초5 | 4.8 | 9.5 | 14.3 | 38.1 | 33.3 | 19.6 | 21 |
| 초6 | 0.0 | 0.0 | 33.3 | 46.7 | 20.0 | 14.0 | 15 |
| 전체 | 0.7 | 5.0 | 44.7 | 34.0 | 15.6 | 100.0 | 141 |
| 학년 | | | | | | | |
| 감염병 위기 이후 | | | | | | | |
| 초1 | 0.0 | 4.2 | 45.8 | 45.8 | 4.2 | 17.0 | 24 |
| 초2 | 0.0 | 5.7 | 60.0 | 31.4 | 2.9 | 24.8 | 35 |
| 초3 | 0.0 | 0.0 | 56.0 | 24.0 | 20.0 | 17.7 | 25 |
| 초4 | 0.0 | 0.0 | 20.0 | 45.0 | 35.0 | 14.2 | 20 |
| 초5 | 5.3 | 10.5 | 26.3 | 21.1 | 36.8 | 13.5 | 19 |
| 초6 | 0.0 | 11.1 | 44.4 | 38.9 | 5.6 | 12.8 | 18 |

주: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서비스 미이용 사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기별로 그 사유를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4-16〉, 〈표 4-17〉과 같다. 감염병 위기 이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어서(45.4%),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3.0%),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20.3%),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17.4%),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12.5%),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10.9%), ⑧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서(6.3%),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4.3%),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18.8%)라는 응답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돌봄의 경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지역이 관련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비율이 대도시보다 높게 조사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대도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제공과 물리적 거리확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밖에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가구 소득이 낮은 그룹의 경우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또는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라는 응답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다수 개설되는 경향이 있어 접근성은 대도시 보다 나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정보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 | (명) |
|---------------|------|------|------|------|------|------|------|-----|-----|------|-------|-------|
| 전체 | 45.4 | 20.3 | 23.0 | 12.5 | 10.9 | 6.1 | 17.4 | 6.3 | 2.6 | 4.4 | 100.0 | 1,893 |
| 성별 | | | | | | | | | | | | |
| 여성 | 43.3 | 22.6 | 21.6 | 10.3 | 9.9 | 5.2 | 19.3 | 7.0 | 2.8 | 5.3 | 59.5 | 1,127 |
| 남성 | 48.4 | 16.8 | 25.1 | 15.7 | 12.4 | 7.3 | 14.5 | 5.4 | 2.3 | 3.1 | 40.5 | 766 |
| 지역 | | | | | | | | | | | | |
| 수도권 | 45.5 | 20.0 | 24.3 | 13.2 | 10.6 | 7.2 | 18.8 | 6.7 | 3.0 | 3.8 | 50.1 | 949 |
| 비수도권(도시) | 46.4 | 20.2 | 21.1 | 11.9 | 11.3 | 5.3 | 15.7 | 6.0 | 2.4 | 5.3 | 35.0 | 662 |
| 농어촌 | 42.6 | 21.3 | 22.7 | 11.3 | 11.0 | 4.3 | 16.7 | 5.7 | 1.8 | 4.6 | 14.9 | 282 |
| 연령 | | | | | | | | | | | | |
| 39세 이하 | 40.7 | 18.3 | 27.2 | 11.8 | 11.8 | 8.4 | 17.7 | 7.3 | 2.1 | 7.3 | 28.3 | 536 |
| 40~44세 | 46.5 | 21.9 | 22.0 | 11.0 | 10.5 | 5.3 | 17.8 | 5.6 | 2.6 | 4.2 | 44.2 | 837 |
| 45세 이상 | 48.5 | 19.8 | 20.2 | 15.6 | 10.8 | 5.0 | 16.3 | 6.5 | 3.1 | 1.9 | 27.5 | 520 |
| 학력 | | | | | | | | | | | | |
| 고졸 이하 | 47.3 | 17.6 | 23.4 | 12.2 | 7.2 | 5.9 | 17.1 | 5.9 | 1.8 | 3.6 | 11.7 | 222 |
| 대학교 졸 | 45.5 | 21.2 | 22.6 | 12.4 | 10.8 | 6.2 | 16.8 | 6.4 | 2.8 | 4.5 | 75.6 | 1,432 |
| 대학원 이상 | 43.1 | 17.6 | 25.1 | 13.0 | 15.1 | 5.4 | 21.3 | 6.7 | 2.1 | 4.6 | 12.6 | 239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맞벌이 | 37.6 | 19.9 | 24.0 | 14.4 | 12.2 | 7.0 | 21.9 | 6.8 | 3.6 | 4.6 | 60.1 | 1,137 |
| 홀벌이 | 57.1 | 20.9 | 21.4 | 9.5 | 9.0 | 4.6 | 10.6 | 5.7 | 1.1 | 4.2 | 39.9 | 756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2.1 | 19.6 | 24.3 | 12.3 | 7.2 | 10.6 | 14.0 | 5.5 | 1.7 | 6.4 | 12.4 | 235 |
| 300~400만 원 미만 | 51.1 | 24.2 | 25.7 | 13.6 | 10.9 | 7.3 | 15.1 | 8.2 | 0.6 | 3.6 | 17.5 | 331 |
| 400~500만 원 미만 | 45.0 | 20.3 | 25.2 | 12.6 | 9.7 | 4.5 | 16.3 | 4.5 | 1.5 | 4.0 | 21.3 | 404 |
| 500~600만 원 미만 | 41.7 | 19.5 | 20.7 | 14.0 | 9.6 | 6.7 | 17.5 | 5.8 | 2.0 | 5.0 | 18.1 | 343 |
| 600~700만 원 미만 | 44.4 | 17.8 | 21.8 | 12.4 | 10.7 | 4.4 | 20.9 | 6.2 | 6.2 | 5.8 | 11.9 | 225 |
| 700만 원 이상 | 46.8 | 19.4 | 20.0 | 9.9 | 16.3 | 4.2 | 20.6 | 7.9 | 4.5 | 3.1 | 18.8 | 355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해당 | 46.9 | 13.5 | 32.3 | 13.5 | 13.5 | 7.3 | 15.6 | 7.3 | 1.0 | 3.1 | 5.1 | 96 |
| 비해당 | 45.3 | 20.6 | 22.5 | 12.4 | 10.8 | 6.0 | 17.5 | 6.3 | 2.7 | 4.5 | 94.9 | 1,797 |
| 총자녀수 | | | | | | | | | | | | |
| 1명 | 45.5 | 18.2 | 22.6 | 10.8 | 11.8 | 4.9 | 15.4 | 5.3 | 1.9 | 6.8 | 25.0 | 473 |
| 2명 | 45.7 | 21.4 | 23.2 | 12.7 | 10.3 | 6.2 | 17.8 | 6.7 | 2.9 | 3.4 | 61.3 | 1,160 |
| 3명 이상 | 43.8 | 19.2 | 22.7 | 14.6 | 11.9 | 7.7 | 19.2 | 6.5 | 2.3 | 4.6 | 13.7 | 260 |
| 학년 | | | | | | | | | | | | |
| 초1 | 37.1 | 15.7 | 27.4 | 12.3 | 13.2 | 8.8 | 19.8 | 7.2 | 2.2 | 17.9 | 16.8 | 318 |
| 초2 | 44.4 | 17.9 | 25.3 | 14.5 | 10.2 | 7.1 | 19.4 | 5.9 | 0.9 | 8.3 | 17.1 | 324 |
| 초3 | 47.1 | 21.6 | 22.9 | 10.1 | 8.8 | 6.9 | 17.0 | 6.9 | 2.0 | 0.0 | 16.2 | 306 |
| 초4 | 45.2 | 19.7 | 23.4 | 12.9 | 12.3 | 4.0 | 17.8 | 6.8 | 3.4 | 0.0 | 17.2 | 325 |
| 초5 | 48.9 | 23.2 | 21.4 | 10.4 | 11.9 | 5.2 | 17.7 | 4.6 | 3.4 | 0.0 | 17.3 | 327 |
| 초6 | 49.8 | 23.9 | 17.1 | 14.7 | 8.9 | 4.4 | 11.9 | 6.8 | 3.8 | 0.0 | 15.5 | 293 |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
| ⑧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서 | ⑨ 기타 |
| ⑩ 해당 없음(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약 전이었음) |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감염병 위기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49.4%),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4.6%),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17.6%),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14.1%),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11.4%),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10.0%), ⑧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서(5.6%),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4.8%)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감염병 위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6.8%),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15.5%)라는 응답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가구 소득이 낮은 그룹의 경우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또는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감염병 위기 이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4-17〉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계 | (명) |
|---------------|------|------|------|------|------|-----|------|-----|------|-----|-----|-------|-------|
| 전체 | 49.4 | 17.6 | 24.6 | 11.4 | 10.0 | 4.8 | 14.1 | 5.6 | 10.2 | 2.7 | 2.9 | 100.0 | 1,859 |
| 성별 | | | | | | | | | | | | | |
| 여성 | 47.4 | 20.0 | 22.7 | 9.6 | 9.3 | 4.1 | 16.5 | 5.8 | 11.3 | 2.9 | 3.6 | 59.7 | 1,109 |
| 남성 | 52.4 | 14.1 | 27.5 | 14.0 | 11.1 | 6.0 | 10.7 | 5.3 | 8.7 | 2.5 | 1.9 | 40.3 | 750 |
| 지역 | | | | | | | | | | | | | |
| 수도권 | 49.7 | 16.4 | 26.8 | 11.8 | 8.8 | 5.4 | 15.5 | 6.1 | 11.3 | 2.6 | 2.6 | 50.2 | 934 |
| 비수도권(도시) | 49.5 | 18.7 | 22.8 | 9.7 | 11.7 | 4.6 | 12.2 | 5.6 | 9.1 | 2.9 | 3.4 | 34.9 | 648 |
| 농어촌 | 48.4 | 19.5 | 21.7 | 13.7 | 10.1 | 3.6 | 14.1 | 4.0 | 9.0 | 2.9 | 2.9 | 14.9 | 277 |
| 연령 | | | | | | | | | | | | | |
| 39세 이하 | 44.7 | 16.7 | 26.5 | 14.8 | 9.5 | 7.6 | 16.3 | 4.5 | 11.9 | 2.3 | 3.3 | 27.6 | 514 |
| 40~44세 | 50.5 | 18.7 | 24.8 | 8.9 | 10.1 | 4.0 | 12.5 | 5.9 | 10.4 | 2.4 | 3.0 | 44.6 | 830 |
| 45세 이상 | 52.4 | 16.9 | 22.5 | 11.8 | 10.3 | 3.5 | 14.6 | 6.2 | 8.3 | 3.7 | 2.3 | 27.7 | 515 |
| 학력 | | | | | | | | | | | | | |
| 고졸 이하 | 51.1 | 16.4 | 24.9 | 10.7 | 8.0 | 4.4 | 12.0 | 5.3 | 8.0 | 3.1 | 4.4 | 12.1 | 225 |
| 대학교 졸 | 49.4 | 17.8 | 24.3 | 11.0 | 9.5 | 5.1 | 13.4 | 5.7 | 10.5 | 2.6 | 2.9 | 75.0 | 1,394 |
| 대학원 이상 | 47.9 | 17.9 | 26.3 | 13.8 | 14.6 | 3.8 | 20.4 | 5.4 | 10.8 | 3.3 | 1.3 | 12.9 | 24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맞벌이 | 40.6 | 16.1 | 28.1 | 12.5 | 10.9 | 5.7 | 17.5 | 6.8 | 10.9 | 3.3 | 3.3 | 59.7 | 1,109 |
| 홀벌이 | 62.5 | 19.9 | 19.5 | 9.6 | 8.7 | 3.6 | 9.2 | 3.9 | 9.2 | 1.9 | 2.3 | 40.3 | 750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50.6 | 18.0 | 23.6 | 14.2 | 7.3 | 6.0 | 14.2 | 3.9 | 11.2 | 2.1 | 3.4 | 12.5 | 233 |
| 300~400만 원 미만 | 48.7 | 21.5 | 26.6 | 10.8 | 11.4 | 4.7 | 10.8 | 6.0 | 9.5 | 0.9 | 2.5 | 17.0 | 316 |
| 400~500만 원 미만 | 48.2 | 17.6 | 26.1 | 10.3 | 9.3 | 5.5 | 12.1 | 5.3 | 9.8 | 2.5 | 3.8 | 21.4 | 398 |
| 500~600만 원 미만 | 47.2 | 17.7 | 20.1 | 10.3 | 8.3 | 4.1 | 15.3 | 5.9 | 10.9 | 3.2 | 3.2 | 18.2 | 339 |
| 600~700만 원 미만 | 49.8 | 14.2 | 25.1 | 10.5 | 9.6 | 5.9 | 16.4 | 6.8 | 11.0 | 5.0 | 1.8 | 11.8 | 219 |
| 700만 원 이상 | 52.5 | 16.1 | 26.0 | 12.7 | 13.3 | 3.4 | 16.9 | 5.6 | 9.6 | 3.1 | 2.3 | 19.0 | 354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 해당 | 43.8 | 12.4 | 24.7 | 18.0 | 13.5 | 3.4 | 13.5 | 3.4 | 14.6 | 1.1 | 5.6 | 4.8 | 89 |
| 비해당 | 49.7 | 17.9 | 24.6 | 11.0 | 9.8 | 4.9 | 14.2 | 5.7 | 10.0 | 2.8 | 2.8 | 95.2 | 1,770 |
| 총자녀수 | | | | | | | | | | | | | |
| 1명 | 51.5 | 14.3 | 25.4 | 9.4 | 11.8 | 3.4 | 11.8 | 5.3 | 12.4 | 1.9 | 2.4 | 25.2 | 468 |
| 2명 | 48.2 | 19.1 | 25.4 | 11.7 | 9.0 | 5.0 | 15.1 | 5.6 | 9.9 | 3.0 | 2.7 | 60.9 | 1,132 |
| 3명 이상 | 51.0 | 17.4 | 19.7 | 13.5 | 11.2 | 6.6 | 14.3 | 6.2 | 7.7 | 3.1 | 4.6 | 13.9 | 259 |
| 학년 | | | | | | | | | | | | | |
| 초1 | 43.8 | 17.9 | 29.9 | 13.3 | 12.0 | 8.4 | 18.5 | 8.1 | 12.0 | 1.9 | 4.5 | 16.6 | 308 |
| 초2 | 46.5 | 15.8 | 29.0 | 13.5 | 9.7 | 6.1 | 16.5 | 5.8 | 10.3 | 1.0 | 5.5 | 16.7 | 310 |
| 초3 | 51.7 | 19.5 | 23.8 | 11.4 | 8.1 | 5.0 | 15.1 | 3.4 | 10.7 | 2.0 | 0.7 | 16.0 | 298 |
| 초4 | 49.7 | 14.5 | 23.1 | 12.0 | 11.4 | 4.0 | 14.5 | 5.6 | 12.3 | 3.4 | 1.9 | 17.4 | 324 |
| 초5 | 53.5 | 18.8 | 22.5 | 9.4 | 9.1 | 2.4 | 10.3 | 4.9 | 8.8 | 4.6 | 1.5 | 17.7 | 329 |
| 초6 | 51.4 | 19.7 | 19.3 | 8.3 | 9.7 | 3.1 | 10.0 | 5.9 | 6.9 | 3.4 | 3.4 | 15.6 | 290 |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
| ⑧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서 | ⑨ 기타 |
| ⑩ 해당 없음(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약 전이었음) |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 다함께돌봄센터

1)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의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표 4-18>, <표 4-19>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의 불만족(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사례는 12.7%로 조사되었으며, 감염병 위기 이후에는 해당 비율이 5.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불만족 비율의 감소 경향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결과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서비스 제공 환경, 서비스 내용 및 질,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다함께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용비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감염병 위기 이전 0%에서 위기 이후 8.4%로 크게 증가했다. 이용요금은 최대 5만 원 수준에서 센터별로 책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황이 좋거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센터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18>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서비스 제공 시간 | 3.6 | 3.6 | 41.8 | 36.4 | 14.5 | 100.0 | 55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실 환경 등) | 0.0 | 10.9 | 41.8 | 34.5 | 12.7 | 100.0 | 55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1.8 | 10.9 | 29.1 | 41.8 | 16.4 | 100.0 | 55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0.0 | 12.7 | 43.6 | 23.6 | 20.0 | 100.0 | 55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용 환경(지리적 접근성) | 0.0 | 9.1 | 41.8 | 40.0 | 9.1 | 100.0 | 55 |
| 서비스 이용요금 | 0.0 | 0.0 | 45.5 | 34.5 | 20.0 | 100.0 | 55 |
| 전체적인 만족도 | 1.8 | 10.9 | 34.5 | 38.2 | 14.5 | 100.0 | 55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19〉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서비스 제공 시간 | 1.4 | 9.9 | 42.3 | 32.4 | 14.1 | 100.0 | 71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 대 이동 비율, 교실 환경 등) | 1.4 | 7.0 | 43.7 | 29.6 | 18.3 | 100.0 | 71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1.4 | 8.5 | 47.9 | 22.5 | 19.7 | 100.0 | 71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1.4 | 11.3 | 39.4 | 36.6 | 11.3 | 100.0 | 71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지리적 접근성) | 1.4 | 5.6 | 46.5 | 28.2 | 18.3 | 100.0 | 71 |
| 서비스 이용요금 | 1.4 | 7.0 | 38.0 | 38.0 | 15.5 | 100.0 | 71 |
| 감염병 관리 수준 | 1.4 | 12.7 | 33.8 | 36.6 | 15.5 | 100.0 | 71 |
| 전체적인 만족도 | 1.4 | 4.2 | 56.3 | 21.1 | 16.9 | 100.0 | 71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역,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학년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 감염병 위기 전 후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표 4-20〉과 같다. 감염병 위기 이전에는 초등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불만족한 비율이 다소 있었으나, 감염병 위기 이후에는 기존에 불만족 응답이 조사되었던 초등 1, 초등 2, 초등 3, 초등 6학년에서 불만족 응답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감염병 위기 이후 불만족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사례 수가 매우 제한적인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4-20〉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계 | (명) | |
|--------------|--------|--------|------|-------|-------|------|-------|----|
| 감염병 위기 이전 | 학년 | 1.8 | 10.9 | 34.5 | 38.2 | 14.5 | 100.0 | 55 |
| | 초1 | 0.0 | 7.1 | 14.3 | 64.3 | 14.3 | 25.5 | 14 |
| | 초2 | 0.0 | 18.2 | 63.6 | 18.2 | 0.0 | 20.0 | 11 |
| | 초3 | 0.0 | 22.2 | 33.3 | 22.2 | 22.2 | 16.4 | 9 |
| | 초4 | 0.0 | 0.0 | 28.6 | 71.4 | 0.0 | 12.7 | 7 |
| | 초5 | 10.0 | 0.0 | 30.0 | 30.0 | 30.0 | 18.2 | 10 |
| | 초6 | 0.0 | 25.0 | 50.0 | 0.0 | 25.0 | 7.3 | 4 |
| 감염병 위기 이후 | 학년 | 1.4 | 4.2 | 56.3 | 21.1 | 16.9 | 100.0 | 71 |
| | 초1 | 0.0 | 0.0 | 47.1 | 41.2 | 11.8 | 23.9 | 17 |
| | 초2 | 0.0 | 0.0 | 80.0 | 20.0 | 0.0 | 21.1 | 15 |
| | 초3 | 0.0 | 0.0 | 53.8 | 15.4 | 30.8 | 18.3 | 13 |
| | 초4 | 0.0 | 30.0 | 40.0 | 10.0 | 20.0 | 14.1 | 10 |
| | 초5 | 14.3 | 0.0 | 28.6 | 28.6 | 28.6 | 9.9 | 7 |
| | 초6 | 0.0 | 0.0 | 77.8 | 0.0 | 22.2 | 12.7 | 9 |

주: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서비스 미이용 사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기별로 서비스 미이용 사유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4-21〉, 〈표 4-22〉와 같다. 감염병 위기 이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43.4%),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4.4%),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15.2%),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13.0%),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11.3%),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9.6%),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5.7%)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이용 사유의 경향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4.4%)에 대한 응답비율

이 지역아동센터의 23.0%보다 높게 조사되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6.3%)의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돌봄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의 경우 정보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2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 (명) |
|---------------|------|------|------|------|------|-----|------|-----|-----|-------|-------|
| 전체 | 43.4 | 15.2 | 34.4 | 11.3 | 9.6 | 5.7 | 13.0 | 3.2 | 5.0 | 100.0 | 1,945 |
| 성별 | | | | | | | | | | | |
| 여성 | 40.0 | 15.6 | 35.3 | 8.5 | 8.3 | 5.2 | 15.8 | 3.8 | 6.2 | 59.8 | 1,163 |
| 남성 | 48.6 | 14.5 | 33.1 | 15.3 | 11.5 | 6.4 | 8.8 | 2.3 | 3.3 | 40.2 | 782 |
| 지역 | | | | | | | | | | | |
| 수도권 | 44.2 | 14.7 | 34.0 | 12.4 | 9.4 | 5.8 | 14.9 | 3.3 | 4.6 | 49.4 | 961 |
| 비수도권(도시) | 42.8 | 16.1 | 34.1 | 9.4 | 10.9 | 5.8 | 10.6 | 3.0 | 5.8 | 35.4 | 689 |
| 농어촌 | 42.4 | 14.6 | 36.3 | 11.9 | 7.5 | 4.7 | 12.5 | 3.1 | 4.7 | 15.2 | 295 |
| 연령 | | | | | | | | | | | |
| 39세 이하 | 36.4 | 13.6 | 37.5 | 12.1 | 10.3 | 7.2 | 12.9 | 3.5 | 7.9 | 28.0 | 544 |
| 40~44세 | 44.6 | 16.2 | 34.1 | 9.6 | 8.8 | 5.1 | 13.3 | 2.7 | 4.9 | 44.0 | 856 |
| 45세 이상 | 48.6 | 15.0 | 31.7 | 13.0 | 10.3 | 5.0 | 12.7 | 3.7 | 2.4 | 28.0 | 545 |
| 학력 | | | | | | | | | | | |
| 고졸 이하 | 45.2 | 13.8 | 32.6 | 9.6 | 6.3 | 3.8 | 10.9 | 3.8 | 4.2 | 12.3 | 239 |
| 대학교 졸 | 43.4 | 15.4 | 34.7 | 11.5 | 9.7 | 6.1 | 13.2 | 2.9 | 5.0 | 75.4 | 1,466 |
| 대학원 이상 | 42.1 | 15.0 | 34.6 | 11.3 | 12.5 | 4.6 | 14.2 | 4.2 | 5.8 | 12.3 | 24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맞벌이 | 35.1 | 14.5 | 37.3 | 12.8 | 10.3 | 6.1 | 16.3 | 4.0 | 5.3 | 59.6 | 1,160 |
| 출벌이 | 55.8 | 16.2 | 30.1 | 8.9 | 8.5 | 5.0 | 8.2 | 2.0 | 4.7 | 40.4 | 785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2.5 | 11.9 | 34.1 | 10.7 | 7.5 | 6.3 | 13.1 | 3.2 | 7.1 | 13.0 | 252 |
| 300~400만 원 미만 | 47.5 | 19.5 | 37.0 | 12.5 | 9.6 | 6.7 | 10.8 | 1.5 | 4.1 | 17.6 | 343 |
| 400~500만 원 미만 | 41.4 | 13.8 | 36.2 | 10.2 | 10.0 | 5.5 | 9.8 | 3.6 | 4.3 | 21.6 | 420 |
| 500~600만 원 미만 | 41.3 | 15.0 | 32.4 | 11.6 | 7.2 | 6.1 | 15.3 | 2.3 | 5.2 | 17.8 | 346 |
| 600~700만 원 미만 | 39.2 | 10.6 | 37.4 | 12.8 | 9.7 | 3.5 | 15.9 | 4.8 | 7.0 | 11.7 | 227 |
| 700만 원 이상 | 47.3 | 17.9 | 30.0 | 10.4 | 12.9 | 5.3 | 14.8 | 4.2 | 3.9 | 18.4 | 357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해당 | 44.2 | 8.7 | 36.5 | 11.5 | 11.5 | 5.8 | 11.5 | 1.0 | 4.8 | 5.3 | 104 |
| 비해당 | 43.4 | 15.5 | 34.3 | 11.2 | 9.5 | 5.6 | 13.1 | 3.3 | 5.1 | 94.7 | 1,841 |

12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 (명) |
|-------|------|------|------|------|------|-----|------|-----|------|------|-------|
| 총자녀수 | | | | | | | | | | | |
| 1명 | 44.7 | 12.6 | 32.9 | 8.8 | 10.5 | 4.1 | 11.9 | 2.9 | 6.0 | 25.0 | 486 |
| 2명 | 42.9 | 16.2 | 35.1 | 11.4 | 9.2 | 5.7 | 13.3 | 3.4 | 4.6 | 60.9 | 1,184 |
| 3명 이상 | 43.6 | 15.3 | 33.8 | 14.9 | 9.8 | 8.0 | 13.5 | 2.9 | 5.1 | 14.1 | 275 |
| 학년 | | | | | | | | | | | |
| 초1 | 32.7 | 13.2 | 35.5 | 11.6 | 10.7 | 7.9 | 15.7 | 1.9 | 20.4 | 16.3 | 318 |
| 초2 | 38.9 | 15.3 | 35.9 | 12.3 | 9.0 | 7.8 | 14.1 | 1.2 | 9.9 | 17.2 | 334 |
| 초3 | 46.2 | 15.6 | 37.3 | 10.2 | 8.3 | 6.1 | 11.5 | 3.5 | 0.0 | 16.1 | 314 |
| 초4 | 46.9 | 12.2 | 34.4 | 12.2 | 9.5 | 3.9 | 13.6 | 4.5 | 0.0 | 17.3 | 337 |
| 초5 | 48.2 | 16.0 | 33.4 | 9.2 | 10.7 | 4.1 | 12.4 | 3.3 | 0.0 | 17.4 | 338 |
| 초6 | 47.7 | 19.1 | 29.6 | 12.2 | 9.5 | 4.3 | 10.5 | 4.9 | 0.0 | 15.6 | 304 |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
| ⑧ 기타 | ⑨ 해당 없음(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학 전이었음)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48.0%),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3.1%),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13.9%),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12.9%),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11.5%),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9.4%),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4.9%)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이용 사유의 경향은 감염병 위기 이전과 유사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 | (명) |
|---------------|------|------|------|------|------|-----|------|------|-----|-----|-------|-------|
| 전체 | 48.0 | 13.9 | 33.1 | 11.5 | 9.4 | 4.9 | 12.9 | 11.0 | 2.5 | 3.5 | 100.0 | 1,929 |
| 성별 | | | | | | | | | | | | |
| 여성 | 45.4 | 14.7 | 34.6 | 9.5 | 7.6 | 4.2 | 15.4 | 11.4 | 2.7 | 4.5 | 59.8 | 1,153 |
| 남성 | 51.8 | 12.8 | 30.9 | 14.6 | 12.1 | 5.9 | 9.1 | 10.3 | 2.2 | 1.9 | 40.2 | 776 |
| 지역 | | | | | | | | | | | | |
| 수도권 | 48.6 | 13.8 | 33.9 | 11.9 | 9.4 | 5.1 | 13.8 | 12.6 | 2.6 | 3.0 | 49.7 | 959 |
| 비수도권(도시) | 48.2 | 14.5 | 32.0 | 10.7 | 10.7 | 4.5 | 12.2 | 9.7 | 2.2 | 3.7 | 35.4 | 682 |
| 농어촌 | 45.1 | 12.8 | 33.3 | 12.2 | 6.6 | 4.9 | 11.8 | 8.7 | 2.8 | 4.5 | 14.9 | 288 |
| 연령 | | | | | | | | | | | | |
| 39세 이하 | 42.6 | 11.9 | 36.7 | 12.3 | 10.4 | 6.7 | 14.9 | 11.0 | 2.2 | 4.3 | 27.8 | 537 |
| 40~44세 | 48.8 | 14.6 | 33.1 | 9.9 | 8.9 | 4.0 | 12.4 | 12.4 | 2.3 | 3.5 | 44.2 | 852 |
| 45세 이상 | 51.9 | 14.8 | 29.6 | 13.3 | 9.3 | 4.4 | 11.7 | 8.7 | 3.0 | 2.6 | 28.0 | 540 |
| 학력 | | | | | | | | | | | | |
| 고졸 이하 | 51.3 | 12.7 | 32.2 | 11.0 | 5.9 | 3.4 | 9.7 | 8.5 | 3.8 | 5.1 | 12.2 | 236 |
| 대학교 졸 | 47.7 | 13.7 | 33.5 | 11.5 | 9.1 | 5.0 | 13.1 | 11.5 | 2.2 | 3.4 | 75.3 | 1,453 |
| 대학원 이상 | 46.3 | 16.3 | 31.7 | 12.1 | 15.0 | 5.4 | 14.6 | 10.4 | 2.9 | 2.1 | 12.4 | 24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맞벌이 | 38.6 | 12.3 | 37.0 | 12.8 | 10.9 | 5.6 | 16.5 | 12.2 | 3.0 | 3.8 | 59.7 | 1,152 |
| 출벌이 | 61.8 | 16.2 | 27.4 | 9.5 | 7.2 | 3.7 | 7.6 | 9.3 | 1.8 | 3.0 | 40.3 | 777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8.8 | 11.8 | 30.5 | 15.0 | 7.3 | 4.9 | 13.0 | 13.0 | 2.0 | 5.7 | 12.8 | 246 |
| 300~400만 원 미만 | 48.2 | 17.5 | 34.3 | 11.5 | 11.2 | 5.0 | 10.7 | 11.2 | 0.6 | 3.6 | 17.5 | 338 |
| 400~500만 원 미만 | 46.8 | 12.9 | 34.6 | 11.9 | 7.6 | 5.0 | 11.5 | 9.3 | 2.4 | 3.6 | 21.7 | 419 |
| 500~600만 원 미만 | 45.4 | 13.2 | 31.3 | 10.6 | 7.5 | 5.7 | 12.9 | 11.2 | 2.9 | 2.9 | 18.0 | 348 |
| 600~700만 원 미만 | 48.9 | 10.8 | 35.9 | 10.3 | 9.9 | 3.1 | 14.8 | 13.0 | 4.5 | 2.7 | 11.6 | 223 |
| 700만 원 이상 | 50.4 | 15.8 | 32.1 | 10.1 | 13.0 | 4.8 | 15.5 | 9.9 | 3.1 | 2.8 | 18.4 | 355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 |
| 해당 | 48.0 | 8.8 | 33.3 | 13.7 | 11.8 | 3.9 | 8.8 | 13.7 | 1.0 | 6.9 | 5.3 | 102 |
| 비해당 | 47.9 | 14.2 | 33.1 | 11.4 | 9.3 | 4.9 | 13.1 | 10.8 | 2.6 | 3.3 | 94.7 | 1,827 |
| 총자녀수 | | | | | | | | | | | | |
| 1명 | 51.0 | 10.2 | 30.8 | 9.2 | 11.5 | 4.4 | 10.2 | 13.1 | 2.1 | 3.8 | 24.9 | 480 |
| 2명 | 46.9 | 15.6 | 33.8 | 11.7 | 8.8 | 4.9 | 14.0 | 10.1 | 2.9 | 2.9 | 60.8 | 1,173 |
| 3명 이상 | 47.1 | 13.0 | 34.1 | 14.9 | 8.7 | 5.4 | 13.0 | 10.9 | 1.4 | 5.4 | 14.3 | 276 |
| 학년 | | | | | | | | | | | | |
| 초1 | 42.2 | 13.3 | 40.0 | 15.6 | 9.2 | 6.7 | 17.5 | 12.4 | 2.2 | 5.4 | 16.3 | 315 |
| 초2 | 43.6 | 12.4 | 40.0 | 13.0 | 10.0 | 8.2 | 14.2 | 10.9 | 1.5 | 5.2 | 17.1 | 330 |
| 초3 | 51.0 | 12.9 | 32.9 | 11.6 | 9.7 | 3.5 | 12.9 | 11.0 | 2.3 | 1.3 | 16.1 | 310 |
| 초4 | 50.6 | 11.1 | 29.6 | 9.0 | 10.8 | 3.3 | 13.8 | 12.6 | 3.0 | 2.4 | 17.3 | 334 |
| 초5 | 50.4 | 15.0 | 30.8 | 9.1 | 8.8 | 3.2 | 9.7 | 8.5 | 2.9 | 2.9 | 17.7 | 341 |
| 초6 | 49.8 | 19.1 | 25.1 | 11.0 | 8.0 | 4.3 | 9.4 | 10.7 | 3.0 | 3.7 | 15.5 | 299 |

주: 상기 표의 각 항목(번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
| ⑧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엄려스러워서 | ⑨ 기타 |
| ⑩ 해당 없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제2절 온라인 학습 및 환경 변화

1. 온라인 수업과 등교일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당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등교일수 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7%가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대한 응답현황도 매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외의 경우 81.1%가 온라인수업 및 등교일수 조정이 있었으나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29.0%, 33.0%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등교일수는 수도권지역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고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일수 조정이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월평균 등교일수도 1~2학년의 경우 다소 높았다. 이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돌봄공백을 우려하여 등교 정상화 노력이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3〉 학교 온라인 수업 실시 및 등교일수 조정(조사시점 기준)

(단위: %, 일, 명)

| 구분 | 있음 | 월평균 등교일수 | 계 | (명) |
|-----------------|------|-------------|-------|-------|
| 전체 | 55.7 | 10.26 | 100.0 | 2,000 |
| 지역(F=10.858***) | | | | |
| 수도권 | 81.1 | 9.80 | 50.0 | 1,000 |
| 비수도권(도시) | 29.0 | 11.41 | 35.0 | 700 |
| 농어촌 | 33.0 | 11.65 | 15.0 | 300 |
| 학년(F=8.791***) | | | | |
| 초1 | 44.3 | 12.03 | 16.6 | 332 |
| 초2 | 45.5 | 11.89 | 17.3 | 345 |
| 초3 | 58.5 | 9.61 | 16.2 | 323 |
| 초4 | 59.6 | 9.93 | 17.2 | 344 |
| 초5 | 61.2 | 9.65 | 17.4 | 348 |
| 초6 | 65.6 | 9.27 | 15.4 | 308 |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온라인 학습 환경

조사시점을 포함하여 과거에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경우의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조부모 집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온라인 수업 환경: 학습 장소

(단위: %, 명)

| 구분 | 집 | 학교 | 지역 아동 센터 | 다함께 돌봄 센터 |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 기타 | 해당 없음 (매일 등교) | 계 | (명) |
|---------------|------|-----|----------------|-----------------|-------------------|-----|------------------------|-------|-------|
| 전체 | 86.0 | 0.9 | 0.9 | 0.4 | 0.2 | 0.3 | 11.4 | 100.0 | 2,000 |
| 지역 | | | | | | | | | |
| 수도권 | 85.6 | 0.9 | 1.0 | 0.4 | 0.0 | 0.3 | 11.8 | 50.0 | 1,000 |
| 비수도권(도시) | 87.0 | 0.4 | 1.0 | 0.6 | 0.1 | 0.4 | 10.4 | 35.0 | 700 |
| 농어촌 | 85.0 | 1.7 | 0.3 | 0.3 | 0.7 | 0.0 | 12.0 | 15.0 | 300 |
| 연령 | | | | | | | | | |
| 39세 이하 | 80.2 | 0.9 | 1.6 | 0.4 | 0.4 | 0.0 | 16.7 | 28.5 | 570 |
| 40~44세 | 86.2 | 1.0 | 0.6 | 0.5 | 0.1 | 0.6 | 11.0 | 43.9 | 878 |
| 45세 이상 | 91.7 | 0.5 | 0.7 | 0.5 | 0.0 | 0.2 | 6.3 | 27.6 | 552 |
| 학력 | | | | | | | | | |
| 고졸 이하 | 85.5 | 0.8 | 0.8 | 0.0 | 0.4 | 0.4 | 12.0 | 12.1 | 242 |
| 대학교 졸 | 85.9 | 0.9 | 0.9 | 0.6 | 0.1 | 0.3 | 11.2 | 75.7 | 1,513 |
| 대학원 이상 | 86.9 | 0.4 | 1.2 | 0.0 | 0.0 | 0.0 | 11.4 | 12.3 | 245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 82.2 | 0.9 | 0.9 | 0.7 | 0.1 | 0.3 | 15.0 | 60.0 | 1,200 |
| 홀벌이 | 91.8 | 0.8 | 0.9 | 0.1 | 0.3 | 0.4 | 5.9 | 40.0 | 800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83.4 | 1.5 | 2.7 | 0.4 | 0.4 | 0.0 | 11.6 | 13.0 | 259 |
| 300~400만 원 미만 | 87.9 | 0.8 | 1.1 | 0.3 | 0.0 | 0.0 | 9.9 | 17.8 | 355 |
| 400~500만 원 미만 | 88.6 | 0.7 | 0.5 | 0.5 | 0.5 | 0.5 | 8.8 | 21.5 | 430 |
| 500~600만 원 미만 | 83.8 | 0.6 | 0.8 | 0.8 | 0.0 | 0.3 | 13.7 | 17.9 | 357 |
| 600~700만 원 미만 | 85.8 | 0.4 | 0.4 | 0.9 | 0.0 | 0.9 | 11.6 | 11.7 | 233 |
| 700만 원 이상 | 85.2 | 1.1 | 0.3 | 0.0 | 0.0 | 0.3 | 13.1 | 18.3 | 366 |
| 한부모가족 | | | | | | | | | |
| 해당 | 82.9 | 2.7 | 3.6 | 0.9 | 1.8 | 0.0 | 8.1 | 5.6 | 111 |
| 비해당 | 86.2 | 0.7 | 0.7 | 0.4 | 0.1 | 0.3 | 11.5 | 94.5 | 1,889 |

| 구분 | 집 | 학교 | 지역 아동 센터 | 다함께 돌봄 센터 |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 기타 | 해당 없음 (매일 등교) | 계 | (명) |
|-------|------|-----|----------|-----------|-------------|-----|---------------|------|-------|
| 총자녀수 | | | | | | | | | |
| 1명 | 84.7 | 0.6 | 0.8 | 0.4 | 0.4 | 0.2 | 12.9 | 25.2 | 504 |
| 2명 | 86.4 | 1.2 | 0.8 | 0.4 | 0.1 | 0.3 | 10.8 | 60.5 | 1,209 |
| 3명 이상 | 86.8 | 0.0 | 1.4 | 0.7 | 0.0 | 0.3 | 10.8 | 14.4 | 287 |
| 학년 | | | | | | | | | |
| 초1 | 73.8 | 0.6 | 0.3 | 0.3 | 0.0 | 0.0 | 25.0 | 16.6 | 332 |
| 초2 | 76.8 | 2.0 | 1.2 | 0.9 | 0.0 | 0.6 | 18.6 | 17.3 | 345 |
| 초3 | 87.0 | 0.9 | 1.5 | 0.6 | 0.3 | 0.0 | 9.6 | 16.2 | 323 |
| 초4 | 91.0 | 0.6 | 0.9 | 0.3 | 0.6 | 0.6 | 6.1 | 17.2 | 344 |
| 초5 | 93.1 | 0.3 | 1.1 | 0.3 | 0.0 | 0.0 | 5.2 | 17.4 | 348 |
| 초6 | 94.8 | 0.6 | 0.3 | 0.3 | 0.0 | 0.6 | 3.2 | 15.4 | 308 |

주: 각 변수별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으로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응답자에 대해서 학습 장소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5%가 독립된 개인 학습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8.9%는 공동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독립된 학습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분리된 학습공간이 없이 한 공간에서 학습과 다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1%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와 한부모가구의 경우 독립된 개인 학습공간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를 보였다.

〈표 4-25〉 온라인 수업 환경: 학습 장소 독립된 공간 유무

(단위: %, 명)

| 구분 | 독립된 개인 학습공간 있음 | 공동으로 이용하는 독립된 학습공간 있음 | 다수가 간이식 등을 활용한 분리된 학습공간 있음 | 분리된 학습공간은 없으며 한 공간에서 학습과 다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짐 | 계 | (명) |
|----------------------------------|----------------|-----------------------|----------------------------|---|-------|-------|
| 전체 | 80.5 | 8.9 | 2.5 | 8.1 | 100.0 | 1,773 |
| 지역($\chi^2=3.639$) | | | | | | |
| 수도권 | 81.3 | 8.5 | 2.8 | 7.4 | 49.7 | 882 |
| 비수도권(도시) | 78.9 | 9.7 | 2.4 | 8.9 | 35.4 | 627 |
| 농어촌 | 81.8 | 8.3 | 1.5 | 8.3 | 14.9 | 264 |
| 연령($\chi^2=30.235^{***}$) | | | | | | |
| 39세 이하 | 76.4 | 11.4 | 5.1 | 7.2 | 26.8 | 475 |
| 40~44세 | 81.4 | 9.5 | 1.5 | 7.6 | 44.0 | 781 |
| 45세 이상 | 83.0 | 5.8 | 1.5 | 9.7 | 29.2 | 517 |
| 학력($\chi^2=12.784^*$) | | | | | | |
| 고졸 이하 | 79.8 | 6.6 | 0.9 | 12.7 | 12.0 | 213 |
| 대학교 졸 | 80.1 | 9.6 | 2.8 | 7.4 | 75.7 | 1,343 |
| 대학원 이상 | 83.9 | 6.9 | 1.8 | 7.4 | 12.2 | 217 |
| 맞벌이 여부($\chi^2=1.745$) | | | | | | |
| 맞벌이 | 79.7 | 9.3 | 2.4 | 8.6 | 57.5 | 1,020 |
| 홀벌이 | 81.7 | 8.4 | 2.7 | 7.3 | 42.5 | 753 |
| 월평균 가구소득($\chi^2=35.409^{**}$) | | | | | | |
| 300만 원 미만 | 70.7 | 11.8 | 4.8 | 12.7 | 12.9 | 229 |
| 300~400만 원 미만 | 76.3 | 10.0 | 2.2 | 11.6 | 18.0 | 320 |
| 400~500만 원 미만 | 81.9 | 9.7 | 1.5 | 6.9 | 22.1 | 392 |
| 500~600만 원 미만 | 83.1 | 8.1 | 2.9 | 5.8 | 17.4 | 308 |
| 600~700만 원 미만 | 82.5 | 8.3 | 2.9 | 6.3 | 11.6 | 206 |
| 700만 원 이상 | 86.5 | 6.0 | 1.6 | 6.0 | 17.9 | 318 |
| 한부모가족($\chi^2=30.133^{***}$) | | | | | | |
| 해당 | 70.6 | 14.7 | 9.8 | 4.9 | 5.8 | 102 |
| 비해당 | 81.1 | 8.6 | 2.0 | 8.3 | 94.2 | 1,671 |
| 총자녀수($\chi^2=10.000$) | | | | | | |
| 1명 | 82.7 | 7.7 | 2.5 | 7.1 | 24.8 | 439 |
| 2명 | 81.3 | 8.8 | 2.1 | 7.8 | 60.8 | 1,078 |
| 3명 이상 | 73.8 | 11.3 | 3.9 | 10.9 | 14.4 | 256 |
| 학년 ($\chi^2=64.092^{***}$) | | | | | | |
| 초1 | 70.7 | 16.1 | 2.0 | 11.2 | 14.0 | 249 |
| 초2 | 72.6 | 13.2 | 3.2 | 11.0 | 15.8 | 281 |
| 초3 | 78.1 | 9.9 | 2.4 | 9.6 | 16.5 | 292 |
| 초4 | 82.0 | 6.8 | 3.7 | 7.4 | 18.2 | 323 |
| 초5 | 87.9 | 5.8 | 1.2 | 5.2 | 18.6 | 330 |
| 초6 | 88.9 | 3.7 | 2.3 | 5.0 | 16.8 | 298 |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학습장소에 따라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학습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돌봄센터의 경우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해당 사례가 매우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학습내용 및 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4-26〉 온라인 수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총괄표)

(단위: %, 명)

| 구분 | 인터넷 환경 지원(와이파이) |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 학습내용 및 방법 개선 | 서비스 공간 확대 | 기타 | 계 | (명) |
|---------|-----------------|-------------|--------------|-----------|-----|-------|-------|
| 가정 | 40.5 | 14.8 | 42.9 | - | 1.8 | 100.0 | 1,720 |
| 학교 | 35.3 | 23.5 | 41.2 | - | - | 100.0 | 17 |
| 지역 돌봄센터 | 13.3 | 53.3 | 30.0 | 3.3 | - | 100.0 | 3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3. 생활습관 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수업 이외의 활동시간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게임 및 인터넷 활동, TV 시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교육 이용 및 개인학습시간, 부모와의 놀이 및 여가활동, 휴식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외활동이나 신체활동, 친구들과의 사교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시간 변화를 고려할 때 초등 학령기 아동의 게임 및 인터넷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야외활동, 신체활동 및 친구들과의 사교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7〉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수업 이외의 활동시간 변화 정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감소함 | 다소 감소함 | 변화 없음 | 다소 증가함 | 매우 증가함 | 계 | (명) |
|-----------------------------|--------|--------|-------|--------|--------|-------|-------|
| 사교육 이용 | 4.2 | 13.7 | 50.8 | 27.6 | 3.8 | 100.0 | 2,000 |
| 개인 학습 | 2.6 | 10.9 | 43.6 | 37.6 | 5.4 | 100.0 | 2,000 |
| 게임 및 인터넷 | 0.3 | 1.8 | 19.2 | 50.9 | 27.9 | 100.0 | 2,000 |
| TV 시청 | 0.5 | 2.4 | 30.8 | 49.4 | 17.0 | 100.0 | 2,000 |
| 독서 | 6.4 | 21.8 | 49.2 | 19.9 | 2.8 | 100.0 | 2,000 |
| 부모와 놀이 및 여가 | 3.3 | 15.2 | 44.0 | 33.5 | 4.1 | 100.0 | 2,000 |
| 야외활동 (놀이터, 나들이 등) | 25.5 | 38.0 | 21.4 | 12.9 | 2.3 | 100.0 | 2,000 |
| 신체활동(운동 등) | 21.2 | 42.3 | 25.1 | 9.5 | 2.0 | 100.0 | 2,000 |
| 친구들과 사교활동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 22.0 | 40.6 | 24.0 | 11.3 | 2.2 | 100.0 | 2,000 |
| 휴식 및 기타 | 1.8 | 7.1 | 51.0 | 32.4 | 7.8 | 100.0 |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전후의 자녀와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녀의 돌봄공백 대응, 돌봄비용 부담, 자녀의 학습 관리, 생활습관 관리, 학습활동, 야외활동, 신체활동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감염병 위기에 따라 휴교 및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돌봄공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관리와 생활습관 관리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28〉 코로나 발생 전후 어려움 및 염려 정도

(단위: 점, %, 명)

| 구분 |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 | 계 | (명) |
|------------------|------------------|------------------|-------|-------|
| 돌봄공백 대응 | 3.25 | 4.09 | 100.0 | 2,000 |
| 돌봄비용 부담 | 3.37 | 4.11 | 100.0 | 2,000 |
| 사교육비 부담 | 4.02 | 4.58 | 100.0 | 2,000 |
| 자녀의 학습관리 | 3.94 | 5.06 | 100.0 | 2,000 |
| 자녀의 생활습관관리 | 3.94 | 5.15 | 100.0 | 2,000 |
| 자녀와의 친밀도 형성 | 3.48 | 3.80 | 100.0 | 2,000 |
| 학습활동 | 3.55 | 4.74 | 100.0 | 2,000 |
| 온라인 활동(게임 및 인터넷) | 3.69 | 4.92 | 100.0 | 2,000 |
| TV 시청 | 3.61 | 4.50 | 100.0 | 2,000 |
| 야외활동(놀이터, 나들이 등) | 3.22 | 5.08 | 100.0 | 2,000 |
| 신체활동(운동 등) | 3.25 | 5.01 | 100.0 | 2,000 |
| 가족들과 친밀도 형성 | 3.15 | 3.57 | 100.0 | 2,000 |
| 친구들과 친밀도 형성 | 3.22 | 4.66 | 100.0 | 2,000 |
| 교사와의 친밀도 형성 | 3.24 | 4.63 | 100.0 | 2,000 |
| 학교생활 적응 | 3.15 | 4.39 | 100.0 |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4. 근로환경 및 소득변화

1) 근로환경 및 관련 제도 이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라 부모의 근로환경 및 소득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9〉, 〈표 4-30〉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기에 부모가 각각 직장에서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가 없거나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비율이 35%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제도가 있으며 이용 가능한 환경인 경우는 연차휴가, 육아휴직제도를 제외하고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 실태를 보여준다. 이는 해당 제도가 현장에 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제도 이용도 자율적이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모든 제도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책임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9〉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부(아버지)

(단위: %, 명)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가족돌봄휴가 | 35.9 | 37.6 | 26.6 | 68.4 | 17.3 | 14.3 | 100.0 | 1,595 |
| 연차휴가 | 8.7 | 28.5 | 62.8 | 20.6 | 39.7 | 39.7 | 100.0 | 1,608 |
| 재택근무 | 32.6 | 38.3 | 29.2 | 56.8 | 23.6 | 19.6 | 100.0 | 1,492 |
| 육아휴직 | 23.9 | 45.8 | 30.3 | 72.3 | 14.4 | 13.3 | 100.0 | 1,527 |
| 근로시간단축 | 35.6 | 38.0 | 26.3 | 68.0 | 18.8 | 13.2 | 100.0 | 1,530 |
| 유연근무제 | 35.7 | 35.6 | 28.7 | 64.1 | 18.7 | 17.2 | 100.0 | 1,532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30〉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모(어머니)

(단위: %, 명)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가족돌봄휴가 | 35.0 | 35.6 | 29.4 | 61.6 | 20.2 | 18.2 | 100.0 | 1,275 |
| 연차휴가 | 14.5 | 33.2 | 52.3 | 28.3 | 33.8 | 38.0 | 100.0 | 1,291 |
| 재택근무 | 36.8 | 34.0 | 29.1 | 58.2 | 23.3 | 18.5 | 100.0 | 1,211 |
| 육아휴직 | 26.5 | 36.1 | 37.4 | 58.2 | 20.0 | 21.9 | 100.0 | 1,231 |
| 근로시간단축 | 34.5 | 36.4 | 29.1 | 59.8 | 21.9 | 18.3 | 100.0 | 1,242 |
| 유연근무제 | 37.1 | 35.5 | 27.4 | 61.0 | 20.8 | 18.2 | 100.0 | 1,233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일·가정 양립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의 차이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고자 응답자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부모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수준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부(아버지), 가족돌봄휴가
(단위: %, 명)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전체 학력 ($\chi^2=43.766^{***}$, 8.829) | 35.9 | 37.6 | 26.6 | 68.4 | 17.3 | 14.3 | 100.0 | 1,595 |
| 고졸 이하 | 56.2 | 24.7 | 19.1 | 78.1 | 12.4 | 9.6 | 11.2 | 178 |
| 대학교 졸 | 34.8 | 38.2 | 27.1 | 67.3 | 17.8 | 14.9 | 75.7 | 1,208 |
| 대학원 이상 | 24.9 | 45.0 | 30.1 | 66.5 | 18.7 | 14.8 | 13.1 | 209 |
| 월평균 가구소득 ($\chi^2=39.595^{***}$, 17.500)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1.2 | 32.7 | 26.1 | 67.3 | 16.4 | 16.4 | 10.3 | 165 |
| 300~400만 원 미만 | 45.6 | 32.5 | 21.9 | 72.8 | 14.1 | 13.1 | 17.7 | 283 |
| 400~500만 원 미만 | 38.6 | 35.7 | 25.7 | 72.6 | 13.1 | 14.3 | 21.9 | 350 |
| 500~600만 원 미만 | 35.2 | 37.5 | 27.2 | 67.4 | 19.9 | 12.6 | 18.9 | 301 |
| 600~700만 원 미만 | 33.3 | 43.0 | 23.7 | 67.2 | 17.2 | 15.6 | 11.7 | 186 |
| 700만 원 이상 | 23.2 | 43.5 | 33.2 | 61.9 | 22.9 | 15.2 | 19.4 | 310 |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32〉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모(어머니), 가족돌봄휴가
(단위: %, 명)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전체 학력 ($\chi^2=20.377^{***}$, 23.642 ^{***}) | 35.0 | 35.6 | 29.4 | 61.6 | 20.2 | 18.2 | 100.0 | 1,275 |
| 고졸 이하 | 51.5 | 28.5 | 20.0 | 77.7 | 10.8 | 11.5 | 10.2 | 130 |
| 대학교 졸 | 34.0 | 35.8 | 30.2 | 60.6 | 20.0 | 19.4 | 77.3 | 985 |
| 대학원 이상 | 27.5 | 40.0 | 32.5 | 54.4 | 29.4 | 16.3 | 12.5 | 160 |
| 월평균 가구소득 ($\chi^2=36.489^{***}$, 18.835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36.3 | 33.3 | 30.4 | 61.5 | 21.5 | 17.0 | 10.6 | 135 |
| 300~400만 원 미만 | 41.1 | 29.7 | 29.1 | 60.0 | 20.6 | 19.4 | 13.7 | 175 |
| 400~500만 원 미만 | 41.8 | 33.8 | 24.3 | 69.2 | 14.4 | 16.3 | 20.6 | 263 |
| 500~600만 원 미만 | 37.5 | 36.4 | 26.1 | 64.8 | 16.6 | 18.6 | 19.8 | 253 |
| 600~700만 원 미만 | 32.5 | 42.8 | 24.7 | 59.0 | 23.5 | 17.5 | 13.0 | 166 |
| 700만 원 이상 | 23.3 | 37.1 | 39.6 | 54.1 | 26.1 | 19.8 | 22.2 | 283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제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비수도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재택근무 이용이 가능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감염병 위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적극 추진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밖에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의 이용 가능성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고학력, 고소득 가구의 경우 해당 제도 이용이 가능한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3〉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부(아버지), 재택근무

(단위: %, 명)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전체 지역 ($\chi^2=30.632^{***}$, 33.346 ^{***}) | 32.6 | 38.3 | 29.2 | 56.8 | 23.6 | 19.6 | 100.0 | 1,492 |
| 수도권 | 27.2 | 39.2 | 33.5 | 51.0 | 24.4 | 24.6 | 52.1 | 778 |
| 비수도권(도시) | 37.0 | 36.2 | 26.9 | 61.3 | 23.5 | 15.2 | 33.9 | 506 |
| 농어촌 | 41.8 | 39.9 | 18.3 | 67.8 | 20.7 | 11.5 | 13.9 | 208 |
| 학력 ($\chi^2=56.008^{***}$, 45.777 ^{***}) | | | | | | | | |
| 고졸 이하 | 55.1 | 29.1 | 15.8 | 78.5 | 12.7 | 8.9 | 10.6 | 158 |
| 대학교 졸 | 31.8 | 38.8 | 29.4 | 56.1 | 23.6 | 20.3 | 76.5 | 1,142 |
| 대학원 이상 | 18.8 | 42.7 | 38.5 | 43.2 | 32.8 | 24.0 | 12.9 | 192 |
| 월평균 가구소득 ($\chi^2=46.071^{***}$, 38.502 ^{***})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3.9 | 36.5 | 19.6 | 61.5 | 23.0 | 15.5 | 9.9 | 148 |
| 300~400만 원 미만 | 40.6 | 33.5 | 25.9 | 62.9 | 19.1 | 17.9 | 16.8 | 251 |
| 400~500만 원 미만 | 33.5 | 41.2 | 25.2 | 62.8 | 21.2 | 16.0 | 21.8 | 325 |
| 500~600만 원 미만 | 33.0 | 37.5 | 29.6 | 60.8 | 20.3 | 18.9 | 19.5 | 291 |
| 600~700만 원 미만 | 29.4 | 39.6 | 31.0 | 48.7 | 27.3 | 24.1 | 12.5 | 187 |
| 700만 원 이상 | 20.3 | 40.0 | 39.7 | 43.8 | 31.4 | 24.8 | 19.4 | 290 |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34〉 코로나 대응 직장 내 제도 이용 환경 및 실태: 모(어머니), 재택근무

(단위: %, 명)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전체 지역 ($\chi^2=29.232^{***}$, 38.388 ^{***}) | 36.8 | 34.0 | 29.1 | 58.2 | 23.3 | 18.5 | 100.0 | 1,211 |
| 수도권 | 31.8 | 32.9 | 35.3 | 51.7 | 23.8 | 24.5 | 53.5 | 648 |
| 비수도권(도시) | 41.9 | 35.0 | 23.1 | 64.7 | 23.1 | 12.2 | 32.5 | 394 |
| 농어촌 | 44.4 | 36.1 | 19.5 | 68.0 | 21.9 | 10.1 | 14.0 | 169 |
| 학력 ($\chi^2=37.843^{***}$, 31.962 ^{***}) | | | | | | | | |
| 고졸 이하 | 61.4 | 17.5 | 21.1 | 78.1 | 12.3 | 9.6 | 9.4 | 114 |
| 대학교 졸 | 35.5 | 35.3 | 29.2 | 57.9 | 22.7 | 19.5 | 77.2 | 935 |
| 대학원 이상 | 27.2 | 38.3 | 34.6 | 46.3 | 34.6 | 19.1 | 13.4 | 162 |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이용 실태 | | | 계 | (명) |
|---|---------------|-------------|-----------------|-------|-----------|-----------|------|-----|
| | 없거나 잘 모름 | 있으나 비활성화 | 있으며 이용 가능 | 미이용 | 최소한 이용 | 적극적 활용 | | |
| 월평균 가구소득 ($\chi^2=28.737^*$, 15,231)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42.1 | 34.1 | 23.8 | 64.3 | 21.4 | 14.3 | 10.4 | 126 |
| 300~400만 원 미만 | 40.7 | 30.2 | 29.1 | 59.9 | 23.8 | 16.3 | 14.2 | 172 |
| 400~500만 원 미만 | 39.8 | 31.7 | 28.5 | 63.4 | 18.7 | 17.9 | 20.3 | 246 |
| 500~600만 원 미만 | 41.4 | 33.6 | 25.0 | 58.6 | 23.8 | 17.6 | 20.1 | 244 |
| 600~700만 원 미만 | 33.1 | 42.7 | 24.2 | 56.1 | 26.8 | 17.2 | 13.0 | 157 |
| 700만 원 이상 | 27.1 | 33.8 | 39.1 | 50.4 | 25.6 | 24.1 | 22.0 | 266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2) 소득 및 근로유형 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기간에 부부의 소득변화는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32%이며 어머니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9.6%로 양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조사되었다. 다만 '매우 감소함' 비율은 어머니의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35〉 코로나 위기 관련 부부 소득 변화 정도(총괄표)

(단위: %, 명)

| 구분 | 매우 감소함 | 다소 감소함 | 변화 없음 | 다소 증가함 | 매우 증가함 | 계 | (명) |
|--------|--------|--------|-------|--------|--------|-------|-------|
| 부(아버지) | 9.1 | 22.9 | 60.8 | 6.7 | 0.6 | 100.0 | 1,931 |
| 모(어머니) | 10.3 | 19.3 | 63.0 | 6.6 | 0.9 | 100.0 | 1,647 |

부모의 소득감소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표 4-36〉, 〈표 4-37〉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 모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학력이 낮은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가 많은 경우일수록 소득감소 비

율이 높았다. 소득감소의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감소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자녀돌봄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퇴사 및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는 농어촌, 저학력, 저소득, 다자녀 가구임을 알 수 있다.

〈표 4-36〉 코로나 위기 관련 부부 소득 변화 정도: 부(아버지)

(단위: %, 명)

| 구분 | 매우 감소함 | 다소 감소함 | 변화 없음 | 다소 증가함 | 매우 증가함 | 계 | (명) |
|------------------------------------|--------|--------|-------|--------|--------|-------|-------|
| 전체 | 9.1 | 22.9 | 60.8 | 6.7 | 0.6 | 100.0 | 1,931 |
| 지역($\chi^2=21.246^{**}$) | | | | | | | |
| 수도권 | 9.1 | 20.2 | 61.5 | 8.2 | 1.0 | 50.6 | 978 |
| 비수도권(도시) | 8.6 | 25.6 | 60.9 | 4.8 | 0.1 | 34.9 | 673 |
| 농어촌 | 10.0 | 25.7 | 58.2 | 6.1 | 0.0 | 14.5 | 280 |
| 학력($\chi^2=47.860^{***}$) | | | | | | | |
| 고졸 이하 | 17.3 | 30.3 | 50.6 | 0.9 | 0.9 | 12.0 | 231 |
| 대학교 졸 | 8.2 | 22.3 | 61.4 | 7.7 | 0.5 | 75.6 | 1,460 |
| 대학원 이상 | 6.3 | 19.6 | 67.1 | 6.3 | 0.8 | 12.4 | 240 |
| 월평균 가구소득($\chi^2=152.231^{***}$) | | | | | | | |
| 300만 원 미만 | 22.4 | 31.5 | 44.7 | 1.4 | 0.0 | 11.3 | 219 |
| 300~400만 원 미만 | 10.8 | 28.5 | 57.0 | 3.2 | 0.6 | 17.8 | 344 |
| 400~500만 원 미만 | 8.3 | 26.2 | 58.6 | 6.4 | 0.5 | 21.8 | 420 |
| 500~600만 원 미만 | 8.2 | 18.4 | 66.9 | 6.5 | 0.0 | 18.3 | 353 |
| 600~700만 원 미만 | 6.0 | 15.9 | 67.2 | 10.8 | 0.0 | 12.0 | 232 |
| 700만 원 이상 | 3.0 | 17.4 | 66.7 | 11.0 | 1.9 | 18.8 | 363 |
| 총자녀수($\chi^2=37.258^{***}$) | | | | | | | |
| 1명 | 8.0 | 22.6 | 59.8 | 8.7 | 0.8 | 24.5 | 473 |
| 2명 | 7.6 | 22.0 | 63.8 | 6.0 | 0.5 | 61.2 | 1,181 |
| 3명 이상 | 17.0 | 27.1 | 49.5 | 6.1 | 0.4 | 14.3 | 277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표 4-37〉 코로나 위기 관련 부부 소득 변화 정도: 모(어머니)

(단위: %, 명)

| 구분 | 매우 감소함 | 다소 감소함 | 변화 없음 | 다소 증가함 | 매우 증가함 | 계 | (명) |
|-----------------------------------|--------|--------|-------|--------|--------|-------|-------|
| 전체 | 10.3 | 19.3 | 63.0 | 6.6 | 0.9 | 100.0 | 1,647 |
| 지역($\chi^2=15.832^*$) | | | | | | | |
| 수도권 | 8.5 | 19.0 | 64.3 | 7.5 | 0.7 | 52.1 | 858 |
| 비수도권(도시) | 11.8 | 17.9 | 63.0 | 6.5 | 0.7 | 33.5 | 552 |
| 농어촌 | 13.1 | 23.6 | 57.8 | 3.8 | 1.7 | 14.4 | 237 |
| 학력($\chi^2=14.964$) | | | | | | | |
| 고졸 이하 | 16.1 | 18.3 | 62.2 | 2.8 | 0.6 | 10.9 | 180 |
| 대학교 졸 | 9.4 | 19.8 | 62.5 | 7.5 | 0.9 | 76.3 | 1,257 |
| 대학원 이상 | 10.5 | 17.1 | 66.7 | 4.8 | 1.0 | 12.8 | 210 |
| 월평균 가구소득($\chi^2=95.903^{***}$) | | | | | | | |
| 300만 원 미만 | 21.6 | 23.6 | 48.1 | 5.3 | 1.4 | 12.6 | 208 |
| 300~400만 원 미만 | 12.8 | 20.6 | 60.5 | 4.5 | 1.6 | 14.8 | 243 |
| 400~500만 원 미만 | 12.6 | 22.3 | 58.3 | 6.3 | 0.6 | 21.3 | 350 |
| 500~600만 원 미만 | 7.5 | 19.5 | 69.5 | 3.2 | 0.3 | 18.7 | 308 |
| 600~700만 원 미만 | 4.9 | 17.7 | 67.5 | 9.9 | 0.0 | 12.3 | 203 |
| 700만 원 이상 | 4.8 | 13.4 | 70.1 | 10.4 | 1.2 | 20.3 | 335 |
| 한부모가족($\chi^2=17.300^{**}$) | | | | | | | |
| 해당 | 7.7 | 35.4 | 52.3 | 1.5 | 3.1 | 3.9 | 65 |
| 비해당 | 10.4 | 18.6 | 63.4 | 6.8 | 0.8 | 96.1 | 1,582 |
| 총자녀수($\chi^2=21.069^{**}$) | | | | | | | |
| 1명 | 12.2 | 17.6 | 61.6 | 7.5 | 0.9 | 25.8 | 425 |
| 2명 | 8.2 | 18.9 | 65.7 | 6.3 | 0.9 | 60.0 | 989 |
| 3명 이상 | 15.5 | 24.0 | 53.6 | 6.4 | 0.4 | 14.1 | 233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자녀돌봄 문제로 퇴사 및 휴업, 근로시간 단축(영업시간 단축), 휴직을 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부모 각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돌봄 문제로 퇴사 및 휴업, 근로시간 단축, 휴직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돌봄 책임이 1차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한 것으로 부모 중 누군가가 자녀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표 4-38〉 코로나 시기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근로환경의 변화(총괄표)

(단위: %, 명)

| 구분 | 부(아버지) | | 모(어머니) | | 계 (부) | 계 (모) | 계 (부) | 계 (모) |
|----------------------|--------|--------|--------|--------|-------|-------|-------|-------|
| | 했음 | 하지 않았음 | 했음 | 하지 않았음 | | | | |
| 퇴사 및 휴업 | 6.1 | 93.9 | 9.6 | 90.4 | 100.0 | 1,923 | 100.0 | 1,462 |
| 근로시간 단축 (영업시간 단축) | 11.9 | 88.1 | 15.4 | 84.6 | 100.0 | 1,912 | 100.0 | 1,437 |
| 휴직 | 1.5 | 98.5 | 4.5 | 95.5 | 100.0 | 1,910 | 100.0 | 1,434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 문제로 퇴사 및 휴업 상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39〉에 따르면, 퇴사 또는 휴업을 한 비율은 어머니의 경우가 더 높으며 아버지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다소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퇴사 및 휴업을 한 비율이 높았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해당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코로나 시기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퇴사 및 휴업

(단위: %, 명)

| 구분 | 부(아버지) | | 모(어머니) | | 계 (부) | 계 (모) | 계 (부) | 계 (모) |
|--|--------|--------|--------|--------|-------|-------|-------|-------|
| | 했음 | 하지 않았음 | 했음 | 하지 않았음 | | | | |
| 전체 | 6.1 | 93.9 | 9.6 | 90.4 | 100.0 | 1,923 | 100.0 | 1,462 |
| 지역($\chi^2=6.528^*$, 1.214) | | | | | | | | |
| 수도권 | 7.4 | 92.6 | 8.9 | 91.1 | 50.7 | 974 | 53.3 | 779 |
| 비수도권(도시) | 5.4 | 94.6 | 10.7 | 89.3 | 34.8 | 669 | 32.7 | 478 |
| 농어촌 | 3.6 | 96.4 | 10.2 | 89.8 | 14.6 | 280 | 14.0 | 205 |
| 학력($\chi^2=3.777$, 13.583**) | | | | | | | | |
| 고졸 이하 | 6.1 | 93.9 | 17.1 | 82.9 | 12.0 | 230 | 10.4 | 152 |
| 대학교 졸 | 6.6 | 93.4 | 9.3 | 90.7 | 75.6 | 1,454 | 77.0 | 1,126 |
| 대학원 이상 | 3.3 | 96.7 | 5.4 | 94.6 | 12.4 | 239 | 12.6 | 184 |
| 월평균 가구소득 ($\chi^2=33.365^{***}$, 31.813***)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12.1 | 87.9 | 14.6 | 85.4 | 11.2 | 215 | 11.7 | 171 |
| 300~400만 원 미만 | 9.9 | 90.1 | 14.6 | 85.4 | 17.9 | 344 | 14.0 | 205 |
| 400~500만 원 미만 | 5.8 | 94.2 | 12.8 | 87.2 | 21.7 | 417 | 20.9 | 305 |
| 500~600만 원 미만 | 3.7 | 96.3 | 9.3 | 90.7 | 18.4 | 353 | 19.1 | 279 |
| 600~700만 원 미만 | 4.7 | 95.3 | 5.3 | 94.7 | 12.1 | 232 | 12.9 | 189 |
| 700만 원 이상 | 2.8 | 97.2 | 3.5 | 96.5 | 18.8 | 362 | 21.4 | 313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 문제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하였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으며 어머니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녀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어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근로시간 및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향이 아버지(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40〉 코로나 시기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근로시간(영업시간) 단축

(단위: %, 명)

| 구분 | 부(아버지) | | 모(어머니) | | 계 (부) | 계 (모) | 계 (명) | 계 (명) |
|---|--------|--------|--------|--------|-------|-------|-------|-------|
| | 했음 | 하지 않았음 | 했음 | 하지 않았음 | | | | |
| 전체 | 11.9 | 88.1 | 15.4 | 84.6 | 100.0 | 1,912 | 100.0 | 1,437 |
| 월평균 가구소득 ($\chi^2=15.571^{**}$, 3,558)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18.7 | 81.3 | 14.6 | 85.4 | 10.9 | 209 | 11.4 | 164 |
| 300~400만 원 미만 | 14.1 | 85.9 | 18.3 | 81.7 | 17.8 | 340 | 13.7 | 197 |
| 400~500만 원 미만 | 11.5 | 88.5 | 14.6 | 85.4 | 21.8 | 416 | 20.9 | 301 |
| 500~600만 원 미만 | 10.5 | 89.5 | 16.3 | 83.7 | 18.5 | 353 | 19.2 | 276 |
| 600~700만 원 미만 | 9.9 | 90.1 | 17.0 | 83.0 | 12.1 | 232 | 13.1 | 188 |
| 700만 원 이상 | 8.8 | 91.2 | 12.9 | 87.1 | 18.9 | 362 | 21.6 | 311 |
| 한부모가족($\chi^2=9.102^{**}$, 0.497) | | | | | | | | |
| 해당 | 26.1 | 73.9 | 18.5 | 81.5 | 2.4 | 46 | 4.5 | 65 |
| 비해당 | 11.5 | 88.5 | 15.2 | 84.8 | 97.6 | 1,866 | 95.5 | 1,372 |
| 총자녀수($\chi^2=3.833$, 9.867 ^{***}) | | | | | | | | |
| 1명 | 10.8 | 89.2 | 13.0 | 87.0 | 24.3 | 465 | 26.3 | 378 |
| 2명 | 11.5 | 88.5 | 14.8 | 85.2 | 61.3 | 1,173 | 60.2 | 865 |
| 3명 이상 | 15.3 | 84.7 | 22.7 | 77.3 | 14.3 | 274 | 13.5 | 194 |
| 학년($\chi^2=5.503$, 14.439*) | | | | | | | | |
| 초1 | 11.8 | 88.2 | 19.6 | 80.4 | 16.8 | 321 | 17.0 | 245 |
| 초2 | 13.9 | 86.1 | 19.4 | 80.6 | 17.6 | 337 | 19.8 | 284 |
| 초3 | 13.8 | 86.2 | 14.9 | 85.1 | 16.3 | 312 | 15.4 | 222 |
| 초4 | 10.3 | 89.7 | 11.3 | 88.7 | 16.8 | 321 | 16.1 | 231 |
| 초5 | 9.2 | 90.8 | 15.4 | 84.6 | 17.1 | 326 | 17.1 | 246 |
| 초6 | 12.2 | 87.8 | 10.0 | 90.0 | 15.4 | 295 | 14.5 | 209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제3절 정책 욕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측면에서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그중에서 현금 및 바우처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가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와 가정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의 경우 현금 및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고소득 그룹에 비해 높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요구도는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현금 및 바우처, 가정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다소 높았다.

〈표 4-41〉 코로나 대응 관련 자녀돌봄 지원 중요도

(단위: 점, %, 명)

| 구분 | 현금 및 돌봄바우처 지원 | 긴급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가정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 (재택/단축/ 유연근무 등) | 계 | (명) |
|-----------------|---------------------|---------------------------|----------------------|---|-------|-------|
| 전체 | 5.64 | 5.40 | 5.36 | 5.62 | 100.0 | 2,000 |
| 성별(F=6.460*) | | | | | | |
| 여성 | 5.66 | 5.45 | 5.48 | 5.70 | 59.3 | 1,186 |
| 남성 | 5.62 | 5.33 | 5.19 | 5.49 | 40.7 | 814 |
| 지역(F=0.818) | | | | | | |
| 수도권 | 5.68 | 5.43 | 5.33 | 5.65 | 50.0 | 1,000 |
| 비수도권(도시) | 5.62 | 5.37 | 5.40 | 5.60 | 35.0 | 700 |
| 농어촌 | 5.57 | 5.37 | 5.38 | 5.54 | 15.0 | 300 |
| 연령(F=25.421***) | | | | | | |
| 39세 이하 | 5.68 | 5.64 | 5.52 | 5.80 | 28.5 | 570 |
| 40~44세 | 5.64 | 5.37 | 5.34 | 5.64 | 43.9 | 878 |
| 45세 이상 | 5.60 | 5.21 | 5.22 | 5.39 | 27.6 | 552 |
| 학력(F=16.165***) | | | | | | |
| 고졸 이하 | 6.04 | 5.67 | 5.59 | 5.70 | 12.1 | 242 |
| 대학교 졸 | 5.60 | 5.38 | 5.32 | 5.60 | 75.7 | 1,513 |
| 대학원 이상 | 5.49 | 5.25 | 5.40 | 5.66 | 12.3 | 245 |

| 구분 | 현금 및 돌봄바우처 지원 | 긴급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가정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 (재택/단축/ 유연근무 등) | 계 | (명) |
|--------------------------|---------------------|---------------------------|----------------------|---|------|-------|
| 맞벌이 여부 (F=16.467***) | | | | | | |
| 맞벌이 | 5.56 | 5.52 | 5.40 | 5.78 | 60.0 | 1,200 |
| 홀벌이 | 5.76 | 5.22 | 5.30 | 5.37 | 40.0 | 800 |
| 월평균 가구소득 (F=6.423***) | | | | | | |
| 300만 원 미만 | 5.80 | 5.34 | 5.39 | 5.39 | 13.0 | 259 |
| 300~400만 원 미만 | 5.70 | 5.41 | 5.41 | 5.47 | 17.8 | 355 |
| 400~500만 원 미만 | 5.72 | 5.52 | 5.45 | 5.72 | 21.5 | 430 |
| 500~600만 원 미만 | 5.69 | 5.54 | 5.44 | 5.68 | 17.8 | 357 |
| 600~700만 원 미만 | 5.65 | 5.34 | 5.21 | 5.79 | 11.7 | 233 |
| 700만 원 이상 | 5.33 | 5.20 | 5.21 | 5.62 | 18.3 | 366 |
| 한부모가족(F=1.066) | | | | | | |
| 해당 | 5.46 | 5.20 | 5.12 | 5.31 | 5.6 | 111 |
| 비해당 | 5.65 | 5.41 | 5.38 | 5.63 | 94.5 | 1,889 |
| 총자녀수(F=18.281***) | | | | | | |
| 1명 | 5.42 | 5.32 | 5.24 | 5.53 | 25.2 | 504 |
| 2명 | 5.66 | 5.40 | 5.35 | 5.63 | 60.5 | 1,209 |
| 3명 이상 | 5.93 | 5.55 | 5.62 | 5.70 | 14.4 | 287 |
| 학년(F=17.081***) | | | | | | |
| 초1 | 5.68 | 5.68 | 5.52 | 5.80 | 16.6 | 332 |
| 초2 | 5.55 | 5.61 | 5.43 | 5.76 | 17.3 | 345 |
| 초3 | 5.71 | 5.63 | 5.57 | 5.69 | 16.2 | 323 |
| 초4 | 5.60 | 5.28 | 5.35 | 5.49 | 17.2 | 344 |
| 초5 | 5.77 | 5.16 | 5.24 | 5.61 | 17.4 | 348 |
| 초6 | 5.51 | 5.04 | 5.05 | 5.34 | 15.4 | 308 |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도 조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42>와 같다. 1~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가정 내 급식 지원, 재택근무·단축근무·유연근무 활성화가 조사되었다. 감염병 위기대응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42〉 코로나 대응 자녀돌봄 지원 필요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 순위 | 1+2+3 순위 | 계 | (명) |
|--|------|------|------|-----------|-------------|-------|-------|
| 돌봄비용 지원(돌봄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 51.5 | 15.2 | 11.6 | 66.7 | 78.3 | 100.0 | 2,000 |
| 긴급돌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 12.1 | 20.0 | 14.7 | 32.1 | 46.8 | 100.0 | 2,000 |
| 가정 내 아동급식 배달 | 11.0 | 19.9 | 13.5 | 30.9 | 44.4 | 100.0 | 2,000 |
| 가정 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 | 7.3 | 16.9 | 17.9 | 24.2 | 42.1 | 100.0 | 2,000 |
| 돌봄서비스 기관, 온라인 등을 통한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3.7 | 10.2 | 15.1 | 13.8 | 28.9 | 100.0 | 2,000 |
| 돌봄서비스 기관, 온라인 등을 통한 아동 정신건강 상담 지원 | 1.2 | 4.4 | 8.5 | 5.6 | 14.1 | 100.0 | 2,000 |
| 재택근무 및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 | 13.1 | 13.4 | 18.5 | 26.5 | 44.9 | 100.0 | 2,000 |
| 기타 | 0.2 | 0.1 | 0.4 | 0.3 | 0.7 | 100.0 | 2,000 |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다음은 학교의 초등돌봄서비스를 몇 학년까지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일상적인 경우와 감염병 위기 시로 나누어 각각 조사하였다. 일상적인 경우에 학교돌봄 제공은 6학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응답비율이 46.0%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6학년까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고학년 학부모의 응답비율을 고려할 때,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을 더 이상 맞벌이 가정에 한정하기보다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표 4-43〉 일상적 상황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 학년

(단위: %, 명)

| 구분 |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계 | (명) |
|----------------------------------|-----|-----|------|------|------|------|-------|-------|
| 전체 | 1.2 | 3.9 | 23.2 | 20.2 | 7.2 | 44.4 | 100.0 | 2,000 |
| 성별($\chi^2=18.716^{**}$) | | | | | | | | |
| 여성 | 1.0 | 4.1 | 25.3 | 21.5 | 5.9 | 42.2 | 59.3 | 1,186 |
| 남성 | 1.5 | 3.6 | 20.1 | 18.3 | 9.0 | 47.5 | 40.7 | 814 |
| 지역($\chi^2=16.333$) | | | | | | | | |
| 수도권 | 1.4 | 2.9 | 22.5 | 21.1 | 6.1 | 46.0 | 50.0 | 1,000 |
| 비수도권(도시) | 1.3 | 5.0 | 22.3 | 19.4 | 8.1 | 43.9 | 35.0 | 700 |
| 농어촌 | 0.3 | 4.7 | 27.7 | 19.0 | 8.3 | 40.0 | 15.0 | 300 |
| 연령($\chi^2=21.160^*$) | | | | | | | | |
| 39세 이하 | 2.3 | 4.9 | 26.5 | 18.9 | 6.1 | 41.2 | 28.5 | 570 |
| 40~44세 | 1.1 | 3.3 | 22.6 | 21.1 | 7.3 | 44.6 | 43.9 | 878 |
| 45세 이상 | 0.2 | 3.8 | 20.8 | 20.1 | 8.0 | 47.1 | 27.6 | 552 |
| 학력($\chi^2=12.729$) | | | | | | | | |
| 고졸 이하 | 2.1 | 3.3 | 16.9 | 23.1 | 9.9 | 44.6 | 12.1 | 242 |
| 대학교 졸 | 1.1 | 4.0 | 24.3 | 20.0 | 6.9 | 43.7 | 75.7 | 1,513 |
| 대학원 이상 | 1.2 | 3.7 | 22.4 | 18.8 | 5.7 | 48.2 | 12.3 | 245 |
| 맞벌이 여부($\chi^2=16.820^{**}$) | | | | | | | | |
| 맞벌이 | 1.0 | 4.5 | 25.5 | 20.6 | 6.4 | 42.0 | 60.0 | 1,200 |
| 홀벌이 | 1.5 | 3.0 | 19.8 | 19.6 | 8.3 | 47.9 | 40.0 | 800 |
| 월평균 가구소득($\chi^2=45.252^{**}$)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1.2 | 5.0 | 19.3 | 17.8 | 12.4 | 44.4 | 13.0 | 259 |
| 300~400만 원 미만 | 1.7 | 2.8 | 20.0 | 17.2 | 6.5 | 51.8 | 17.8 | 355 |
| 400~500만 원 미만 | 1.9 | 2.8 | 23.3 | 21.4 | 7.9 | 42.8 | 21.5 | 430 |
| 500~600만 원 미만 | 0.3 | 3.6 | 25.5 | 21.0 | 4.5 | 45.1 | 17.8 | 357 |
| 600~700만 원 미만 | 1.7 | 3.9 | 26.2 | 23.6 | 4.7 | 39.9 | 11.7 | 233 |
| 700만 원 이상 | 0.5 | 5.7 | 24.9 | 20.5 | 7.4 | 41.0 | 18.3 | 366 |
| 한부모가족($\chi^2=1.194$) | | | | | | | | |
| 해당 | 1.8 | 3.6 | 19.8 | 20.7 | 8.1 | 45.9 | 5.6 | 111 |
| 비해당 | 1.2 | 3.9 | 23.4 | 20.2 | 7.1 | 44.3 | 94.5 | 1,889 |
| 총자녀수($\chi^2=7.490$) | | | | | | | | |
| 1명 | 1.2 | 2.8 | 21.6 | 19.6 | 8.5 | 46.2 | 25.2 | 504 |
| 2명 | 1.1 | 4.4 | 24.2 | 20.4 | 6.7 | 43.2 | 60.5 | 1,209 |
| 3명 이상 | 1.7 | 3.8 | 21.6 | 20.2 | 6.6 | 46.0 | 14.4 | 287 |
| 학년($\chi^2=125.436^{***}$) | | | | | | | | |
| 초1 | 3.3 | 4.5 | 33.1 | 16.3 | 4.5 | 38.3 | 16.6 | 332 |
| 초2 | 1.4 | 8.1 | 27.5 | 22.0 | 7.5 | 33.3 | 17.3 | 345 |
| 초3 | 0.6 | 3.7 | 24.8 | 22.0 | 8.0 | 40.9 | 16.2 | 323 |
| 초4 | 0.6 | 1.7 | 16.3 | 23.3 | 9.0 | 49.1 | 17.2 | 344 |
| 초5 | 0.6 | 1.7 | 16.1 | 16.1 | 10.3 | 55.2 | 17.4 | 348 |
| 초6 | 0.6 | 3.6 | 21.8 | 21.8 | 2.9 | 49.4 | 15.4 | 308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욕구 조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돌봄 제공은 6학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돌봄 및 학습 지원) 제공 학년

(단위: %, 명)

| 구분 |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계 | (명) |
|-----------------------------|-----|-----|------|------|-----|------|-------|-------|
| 전체 | 1.6 | 3.7 | 18.6 | 18.4 | 7.4 | 50.5 | 100.0 | 2,000 |
| 성별($\chi^2=8.359$) | | | | | | | | |
| 여성 | 1.6 | 3.6 | 19.0 | 19.8 | 6.3 | 49.7 | 59.3 | 1,186 |
| 남성 | 1.5 | 3.8 | 17.9 | 16.2 | 8.8 | 51.7 | 40.7 | 814 |
| 지역($\chi^2=12.160$) | | | | | | | | |
| 수도권 | 1.2 | 3.0 | 18.6 | 18.3 | 7.7 | 51.2 | 50.0 | 1,000 |
| 비수도권(도시) | 2.3 | 4.1 | 17.0 | 18.3 | 7.7 | 50.6 | 35.0 | 700 |
| 농어촌 | 1.0 | 5.0 | 22.0 | 18.7 | 5.3 | 48.0 | 15.0 | 300 |
| 연령($\chi^2=21.078^*$) | | | | | | | | |
| 39세 이하 | 2.8 | 5.1 | 20.7 | 17.4 | 6.5 | 47.5 | 28.5 | 570 |
| 40~44세 | 1.3 | 2.6 | 18.0 | 19.7 | 7.3 | 51.1 | 43.9 | 878 |
| 45세 이상 | 0.7 | 4.0 | 17.2 | 17.2 | 8.3 | 52.5 | 27.6 | 552 |
| 학력($\chi^2=5.846$) | | | | | | | | |
| 고졸 이하 | 2.1 | 3.7 | 15.7 | 21.1 | 8.3 | 49.2 | 12.1 | 242 |
| 대학교 졸 | 1.5 | 3.6 | 19.2 | 18.2 | 7.4 | 50.1 | 75.7 | 1,513 |
| 대학원 이상 | 1.6 | 4.5 | 17.1 | 16.3 | 6.1 | 54.3 | 12.3 | 245 |
| 맞벌이 여부($\chi^2=10.322$) | | | | | | | | |
| 맞벌이 | 1.4 | 4.0 | 20.5 | 18.3 | 6.7 | 49.1 | 60.0 | 1,200 |
| 홀벌이 | 1.8 | 3.3 | 15.6 | 18.4 | 8.4 | 52.6 | 40.0 | 800 |
| 월평균 가구소득($\chi^2=26.263$) | | | | | | | | |
| 300만 원 미만 | 2.3 | 3.9 | 16.6 | 16.6 | 9.7 | 51.0 | 13.0 | 259 |
| 300~400만 원 미만 | 2.8 | 3.4 | 15.2 | 16.9 | 6.2 | 55.5 | 17.8 | 355 |
| 400~500만 원 미만 | 2.1 | 3.3 | 18.1 | 18.8 | 7.9 | 49.8 | 21.5 | 430 |
| 500~600만 원 미만 | 0.3 | 4.2 | 20.4 | 20.4 | 6.4 | 48.2 | 17.8 | 357 |
| 600~700만 원 미만 | 0.9 | 3.4 | 23.2 | 18.9 | 6.0 | 47.6 | 11.7 | 233 |
| 700만 원 이상 | 0.8 | 4.1 | 18.9 | 18.0 | 7.9 | 50.3 | 18.3 | 366 |
| 한부모가족($\chi^2=0.685$) | | | | | | | | |
| 해당 | 0.9 | 3.6 | 18.0 | 18.0 | 6.3 | 53.2 | 5.6 | 111 |
| 비해당 | 1.6 | 3.7 | 18.6 | 18.4 | 7.4 | 50.3 | 94.5 | 1,889 |
| 총자녀수($\chi^2=8.491$) | | | | | | | | |
| 1명 | 2.2 | 2.6 | 16.7 | 17.3 | 8.1 | 53.2 | 25.2 | 504 |
| 2명 | 1.2 | 4.1 | 19.2 | 18.9 | 7.4 | 49.3 | 60.5 | 1,209 |
| 3명 이상 | 1.7 | 4.2 | 19.2 | 18.1 | 5.9 | 50.9 | 14.4 | 287 |

| 구분 |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계 | (명) |
|----------------------------------|-----|-----|------|------|-----|------|------|-----|
| 학년 ($\chi^2=109.376^{***}$) | | | | | | | | |
| 초1 | 3.9 | 4.5 | 27.4 | 17.8 | 3.9 | 42.5 | 16.6 | 332 |
| 초2 | 2.0 | 7.0 | 22.6 | 20.3 | 7.5 | 40.6 | 17.3 | 345 |
| 초3 | 0.6 | 3.4 | 17.6 | 19.2 | 9.6 | 49.5 | 16.2 | 323 |
| 초4 | 0.6 | 2.3 | 14.2 | 20.9 | 8.7 | 53.2 | 17.2 | 344 |
| 초5 | 0.6 | 1.4 | 11.5 | 14.1 | 9.8 | 62.6 | 17.4 | 348 |
| 초6 | 1.6 | 3.6 | 18.2 | 17.9 | 4.2 | 54.5 | 15.4 | 308 |

주: *p<0.05, **p<0.01,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제4절 시사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실태 및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마을돌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된 긴급돌봄의 경우 마을돌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0% 내외로 높게 조사되었다.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 이전의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긴급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긴급돌봄 제공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다양한 활동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도 학교돌봄의 경우 서비스 중 입출입이 불가한 규정에 대한 불만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는 선입견에 대한 불만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전자의 규정은 매우 공급자 편의주의적인 규정이며, 서비스 이

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해서 일반 아동 비율이 기존의 20%에서 40%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낙인효과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일반아동이 이용하는 비율의 조정만으로 기존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적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아동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 시기에 오후시간에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은 감염병 위기 이전 13.8%였으나 18.1%로 증가하였고, 오전에 휴교 등으로 혼자 있는 아동은 14.5%로 조사되어 휴교 및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돌봄 제공이 바람직한 학년을 조사한 결과 50% 내외의 응답자가 6학년까지 학교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학교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위기 같은 돌봄위기가 닥칠 경우 적절한 돌봄 대응을 위해서는 일상돌봄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탄탄한 일상돌봄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위기 시 긴급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미이용자 이외에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자리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사례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가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여전히 양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며 실수요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에 일정 부분 맞벌이 가정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무조건 무상돌봄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자부담 구조의 공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업 실태와 환경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취약가구의 온라인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인터넷 및 TV 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학습관리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휴교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 및 학습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 밖에 부모의 근로 및 소득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 접근성이 낮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에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으로 인한 휴직 및 퇴사 경험 등을 살펴볼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돌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머니에서 자녀돌봄의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도 일·가정 양립제도와 같은 시간지원,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가정 내 급식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돌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하나의 정책보다는 비용, 시간, 서비스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함께 시간 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보편적 지원 제도로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을 때 돌봄위기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국내 상황은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특히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위기대응 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과제



제 5 장 위기대응 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아동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장

위기대응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아동돌봄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이며, 돌봄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간의 국내 아동돌봄의 가치와 목적은 저출산 시대에 여성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돌봄을 지원해온 경향이 있다. 이는 아동의 관점에서 수행되기보다는 양육자 관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서비스는 수요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었다.

아동돌봄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미시적인 일·가정 양립지원 기능에서 확장되어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 개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아동은 온전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돌봄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돌봄의 주체는 아동이어야 하며 부모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의 서비스 공급은 수요에 기반하기보다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서비스 공급수준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충족 수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감염병 위기 같은 돌봄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의 아동이 돌봄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누구나 돌봄대상이 되는 보편적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돌봄서비스에서 전 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전환을 표명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이 현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정책의 기본은 돌봄위기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와 형평성 증진 노력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일정 기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무상보육 같은 무상돌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 학령기 돌봄의 경우 취학전 영유아 돌봄과 같이 80~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으며 매우 다층적인 돌봄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2.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돌봄의 특징은 수요가 주변환경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돌봄수요는 일정하지만 이와 함께 가변적인 수요도 함께 발

생한다. 감염병 위기 같은 주변환경의 변화는 돌봄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함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은 일상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면서 가변적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돌봄제공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프라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적정 수급안이 마련되어 지역단위로 아동돌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돌봄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에 따른 돌봄공백은 다양한 유형으로 드러날 것이다. 기존의 돌봄취약계층 이외에 일반아동을 둘러싼 감염병 위기 정도에 따라 돌봄위기를 경험하는 수준과 내용이 다양해질 것이다. 사회적 차원 확보 능력의 차이에 따른 돌봄격차뿐만 아니라, 가족 및 아동의 격리 및 입원 등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 등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에 따라 초래되는 다양한 돌봄공백에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휴교에 따른 교육공백은 돌봄공백뿐만 아니라 아동의 균등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교육공백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지원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 영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기기지원 및 온라인 학습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2절 세부 과제

돌봄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모든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보호를 보장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의 특성을 가지고 아동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일상의 돌봄수요와 가변적인 돌봄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같은 돌봄위기 시 돌봄공백의 방지와 형평성 제고(격차 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안한다. (1)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 (2) 탄력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수급관리 체계 구축, (3) 다양한 방법의 지원체계 구축.

1.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의 질 개선

이번 감염병 위기 시에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수요의 감소는 일시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돌봄시설의 방역수준에 대한 신뢰감이 충분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일 뿐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질 관리와 감염병 관리 환경이 구축된다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더불어 긴급돌봄을 추가로 요하는 아동 등 오히려 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초등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아동이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까지의 시간과 공간의 공백을 채워주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틈새 돌봄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돌봄수요는 매우 일상적이며 보편적이다. 따라서 학생의 생활권역에 있는 모든 돌봄기관, 즉

학교의 초등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마을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돌봄을 받고 싶을 경우 언제 어디서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개선과 양적 확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수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서비스 공급수준은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미충족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충족 수요의 일부는 자발적 미이용자와 비자발적 미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서는 적어도 비자발적 미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이용하지 않는 자발적 미이용자의 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발적 서비스 이탈자의 수요를 함께 고려할 경우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는 방법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하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공급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증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개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소가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돌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온라인 수업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돌

봄프로그램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 관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수요자(부모)의 학습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동의 관점에서 돌봄을 통해 경험하고 성취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수요자(부모)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휴교로 인한 학습공백에 따른 학습격차 및 학업발달 기회의 결여 등의 문제 완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이용아동에 대해서 질 좋은 온라인 학습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휴교로 인한 일반적인 학습공백은 교육부가 교육지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아동에 한정해서 돌봄환경 구축 시 온라인 학습환경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가. 수요자 부담의 서비스 공급 모형

현재까지 공적 돌봄서비스는 무상제공 또는 최소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정 부분 자부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될 뿐만 아니라(김은정 외, 2019), 해외사례의 경우에도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질 개선과 양적 확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시 일정 부분 수요자 부담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본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고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돌봄위기 시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부담 모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인프라 수준이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수 있기에 돌봄위기 정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등은 필요하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또는 돌봄의

사회화는 국가나 사회가 가족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전적으로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서비스는 돌봄 욕구(필요)에 기반한 보편주의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돌봄 욕구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에게나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서비스 제공

현재 돌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좀 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기능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서적·사회적·행동적 발달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고 아동의 놀 권리 등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하는 기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보호자가 돌봄을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만들어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어야 하고, 돌봄서비스의 성과(예, 친구와 노는 기회 확대, 사회성 증가, 행복도 증진 등)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돌봄 내용이 아동 중심, 아동친화적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은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을 잔여적 특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잔여적 특성을 갖기보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편타당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백경훈, 2015). 같은 관점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이 교육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는 돌봄환경에서 아이들의 학습지원은 돌봄제공자의 업무가 아니라며 회피되고 있다. 돌봄을 통해 반드시 학습이

지원될 필요는 없지만, 돌봄영역과 학습영역의 이원화된 구분체계보다는 에듀케어 관점에서 단순 돌봄 이상의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년에 따른 돌봄모델이 구축되어 돌봄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돌봄시간을 의미 있는 사람과 의미 있게 보내며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원격수업 지원 환경 개선

학생과 학부모는 원격수업 등 학습지원을 위한 돌봄을 선호하고 있으며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급박하게 운영됨에 따라 학교의 긴급돌봄에서 제공되는 원격수업 지원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각자 구비하도록 하였고, 긴급돌봄 참여 학생들이 기존 교실에서 이어폰을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덕난, 유지연, 최재은(2021)은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규 수업을 원격수업 형태로 이수할 경우에 학습효과 저하는 물론이고 학생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돌봄 등 초등학교 일과 시간 중 긴급돌봄에 참여하여 원격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문제, 수업진행을 지원할 인력의 부재 등 학교, 집, 마을돌봄 등 모든 돌봄공간에서 원격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휴교에 따른 학습공백 및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 등은 의무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학교 교육체계에서 적극 고민해야 할 ‘학습지원체계’로 검토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의 제안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한다. 원격수업환경이 장기화 또는 일반화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학습 및 긴급돌봄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지역단위별 세심한 분석을 통해 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원격학습 지원 및 학생의 학습공백을 채워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수행하면서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을 적절히 갖추지 못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학교돌봄, 마을돌봄)에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인력 확보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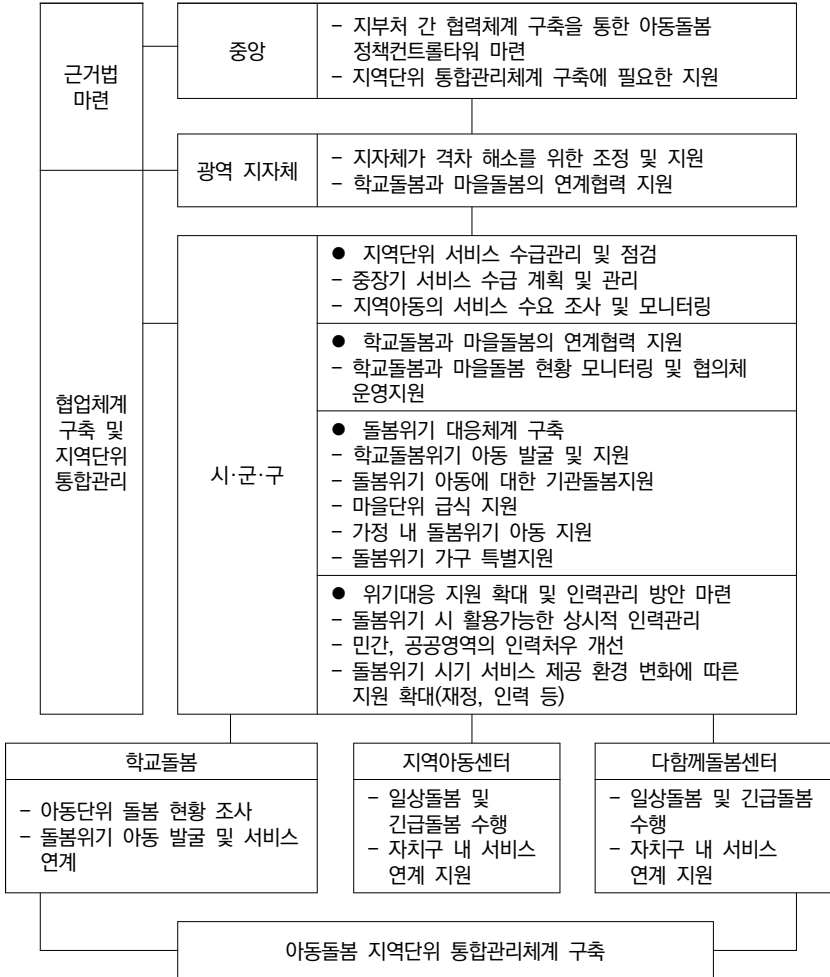
2. 탄력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

향후 코로나19 등과 유사한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 돌봄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돌봄정책의 기본은 돌봄위기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와 형평성 제고 노력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관점의) 보다 세밀한 기준과 수요 파악의 체계가 지역단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동돌봄 역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용자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 수급체계에 대한 진단과 점검은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주도적

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과 연계의 역할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군구와 광역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시·군·구와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중심으로 돌봄수요,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한 수급 계획 마련을 위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융합형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돌봄조정관을 두어 학교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지역단위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위기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돌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1) 돌봄위기 대응체계 구축, (2) 긴급돌봄을 위한 상시적 인력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3) 감염병 위기에 따른 가정 내 긴급돌봄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지역단위 수급관리체계 구축의 개요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지역단위 수급관리체계 구축 모형



가. 돌봄위기 대응체계 구축

항시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을 요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돌봄과 함께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긴급돌봄체계를 지역단위로

구축하여 지역 내의 돌봄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긴급 돌봄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권리는 더욱 침해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하여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민희, 김성기, 황준성(2021)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긴급돌봄 지원체계는 지자체, 교육청(학교), 지역사회(마을)가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지자체 공동긴급돌봄지원단’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긴급돌봄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사무로 인식하되,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섬으로서 독자적으로 긴급돌봄 및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포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역사회의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탄력적이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단위 수급관리체계 구축(긴급돌봄 대응체계, 돌봄취약가구 특별지원체계 포함)은 시·군·구가 초등돌봄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학교 및 마을돌봄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수요를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구는 돌봄취약가구 아동 발굴과 서비스 기관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상황에서 초등학교는 일시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돌봄보다 마을의 돌봄이 더 유용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을 중심으로 생활권역권에 있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긴급상황에서 돌봄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돌봄수급관리를 위한 사실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조직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근거법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팬데믹 심각위기 상황의 lock-down을 제외한다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학교-마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 간 연계와 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속하는 것을 법제화(legal entitlement)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한부모 가족, 농어촌 가구의 경우 돌봄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취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돌봄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더 불리해지는 취약 집단의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생활권 역별(동 단위 등)로 돌봄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에는 기존의 돌봄취약아동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가구의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돌봄위기 아동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을돌봄의 경우 방역 관련 부모의 아동에 대한 우선이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다양하고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돌봄-마을돌봄이 충분한 대처 없이 문을 닫았던 부분으로,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올 경우, 이미 노출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휴원·휴업·휴관 및 원격수업/온라인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세부 기준의 마련과 교육/돌봄의 공백 방지를 위한 교육·돌봄 전환·협력 체계

의 구축이 점검되고 제안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 및 단계별 접근과 지역별 대응체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제안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지침과 안내자료가 학교와 마을돌봄 현장에 배포되었으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현장인 초등학교와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코로나19라는 낯선 환경에서 긴급돌봄과 일상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20년 봄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매뉴얼 같이 긴급돌봄 운영 매뉴얼 또는 긴급상황 시 초등돌봄교실 운영 매뉴얼 등과 같이 방역 등이 포함된 돌봄 계획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2021년 여름에 ‘코로나19 관련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가 배포되었다. 마을돌봄의 경우에도 시시각각 수정되어 내려오는 운영 매뉴얼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는 센터장의 재량이 너무 폭넓게 적용되어 능력 이상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과 또 다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화하여 지침을 따르도록 한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현장의 돌봄 실태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에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현장 적용에 적합한 지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돌봄 지원 영역 및 내용, 긴급돌봄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다른 재해 및 재난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심리정서, 안전한 돌봄, 학습, 건강 등 다양한 지원영역

및 내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나. 긴급돌봄을 위한 상시적 인력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에 대응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만 대면 서비스라는 초등돌봄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돌봄시설 내 밀집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돌봄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용인원을 단순히 줄일 수만은 없다. 기존의 수용인원을 줄여서 밀집도를 해소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 공급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돌봄공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학교의 긴급돌봄은 당초 돌봄교실 이용과 무관하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마을돌봄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학교의 긴급돌봄 또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학교마다 긴급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 않거나, 저학년만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이 제공되는 등 수요자의 돌봄공백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감염병 위기 시에 운영되는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돌봄공간과 돌봄인력을 확보하여 적절한 밀집도 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학교돌봄은 휴교 등에 따른 교실 및 학교 내 타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상돌봄을 위한 충분한 돌봄공간을 확보하면 긴급돌봄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의 확보와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인력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원격학습 지원이라는 상황과 맞물려서 단순한 보호뿐만 아니라 원격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인력은 물론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한 급간식 및 방역 등을 담당할 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위기에 따른 추가인력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의 관리·운영 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경우 퇴직한 교원이나 방과후강사 등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인력으로 활용하였으며, 마을돌봄의 경우 감염병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행해졌다. 이 같은 추가인력 지원은 서비스 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휴교에 따른 돌봄 제공 시간 확대와 감염병 관리 업무 등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추가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단위 학교와 마을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시스템화하여 긴급상황에서 돌봄인력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감염병 발생 시 초래되는 인력공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상시적인 인력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력지원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간이 늘어날 경우(실제, 마을돌봄의 경우 휴교로 인해 방학기간이 아님에도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학교돌봄터 사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인력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돌봄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공무원 형태로 고용하는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마을돌봄의 경우 민간위탁이나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의 처우가 상이하다. 지

자체가 학교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공공 인력운용조직이 지자체에 필요(ex, 서울시의 구로구 사회서비스재단, 중구 시설관리공단, 노원구 복지문화재단 등)하다.

다. 감염병 위기에 따른 가정 내 긴급돌봄 지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초래되는 돌봄위기는 일상의 긴급돌봄과 차이가 있다. 감염병 특성상, 아이의 감염 및 격리, 부모 및 보호자의 감염 및 격리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유사한 상황에서 가정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호자의 격리 및 입원, 또는 자녀의 격리 및 입원 등이 발생하면 자녀돌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보호자의 부재에 따라 발생한 돌봄공백의 경우, 가정에 돌봄인력(아이돌보미 활용, 지역 내 상시돌봄인력 풀 운영을 통한 지원 등)을 파견하는 방안 또는 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별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정 내 파견서비스의 경우, 파견인력의 노동자성 인정, 혼자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모니터링 및 평가 곤란 등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자녀가 격리 및 입원을 해야 하며 보호자의 동반을 요하는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하나로 관련 휴가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

3. 다양한 방법의 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돌봄은 서비스지원만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의 돌봄지원정책은 서비스지원, 현금지원, 시간지원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비스지원 수준이 현금지원이나 시간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돌봄바우처 제공, 가족돌봄휴가 지원 및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금지원 및 바우처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시간지원제도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감염병 위기 시 정부의 돌봄바우처는 매우 한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과 재택근무는 근로 환경에 따라 매우 차별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서비스지원 확대와 함께 현금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 활성화를 통한 자녀돌봄 시간지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돌봄위기 대응 현금지원 확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였다. 앞에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 미취학 아동에 대해 40만 원 상당의 돌봄쿠폰을 지급(바우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형식)하였으며,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지급 대상 아동을 만 15세(중학생)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2차 지급 시에는 미취학,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아동특별돌봄지원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만 12~15세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였다. 2차 시기 지원의 경우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활용하고,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스쿨뱅킹 등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였다.

아동돌봄쿠폰의 효과성 분석 결과, 가계소비지출 증가와 그에 따른 영세상인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으며 아동 관련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철희, 이수진, 2021).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에서도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돌봄을 서비스지원, 현금지원, 시간지원으로 구분해 볼 때 아동수당, 영아수당 같은 현금지원의 수준은 OECD 국가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다(임현규, 2019). 장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관점에서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상의 수당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 상황 같은 비일상적 상황에서 추가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현금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돌봄시간 확보

아동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은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서 수행된다. 양육과 관련한 국내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수준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활용 수준은 매우 낮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 자녀돌봄을 위한 관련 제도의 활용사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 직장 내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며, 시간지원제도 활

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변화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환경에서 관련 제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근로자일수록 시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규모 및 특성에 따른 접근이 중요하다.

기존 제도의 활성화 이외에 감염병 위기 같은 특수 상황에 따른 돌봄휴가 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조건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관련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으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활용성이 낮거나, 해당 제도가 수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일부 영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명확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급여 삭감이 심각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양육지원을 위해 현금지원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아동양육 가구에서는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절대적으로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 욕구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외부 인력에 대한 감염 불안 등),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지원을 통해 좀 더 탄력적으로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관계부처합동. (2018).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0).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0.2.28.).
- 교육부. (2019).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교육부 보도자료(2019.1.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4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opType=N>에서 2021.5.28. 인출.
- 교육부. (2020a).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2020.3.12.).
- 교육부. (2020b).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교육부 보도자료(2020.3.17.).
- 교육부. (2020c).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2020.3.24.).
- 교육부. (2020d).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계획 안내(2020.4.8.). 방과후돌봄정책과.
- 교육부. (2020e).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2020.5.24.).
- 교육부. (2020f).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2020.8.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9.23. 인출.
- 교육부. (2020g). 초등돌봄교실 방역 강화 및 방학 중 돌봄 안전 관리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20.12.31.).
- 교육부. (2020h). 학사운영 방법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방안 안내. 안내자료(2020.5.22.).

- 교육부. (2021a). 2021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자료(2021.1.14.).
- 교육부. (2021b). 2학기 학사운영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자료 (2021.8.9.).
-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20.8.11.).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코로나19 관련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서.
- 김민희, 김성기, 황준성. (2021). 온종일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교육부,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 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홍원. (2017). 해외 방과후 돌봄 운영사례분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CP-2017-0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백경훈. (2015). 여성주의 논의 확장을 통한 '아동중심적 아동돌봄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아동과 권리, 19(1), 1-25.
- 백순근, 이솔비, 장지현, 양현경. (2019).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 육아정책 연구, 13(1), 55-74.
- 보건복지부. (2020a).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d).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3.27.).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SEARCHKEY=TITLE&SEARCHVALUE=200%EB%A7%8C에서 2021.8.12. 인출.
- 보건복지부. (2020e).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9.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894&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4%EA%B8%89%EC%83%9D%EA%B3%84%EC%A7%80%EC%9B%90에서 2021.8.12. 인출.
- 보건복지부. (2020f). 김강립 1차관, 4차 추경 집행 관련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준비상황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9.2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46&SEARCHKEY=TITLE&SEARCHVALUE=%EA%B9%80%EA%B0%95%EB%A6%BD+1%EC%B0%A8%EA%B4%80에서 2021.9.8.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2020.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판).
- 보건복지부. (2021.7.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8판).
- 보건복지부. (2021.11.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9판).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0-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1~8-3판.
- 아동권리보장원. (2020).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안수란, 김동진, 김은정, 어유경, 오욱찬, 이상정, ...이주민. (2021).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미선. (2017).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20. 육아정책연구소.
- 오현정, 황원경. (2019).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은기수. (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35-49.
- 이덕난, 유지연, 최재은. (2021).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입법정책, vol. 83.
- 이철희, 이수진(2021).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경제학연구, 69(3), 5-54.
- 이혜숙, 신인철, 한진아, 이영주. (2018). 가용자원을 활용한 지역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연구원.
- 이혜숙, 이영주. (201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이희현. (2020).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운영 사례와 과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교육개발 가을호, 68-73, 한국교육개발원.
- 임현규. (2019).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포럼, 61, 25-30.
- 장수정, 송다영, 백경훈. (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 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김수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참고자료(2018.4.4.).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8&listLen=4&searchKeyword=%EC%98%A8%EC%A2%85%EC%9D%BC&position=E>에서 2021.7.21. 인출.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정익중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년 여름 13호, 47-59.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

- =03&MENU_ID=030406&CONT_SEQ=352807&page=1에서 2021. 10. 11. 인출.
- 최아라. (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21, 11(4), 1379-1389.
-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현임, 손가현. (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 - 다함께돌봄 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국가별 교육동향, “온타리오주 방과전·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2017.10.11.).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63&pageIndex=5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6105&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15.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해외 방과후 돌봄 운영 사례 분석 자료집.
- 김홍원. (2017). 해외 방과후 돌봄 운영사례분석-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0a). 국가별 교육동향, “덴마크 : 휴교 기간 중 온라인 수업 진행”(2020.4.22.).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96&pageIndex=7&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921&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28.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20b). 국가별 교육동향, “덴마크 : 휴교 기간 중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2020.4.22.).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96&pageIndex=7&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920&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28.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20c). 국가별 교육동향, “덴마크 : 유치원생과 저학년 등교 수업 시작”(2020.5.27.).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96&pageIndex=6&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6408&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28.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20d), 국가별 교육동향 “ 캐나다: 매니토바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무기한 휴교”(2020.4.8.).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715>에서 2021.9.15.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20e). 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필수 분야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운영”(2020.4.8.).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2&nTbCategorySeq=10063&pageIndex=2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5712&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21.9.15.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온타리오 주, 최전선 필수 노

동자를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2021.1.27.).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2&nTbBoardArticleSeq=829737>에서 2021.9.15. 인출.

BBC News. (2020.5.12.). *“How reopened schools in Denmark keep children safely apart”*.

<https://www.bbc.com/news/education-52550470>에서 2021.10.10. 인출.

EC. (2021). *JRC Technical Report, “The school year 2020-2021 in Denmark during the pandemic”*.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bitstream/JRC125452/jrc125452_edu_covid_denmark_report_2021.pdf에서 2021.10.17. 인출.

OECD Family Database. (2016). *PF4.3: Out-of-school-hours servic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1.10.17. 인출.

Statistics Canada. (2020). STATCAN COVID-19: DATA TO INSIGHTS FOR A BETTER CANADA, *Child care us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150.statcan.gc.ca/n1/pub/45-28-0001/2020001/article/00062-eng.htm>에서 2021.10.10. 인출.

UN. (2020.5.12.). *COVID-19 pandemic ‘quickly becoming a child rights crisis’:Daily death rate could spile by 6,000 for under-fives*. UN News Global perspective Human stories.

<https://news.un.org/en/story/2020/05/1063822>에서 2020.5.14. 인출.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2020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https://www.schoolinfo.go.kr/ng/go/pnnggo_a01_l2.do에서 2021.5.28. 인출.

Active after school 홈페이지.

<http://activeafterschool.ca/program/superkids-afterschool>에서 2021.10.10. 인출.

Act on Day-Care, After-School and Club Facilities (in Danish).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82051>에서 2021.10.10. 인출.

덴마크 홈페이지.

<https://lifeindenmark.borger.dk/>에서 2021.10.10. 인출.

할튼구 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dsb.ca/parents/Pages/Before%20and%20After%20School%20Care/Child-Care-Rates.aspx>에서 2021.10.10. 인출.

온타리오 홈페이지.

http://www.mtc.gov.on.ca/en/sport/afterschool/after_school.shtml에서 2021.10.10. 인출.

온타리오 홈페이지.

www.ontario.ca/page/types-child-care에서 2021.10.10. 인출.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https://news.ontario.ca/en/backgrounder/61162/ontario-provides-emergency-child-care-for-critical-frontline-workers>에서 2021.10.11. 인출.

온타리오 주 역사, 관광, 스포츠, 문화산업부 홈페이지.

http://www.mtc.gov.on.ca/en/sport/afterschool/after_school.shtml에서 2021.10.10. 인출.

Statistics Denmark.

<https://www.statbank.dk/BOERN4>.

YMCA Hamilton 홈페이지.

<https://www.ywcahamilton.org/child-and-youth-services/>에서

2021.10.10. 인출.





[부록 1]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표



| 응답자 ID | | | |
|--------|--|--|--|
| | | | |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본 조사는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돌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코로나 시기의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코드화되며, 통계 산출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서 어려움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김은정 부연구위원

조사업체 : 엠브레인퍼블릭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담당연구원 : 박주찬 차장

202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art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SQ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

SQ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SQ3-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등 지역 ② 읍면 지역

SQ4. 실례지만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기혼(별거, 이혼, 사별)

SQ5.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자녀수를 적어주세요.

[Prog: 보기 ②와 ③ 초등생 자녀가 한 명도 없으면 조사 종료]

| | | |
|----------|------------------|--|
| SQ5. 자녀수 | 총자녀수 ()명 | ※ 해당 시기에 각각의 자녀수 기입하게 구현 총자녀수와 합계 일치 |
| | | ① 영유아(초등학생 미만) ()명 ② 초등저학년(1~3학년) ()명 ③ 초등고학년(4~6학년) ()명 ④ 중고등학생 ()명 ⑤ 대학생 이상 ()명 |

SQ6.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만약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SQ7. 귀하의 취업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Prog: 배우자 문항은 SQ4의 혼인 상태가 2번 기혼(사실혼 포함)인 경우만 제시]

| | (1) 본인 | (2) 배우자(사실혼 포함) |
|------------------|--|--|
| SQ7. 취업여부 | ① 취업 → 아래 본인 SQ7-1로 ② 비취업 → 배우자 문항 응답 후 동의서로 | ① 취업 → 아래 배우자 SQ7-1로 ② 비취업 → 동의서로 |
| SQ7-1. 경제활동 참여상태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 ②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③ 고용주,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기타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 ②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③ 고용주,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기타 |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연령 등), 돌봄 서비스 인지도, 코로나 시기의 돌봄 및 온라인 학습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및 양육 환경 변화, 돌봄 서비스 및 정책 요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생을 돌보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 돌봄의 어려움,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코로나 시기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정책 요구도 조사'에 응답자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문1로

동의 안 함(동의하지 않을시 본 설문은 종료합니다.) → 조사 종료

Part A. 돌봄서비스 인지

문1. 귀하는 다음의 돌봄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돌봄서비스 설명>

| 서비스 | 정의 및 내용 |
|---------------------------|--|
| (1) 초등돌봄교실 | -초등학교 내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다름) -오후돌봄(방과후-17시), 저녁돌봄(17시-22시) 등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 (2) 방과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전용 교실 또는 겸용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학교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 (3) 방과후학교 | -방과후에 다양한 특별활동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 |
| (4)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제공 |
| (5)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숙제지도, 신체활동, 학습활동(특기적성) 프로그램, 급·간식 등을 제공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운영 |
|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 3학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프로그램, 생활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 |
| (7) 아이돌보미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
| (8) 지자체 돌봄서비스 | -위에 제시된 보기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부담 완화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서비스 |

| 서비스 | 응답 내용 | |
|---------------------------|------------------------|-----------------------|
| (1) 초등돌봄교실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2) 병리후학교연계형 초등돌봄교실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3) 병리후학교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4) 지역아동센터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5)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6) 청소년병리후아카데미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7) 아이돌보미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8) 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온라인조사 설문 구현 체크 사항
- 서비스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질문이 되어야 함

문2. 귀하는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긴급 돌봄서비스 설명>

| 서비스 | 정의 및 내용 |
|----------------------------|---|
| (1) 초등 긴급돌봄교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휴업 기간 동안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지원 및 돌봄 제공 |
| (2)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설 휴원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종사자 등은 정상 근무하면서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
|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 | |
| (4) 지자체 긴급돌봄 서비스 | 위에 제시된 서비스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등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적 돌봄서비스 |

| 서비스 | 응답 내용 | |
|----------------------------|------------------------|-----------------------|
| (1) 초등 긴급돌봄교실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2)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 (4) 지자체 긴급돌봄 서비스 | ① 전혀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 ② 거의 모른다 ④ 잘 알고 있다 |

Part B. 돌봄 실태

문3. 귀하 자녀의 학교는 현재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라 주5일 등교 대신에 온라인 수업 실시 또는 등교일수 조정이 있습니까?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 (→문3-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4 이동)

문3-1. 휴교 및 등교일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 자녀의 평균 등교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단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 및 반에 따라 '주' 또는 '요일' 단위로 등교할 경우, 월평균 등교일수로 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 회 등교

문4. 귀하는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코로나 발생 이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 관점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기 중 과거 활용했던 돌봄서비스(유형)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유형)를 모두 선택하시고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시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일마다 이용시간이 다를 경우 1주일간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한 돌봄서비스(유형)에 대해서 1일 평균 개념으로 시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조사 설문 구현 체크 사항
- 코로나 위기 전/후의 문항을 하나의 화면에 구현

- (1) 학교 돌봄(긴급돌봄)
- (2) 지역아동센터(긴급돌봄)
- (3)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 공적 돌봄서비스, 서울시 우리동네커뮤니티 등)(긴급돌봄)
-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5) 아이돌보미
- (6) 민간도우미 이용
- (7)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 (8) 사설 학원 이용(학습 및 예체능)
- (9) 형제자매와 같이 있음
- (10) 혼자 있음
- (11) 부모 돌봄
- (12) 기타 _____

| 구분 | 4-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 | 4-2)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 | |
|-------|--------------------|---------|--------------------|---------|
| | 서비스 | 1일 이용시간 | 서비스 | 1일 이용시간 |
| 평일 오전 | | | | |
| 평일 오후 | | | | |

| |
|---|
| <p>※ 온라인조사 설문 구현 체크 사항</p> <p>- 문4에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이하의 문항으로 페이지 자동 이동할 것</p> <p>(예: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문5-1로 페이지 자동 이동)</p> |
|---|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및 만족도>

문5.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문항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 문4의 (1) 학교돌봄)

| 구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대 이동비율, 교실 환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중 입출입 불가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 돌봄서비스 재이용 불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요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9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문5-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학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 문4의 (1) 학교돌봄)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⑦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 돌봄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서
- ⑧ 기타 _____
- ⑨ 해당없음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학전이었음)

문6.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문항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 문4의 (2) 지역아동센터)

| 구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대 아동비율, 센터 환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 (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인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6-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 문4의 (2) 지역아동센터)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⑧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서
 ⑨ 기타 _____
 ⑩ 해당없음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학전이었음)

문7.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문항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 문4의 (3) 다함께돌봄센터)

| 구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대 아동비율, 센터 환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 (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요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감염병 위기 이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 문4의 (3) 다함께돌봄센터)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⑧ 기타 _____
 ⑨ 해당없음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은 취학전이었음)

※ 온라인조사 설문 구현 체크 사항

- 문4에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이하의 문항으로 페이지 자동 이동할 것
 (예: 현재 학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문8-1로 페이지 자동 이동)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이용 및 만족도>

문8.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문항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하는 경우 : 문4의 (1) 학교돌봄)

| 구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대 아동비율, 교실 환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중 입출입 불가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 돌봄서비스 재이용 불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요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감염병 관리 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8-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학교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문4의 (1) 학교돌봄)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⑦ 학원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학교 돌봄서비스 재이용이 제한되서
- ⑧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염려스러워서
- ⑨ 기타 _____
- ⑩ 해당없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문9.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문항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하는 경우 : 문4의 (2) 지역아동센터)

| 구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대 아동비율, 센터 환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 (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인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감염병 관리 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9-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문4의 (2) 지역아동센터)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⑧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서
- ⑨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염려스러워서
- ⑩ 기타 _____
- ⑪ 해당없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19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문 10.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문항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하는 경우 : 문4의 (3) 다함께돌봄센터)

| 구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다소 불만족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환경 (교사대 아동비율, 센터 환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급식 관련 사항 (미제공, 제공 환경, 급식 질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 (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서비스 이용요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감염병 관리 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10-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 현재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문4의 (3) 다함께돌봄센터)

- ①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 ②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 ③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⑤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 ⑦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서(학교, 집, 학원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
- ⑧ 감염병 관리 수준이 염려스러워서
- ⑨ 기타 _____
- ⑩ 해당없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Part C. 온라인 학습 실태

(※ 현재 정상등교 중인 경우, 과거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시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귀하 자녀의 온라인 수업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라인 학습(학교 수업)을 하는 곳, 온라인 학습을 위한 독립된 공간 상황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차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1-1. 온라인 학습 장소 | 11-2. 온라인 학습 장소에 독립된 공간 포함 유무 | 11-3. 학습 환경 및 공간에 대한 만족도 |
|----|---|---|--|
| 응답 | ① 집 (조부모집 등 포함) ② 학교 긴급돌봄 ③ 지역아동센터 ④ 다함께돌봄센터 ⑤ 기타 지자체돌봄센터 ⑥ 기타 _____ ⑦ 해당없음(매일 등교) →(문15 이동) | ① 독립된 개인 학습공간 있음 ② 공동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독립된 학습공간 있음 ③ 간이식 분리대 등을 활용하여 분리된 학습공간 있음 ④ 분리된 학습공간은 없으며 한 공간에서 학습과 다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짐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문12. 귀하 자녀의 온라인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받는 장소에 돌봄자가 있는지, 해당 돌봄자는 온라인 학습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지,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차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2-1. 돌봐주는 사람 유무 | 12-2. 돌봐주는 사람의 온라인 학습 지원 능력 유무 | 12-3. 온라인 학습 이용 어려움 정도 |
|----|------------------|--------------------------------|--|
| 응답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전혀 어려움 없음 ② 거의 어려움 없음 ③ 다소 어려움 있음 ④ 매우 어려움 있음 |

문13. 주로 활용하는 귀하 자녀의 온라인 학습도구, 제공자, 도구활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3-2와 13-2은 문13-1의 1~4번 응답자만]

| 구분 | 13-1. 온라인 학습 도구 | 13-2. 도구 제공자 | 13-3 도구 활용에 대한 만족도 |
|----|---|--|--|
| 응답 | ①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PC) ② 핸드폰 ③ TV ④ 기타 _____ ⑤ 도구 없음 (→문14 이동) | ① 개별 및 가정 내 소유품 ② 학교에서 제공 받음 ③ 돌봄서비스 센터에서 제공받음 ④ 지자체에서 제공받음 ⑤ 기타 _____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문14.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귀하 자녀의 온라인 학습 장소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장소에서 학습하는 경우만 해당)

| 구분 | 14-1. 가정 | 14-2. 학교 | 14-3 지역 돌봄센터 |
|----|--|---|---|
| 응답 | ① 인터넷 환경 지원(와이파이) ②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③ 학습내용 및 방법 개선 ④ 기타 _____ | ① 인터넷 환경 지원(와이파이) ②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③ 학습내용 및 방법 개선 ④ 서비스 공간 확대 ⑤ 기타 _____ | ① 인터넷 환경 지원(와이파이) ②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③ 학습내용 및 방법 개선 ④ 서비스 공간 확대 ⑤ 기타 _____ |

※ 온라인조사 설문 구현 체크 사항

- 문11-1에서 ①응답자 → 문14-1 응답
- 문11-1에서 ②응답자 → 문14-2 응답
- 문11-1에서 ③,④,⑤ 응답자 → 문14-3 응답
- 문11-1에서 ⑥,⑦ 응답자 → 문15 이동

Part D. 환경 변화

문15. 아이가 학교수업 이외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각각의 활동시간의 변화 정도를 코로나 발생 전후 비교 관점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교수업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 | | ① 매우 감소함 | ② 다소 감소함 | ③ 변화없음 | ④ 다소 증가함 | ⑤ 매우 증가함 |
|----------|--------|----------|----------|--------|----------|----------|
| 학습 | 사교육 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개인 학습 | ① | ② | ③ | ④ | ⑤ |
| 게임 및 인터넷 |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활동 | ① 매우 감소함 | ② 다소 감소함 | ③ 변화없음 | ④ 다소 증가함 | ⑤ 매우 증가함 |
|-----------------------------|----------|----------|--------|----------|----------|
| TV 시청 | ① | ② | ③ | ④ | ⑤ |
| 독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부모와 놀이 및 여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아외 활동 (놀이터, 나들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신체 활동 (운동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친구들과 사교활동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휴식 및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6. 귀하 자녀의 돌봄 및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어려움 또는 염려 정도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발생 전후 비교 관점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6-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 | | | | | | 16-2)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 | | | | | | |
|-------------|--|---|---|---|---|---|---|---------------------|---|---|---|---|---|---|
| | ① 전혀 어려움(염려) 없음 <—————> ⑦ 매우 어려움 있음(염려) 있음 | | | | | | | | | | | | | |
| 돌봄공백 대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돌봄비용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사교육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자녀의 학습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자녀의 생활습관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자녀와의 친밀도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문17. 귀하 자녀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어려움 또는 염려 정도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발생 전후 비교 관점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7-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이전 | | | | | | | 17-1)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 | | | | | | |
|----------------------|--|---|---|---|---|---|---|---------------------|---|---|---|---|---|---|
| | ① 전혀 어려움(염려) 없음 <—————> ⑦ 매우 어려움 있음(염려) 있음 | | | | | | | | | | | | | |
| 학습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온라인 활동 (게임 및 인터넷)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TV 시청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아외 활동(놀이터, 나들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신체활동 (운동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가족들과 친밀도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친구들과 친밀도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교사와의 친밀도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학교생활 적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20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 대응방안 연구

문18.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다음의 제도 중 이용한 것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g: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만 입력. 각각의 제도에 대해 ①없거나 잘 모름 응답자는 이용 실태에서 ①이용하지 않음 응답만 가능함]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 이용 실태 | | | |
|----------------|--|---|---|---|--|---|---|---|
| 18-1 부(아버지) | ① 제도가 없거나 잘 모름 ② 제도는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③ 제도가 있으며 이용에 어려움이 없음 ④ 해당없음 (비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 | | | | ① 이용하지 않음 ② 최소한으로 이용 ③ 적극적으로 활용 ④ 해당없음 (비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 | | | |
| 가족돌봄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연차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재택근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근로시간 단축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유연근무제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구분 | 제도 현황 및 이용 환경 | | | | 이용 실태 | | | |
|----------------|--|---|---|---|--|---|---|---|
| 18-2 모(어머니) | ① 제도가 없거나 잘 모름 ② 제도는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③ 제도가 있으며 이용에 어려움이 없음 ④ 해당없음 (비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 | | | | ① 이용하지 않음 ② 최소한으로 이용 ③ 적극적으로 활용 ④ 해당없음 (비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 | | | |
| 가족돌봄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연차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재택근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근로시간 단축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유연근무제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문19.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부부 소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부 각각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9-1) 부(아버지) | | | | | | 19-2) 모(어머니) | | | | | | |
|-------|---------------------------------|---|---|---|---|---|--------------|---|---|---|---|---|--|
| | ① 매우 감소함 ③ 변화 없음 ⑤ 매우 증가함 | | | | | | | ② 다소 감소함 ④ 다소 증가함 ⑥ 해당없음 (비취업, 한부모 등) | | | | | |
| 소득 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문20. **코로나 시기 자녀의 돌봄문제**로 인한 **근로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이외의 문제로 인한 변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분 | 20-1) 부(아버지) | | | 20-2) 모(어머니) | | |
|----------------------|--------------|----------|---|---------------------|---|---|
| | ① 했음 | ② 하지 않았음 | | ③ 해당없음 (비취업, 한부모 등) | | |
| 퇴사 및 휴업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근로시간 단축 (영업시간 단축)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휴직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Part E. 돌봄서비스 및 정책 요구도

문21.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면 다음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필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⑦ 매우 중요함 | | | | | | |
|------------------------------------|-------------------------------|---|---|---|---|---|---|
| 현금 및 돌봄바우처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긴급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가정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확대 (재택근무, 단축·유연근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문22.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면 현재 다음의 지원 사항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1~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돌봄비용 지원 (돌봄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 ② 긴급돌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 ③ 가정내 아동급식 배달
- ④ 가정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
- ⑤ 돌봄 서비스 기관, 온라인 등을 통한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⑥ 돌봄 서비스 기관, 온라인 등을 통한 아동 정신건강 상담 지원
- ⑦ 재택근무 및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
- ⑧ 기타 _____

문23. 귀하는 감염병 위기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몇 학년까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_____ 학년

문24. 귀하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휴교 시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서비스(돌봄 및 학습 지원)는 몇 학년까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학년

문25. 귀하는 감염병 위기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녀의 주된 돌봄 유형으로 어떤 돌봄을 희망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한 개별돌봄
- ③ 가정에서 민간도우미 이용한 개별돌봄
- ④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 ⑤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용
- ⑦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 ⑧ 기타 _____

문26. 귀하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자녀의 주된 돌봄 유형으로 어떤 돌봄을 희망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한 개별돌봄
- ③ 가정에서 민간도우미 이용한 개별돌봄
- ④ 조부모,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개별 돌봄
- ⑤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 ⑥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용
- ⑦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이용
- ⑧ 기타 _____

문27. 초등학교의 학습 및 신체 활동 시간을 확대하여 정규 하교시간을 늦추어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 ③ 다소 동의함
- ④ 매우 동의함

문28.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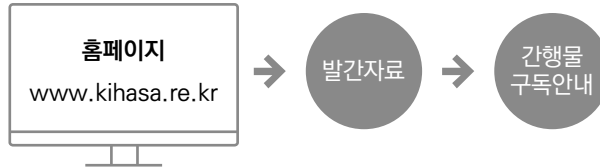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